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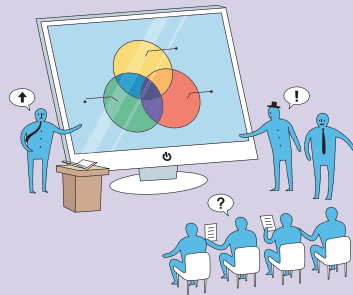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알기쉬운 사회지표 해설’을 펴내며……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화 사회를 맞아 엄청난 양의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번에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사회지표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복지, 정보와 통신, 환경과 안전, 문화와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선정해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가구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현황과 외국유학생 실태,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현황과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았던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유배우 이혼율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의 통계자료는 되도록 최신의 국가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키워드의 앞부분에 주요 통계지표나 용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곁들여 독자들이 핵심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계지표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지양하고 통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설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사회통계지표 해설을 출판하는 것이니 만큼 부족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듭 보완해 나가 이용자들이 우리 사회를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책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통 계 청 장 **우기종**



이 책의 차례 CONTENTS

1장 | 인구

01 총인구	8
02 인구밀도	16
03 출산율	20
04 사망률	24
05 기대여명과 기대수명	29
06 노령화지수	36

2장 | 가구와 가족

01 가구구조	44
02 결혼	50
03 이혼	55
04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60
05 조손가구	65

3장 | 소득과 소비

01 국민소득	70
02 지니계수	74
03 소득5분위배율	78
04 물가	80
05 빈곤율	84

4장 | 노동

01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90
02 고용률과 실업률	95
03 비정규직	101
04 노동시간	105
05 산업재해율	109

5장 | 농림어업

01 농림어가 인구	116
02 경지 규모와 영농형태	120
03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	125
04 귀농인구	131

6장 | 교육

01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률	138
02 교육격차	142
03 사교육비	147
04 유학	151



7장 | 보건 복지

01 국민체력실태	158
02 주요 사망원인	162
03 음주율, 주류소비	168
04 흡연률	173
05 비만율	178
06 장애인	184

8장 | 주거와 교통

01 주택보급률	192
02 주택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196
03 주거생활	200
04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204
05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9
06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213

9장 | 정보와 통신

01 인터넷 이용률	220
02 인터넷 쇼핑 이용률 및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224
03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228

10장 | 환경과 안전

01 환경성과지수	234
02 녹색생활과 친환경소비	238
03 에너지 소비	243
04 교통사고	247
05 주요범죄 발생건수	252
06 외국인 범죄	255

11장 | 문화와 여가

01 도서관 및 이용자 수	260
02 신문 구독	264
03 TV 시청인구비율 및 시청시간	267
04 영화 스포츠 공연	271
05 해외여행	275

12장 | 사회통합

01 부패인식지수	282
02 종교 인구	287
03 기부	290
04 자원봉사	295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I 8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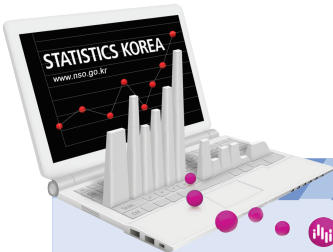
1장 | 인구



01 총인구	8
02 인구밀도	16
03 출산율	20
04 사망률	24
05 기대여명과 기대수명	29
06 노령화지수	36

01

총인구



총인구는 어떻게 파악할까? 초등학교 5학년인 윤정이는 한국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사회수업시간 발표주제로 인구통계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 사이트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인구통계 자료가 있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등 그 자료원도 다양했고, 각각의 작성 목적이나 조사 시점에 따라 총인구가 달라 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총조사인구 (Census Population)

- ◎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점(11월1일 0시 현재) 기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수.
- ◎ 조사시점의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교육, 교통, 복지, 주택 등 각종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주민등록인구 (Registration Population)

- ◎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인구를 뜻하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 ◎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집계만 가능하고 해외취업자 및 유학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거주 인구보다 더 많게 나타난다.
- ◎ 주로 행정수요 파악 및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계인구 (Population Projections)

- ◎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현재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 추세에 대한 가정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예상되는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이다.
- ◎ 추계인구는 총조사 인구(11월 1일자)의 무응답과 누락(또는 중복)을 보정하여 연앙인구(7월 1일자)로 환산한 인구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인구수는 추계인구이다.



우리나라 인구수 산출은 어떻게 할까?

인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총조사인구와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주민등록인구, 그리고 장래의 인구를 추정 계산한 추계인구 등 3가지가 있다.

통계청이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와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0%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하는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201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성명·성별·나이·교육 정도·혼인 상태 등의 기본적인 인구 정보와 사용 방수·건물 및 거주층·주거시설 형태 등의 가구 정보, 총 방수·주거용 연면적·주거시설 수 등의 주택 정보로 조사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는 인구뿐 아니라 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주택에 대한 조사는 1960년에 처음 실시되어 1990년부터 인구조사의 명칭도 ‘인구주택총조사’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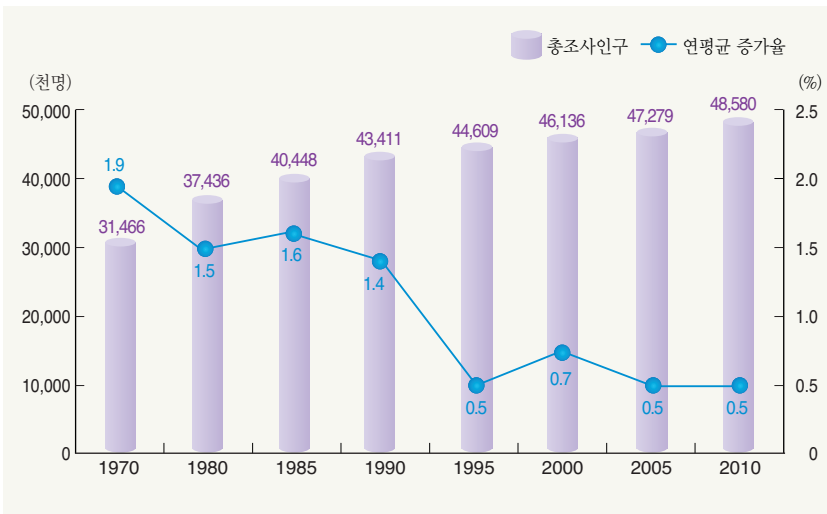
2010년 우리나라 총조사인구는 4,858만명, 주민등록인구는 5,052만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조사인구는 4,858만 명으로 2005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417만 명, 여자는 2,441만 명으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2.3%, 여자는 3.2%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 40대 인구가 1,599만9천명(33.3%)으로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적은 ‘중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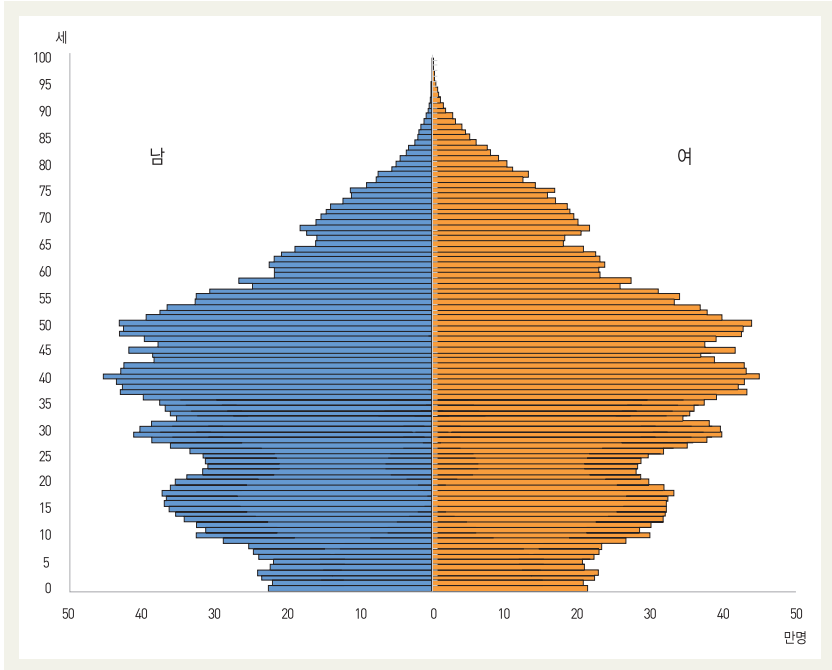
2010년 기준 세계인구 68억9,600만명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비율은 0.7%로 세계 25위 수준이다.

그림 1-1 | 우리나라 총조사인구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1-2 | 2010년 인구 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반면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1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052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약 194만명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용어설명에 나와 있듯이 총조사인구에는 무응답 등으로 조사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등록인구에는 유학생 등 실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 및 거주불명등록자(2010년 기준 52만명)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단위 : 명)

연 도	주민등록인구	연 도	주민등록인구
1992	44,503,200	2004	48,583,805
1995	45,858,029	2006	48,991,779
2000	47,732,558	2008	49,540,367
2002	48,229,948	2010	50,515,666

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우리나라 2060년 추계인구는 4,396만명

통계청이 201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한다.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4,396만명으로 1992년의 인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정점은 2016년 5,002만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명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의 1974년 인구수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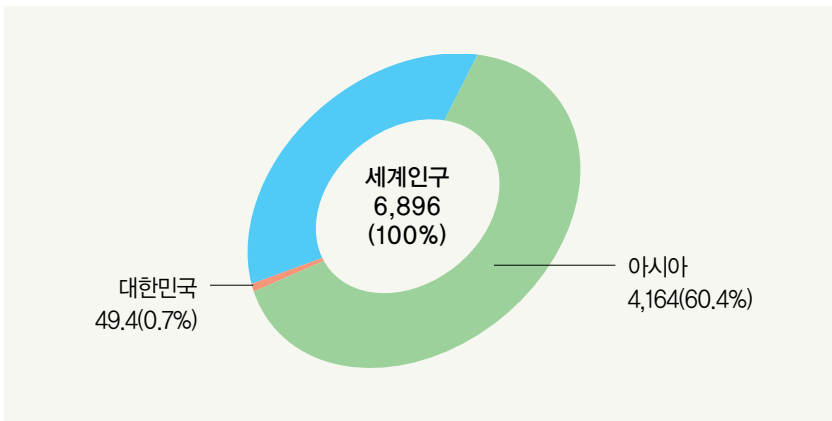
그림 1-3 | 우리나라 장래추계인구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그림 1-4 | 세계 인구 현황

(단위 : 백만명,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0년간 예상되는 인구 규모와 성·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정치로 5년마다 작성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연금 재정 등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호트요인법(코호트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고 있다. 코호트요인법이란 출생·사망·국제이동의 장래 변동 수준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성·연령별 기준인구에 출생에서 사망을 제한 자연증가와 국제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더해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에 의해 다음해 인구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기본식

$$\text{추계인구} = \text{기준인구} + 1\text{년간 자연증가(출생} - \text{사망)} + 1\text{년간 사회적 증가(입국} - \text{출국)}$$



02

인구밀도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정주연씨(29)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보금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정원이 딸린 조용한 주택가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정씨지만 서울에서 그런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에 정원이 딸린 집을 찾기도 쉽지 않고 집값도 매우 비싸다. 정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노년에는 꼭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인구밀도 (Population Density)

- ◎ 일정한 지역의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인구밀도라고 한다.
보통 1km² 안의 인구수로 나타낸다.

방글라데시, 대만 이어 세계 3번째 높은 인구밀도 보이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밀도는 km²당 486명으로 2005년의 474명보다 12명 많아졌다. 이는 도시국가 및 소규모 섬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1,033명), 대만(640명)에 이어 세계 3번째 인구 조밀 국가다.



표 1-2 | 주요 국가의 인구 및 인구밀도

(단위 : 천명, 명/km²)

국가명	인구	인구밀도	국가명	인구	인구밀도
방글라데시	148,692	1,033	일본	126,536	335
대만	23,162	640	중국	1,341,335	140
한국*	48,580	486	인도네시아	239,871	126
네덜란드	16,613	400	미국	310,384	32
인도	1,224,614	373	브라질	194,946	23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대만 통계청

* 공식인구는 추계나 시·도별 인구밀도 산정을 위해 2010년 총조사인구 사용함.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

201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383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인천지역이 서울시 유출인구를 흡수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수도권 인구비율은 46.3%, 2005년에는 48.2%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23.4%(1,137만9천명)로 가장 많으며, 서울 20.2%(979만4천명), 부산 7.0%(341만5천명), 경남 6.5%(316만명)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107만2천명이며, 가장 적은 시는 충남 계룡시 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인구 대비 동지역 인구비중을 뜻하는 도시화율은 82.0%로 2005년 81.5%에 비해 소폭 높아져 농촌의 도시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16,182명/km²)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의 33배가 넘는다.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강원도(89명/km²), 경북(137명/km²) 순이다.

지난 5년간 인구 증가율이 큰 시도는 경기(9.3%), 충남(7.3%), 인천(5.2%) 순이며 감소율이 큰 시도는 전남(-4.3%), 부산(-3.1%)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연간 약 20명/km² 씩 증가하고 있다.

표 1-3 |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밀도

(단위 : 천명, %, 명/km²)

시 도	2005년			2010년			증감(B-A)	
	인구(A)	구성비	인구밀도	인구(B)	구성비	인구밀도	인 구	증감률
전 국	47,279	100.0	474	48,580	100.0	486	1,301	2.8
동 부	38,515	81.5	-	39,823	82.0	-	1,308	3.4
읍 부	3,944	8.3	-	4,200	8.6	-	256	6.5
면 부	4,820	10.2	-	4,557	9.4	-	-263	-5.5
수도권	22,767	48.2	1,941	23,836	49.1	2,025	1,069	4.7
특·광역시	22,249	47.1	4,161	22,378	46.1	4,158	129	0.6
서 울	9,820	20.8	16,221	9,794	20.2	16,182	-26	-0.3
부 산	3,524	7.5	4,609	3,415	7.0	4,457	-109	-3.1
대 구	2,465	5.2	2,787	2,446	5.0	2,767	-18	-0.7
인 천	2,531	5.4	2,546	2,663	5.5	2,592	131	5.2
광 주	1,418	3.0	2,827	1,476	3.0	2,944	58	4.1
대 전	1,443	3.1	2,673	1,502	3.1	2,782	59	4.1
울 산	1,049	2.2	992	1,083	2.2	1,023	33	3.2
도지역	25,030	52.9	265	26,202	53.9	277	1,172	4.7
경 기	10,415	22.0	1,028	11,379	23.4	1,123	964	9.3
강 원	1,465	3.1	88	1,472	3.0	89	7	0.5
충 북	1,460	3.1	197	1,512	3.1	203	52	3.5
충 남	1,889	4.0	220	2,028	4.2	235	139	7.3
전 북	1,784	3.8	221	1,777	3.7	220	-7	-0.4
전 남	1,820	3.8	151	1,741	3.6	142	-78	-4.3
경 북	2,608	5.5	137	2,600	5.4	137	-8	-0.3
경 남	3,056	6.5	291	3,160	6.5	300	104	3.4
제 주	532	1.1	288	532	1.1	288	0	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03

출산율



2년 전 결혼한 김명기(41) 박경아씨(39)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다. 전문직에서 일하는 박씨는 당장 일이 너무 바빠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남편 김씨 역시 꼭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어서 일단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은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 집을 보면 부러워 상황이 나아지는데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다.



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 당해 연도 전체 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을 조출생률이라고 한다.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 산출방법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일반출산율 (Birth Rate)

- 당해 연도의 가임 여성(15~49세) 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을 일반출산율이라고 한다.
- 산출방법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15~49세 여성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일반출산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 연도의 15~49세 여성인구}} \times 1,000$$

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 해당 연령별 여성 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 연령별출산율의 총합이 합계출산율이 된다.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별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text{합계출산율} = \text{연령별 출산율의 합} = \text{2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 \times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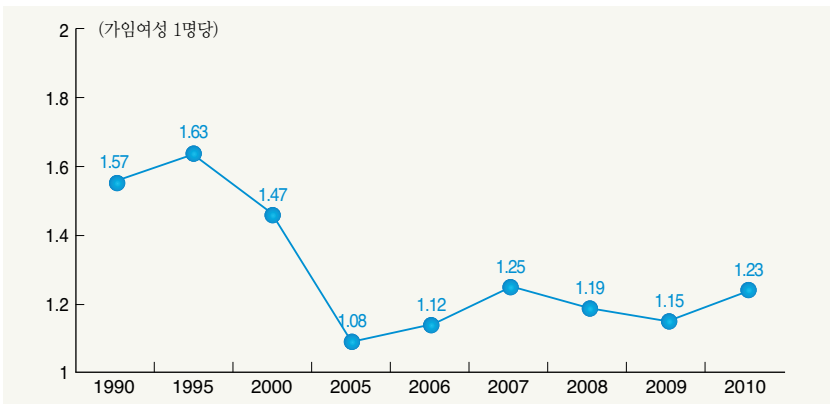
2010년 여성 한 명이 낳은 자녀수는 1.23명

일정 인구에 대한 총출생아 수의 비율로 출산율을 나타낸다. 출산율에는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합계출산율 등이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출산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한 연도에 조사된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만 해도 4.53명으로 한 가구당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가족계획 장려 및 경제 발전을 통해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으로 급속히 감소했으며 현재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년도(1.15명)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림 1-5 |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각년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09년도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1.15)는 일본(1.37), 미국(2.01), 프랑스(1.99), 영국(1.94) 보다 낮아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인구 대체 수준이며, 2.1명 미만이면 저출산사회,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사회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에 접어들었다.

표 1-4 | 국가별 합계출산율 비교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2000	1.47	1.36	2.06	1.87	1.38	1.26	1.64
2001	1.30	1.33	2.03	1.88	1.35	1.25	1.63
2002	1.17	1.32	2.01	1.86	1.34	1.27	1.64
2003	1.18	1.29	2.04	1.87	1.34	1.29	1.71
2004	1.15	1.29	2.05	1.90	1.36	1.33	1.77
2005	1.08	1.26	2.05	1.92	1.34	1.32	1.79
2006	1.12	1.32	2.10	1.98	1.33	1.35	1.84
2007	1.25	1.34	2.12	1.96	1.37	1.37	1.90
2008	1.19	1.37	2.08	1.99	1.38	1.42	1.96
2009	1.15	1.37	2.01	1.99	1.36	1.41	1.94
2010	1.23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04

사망률



김영아씨(37세)는 최근 모의 연령별 모성사망비에 관한 기사를 읽고 미루고 있던 출산을 앞당기기로 했다. 모성사망비가 가장 높은 연령은 모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출생아 10만명당 86.1명이었으며, 이는 모의 연령 35~39세의 모성사망비 28.2명에 비해 3배나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산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모성사망비가 낮은 것을 보고 김씨는 신랑과 상의하여 되도록 빨리 아이를 갖기로 했다.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 ◎ 특정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한다.
- ◎ 연령계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보통 한 나라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사망자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 ◎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 사망아수를 당해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영아사망률} = \frac{\text{당해 연도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수}}{\text{당해 연도 연간 총 출생아수}} \times 1,000$$

연령별 사망률 (Age-specific Death Rate)

- ◎ 연령구조별 사망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계층별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 남녀의 연령별 사망률 구조는 서로 상이하므로 보통 남·여를 구분하여 연령계층별 사망자수를 연령계층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연령별 사망률} = \frac{\text{특정 연령계층의 남자(여자) 사망자수}}{\text{해당 연령계층의 남자(여자) 연앙인구}} \times 1,000$$

2010년 우리나라 총사망자수는 25만5,403명

사망률은 인구에 대한 사망의 비율로 보통 인구 10만 명 또는 1000명 당 사망자 수로 표시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망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지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급증한다.

표 1-5 | 사망자수 및 조(粗)사망률 추이, 1983-2010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명, %)

연 도	사 망 자 수			조 사 망 률			사망률 성 비 (남/여)
	남녀전체	남자	여자남녀	전체	남자	여자	
1983	254,563	148,101	106,462	637.8	735.8	538.2	1.37
1985	240,418	140,671	99,747	589.2	683.7	493.1	1.39
1990	241,616	138,730	102,886	563.6	643.2	483.0	1.33
1995	242,838	137,059	105,779	532.1	597.8	465.8	1.28
2000	246,163	136,486	109,677	517.9	571.9	463.3	1.23
2001	241,521	134,058	107,463	504.5	557.8	450.7	1.24
2002	245,317	134,742	110,575	509.7	557.9	461.2	1.21
2003	244,506	134,887	109,619	506.1	556.6	455.4	1.22
2004	244,217	135,218	108,999	503.7	556.1	451.0	1.23
2005	243,883	134,382	109,501	501.0	550.5	451.1	1.22
2006	242,266	133,725	108,541	495.6	545.7	445.2	1.23
2007	244,874	134,922	109,952	498.4	547.9	448.7	1.22
2008	246,113	136,932	109,181	498.2	553.1	443.0	1.25
2009	246,942	137,736	109,206	497.3	553.7	440.7	1.26
2010	255,403	142,360	113,043	512.0	570.0	453.9	1.26
09년 대비	증 감	8,461	4,624	3,837	14.7	16.3	13.2
	증감률	3.4	3.4	3.5	3.0	2.9	3.0

자료 : 통계청, 「2010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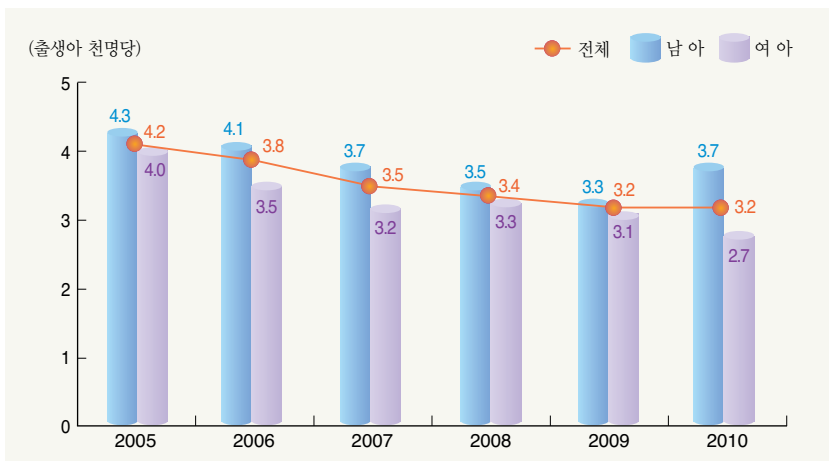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현재의 기대수명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총사망자수는 25만5,403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고 1983년 사망원인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사망률도 512.0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 영아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사망률은 2010년 3.2명으로 전년과 유사하며 2005년 4.2명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3.7명, 여자아이는 2.7명으로 남자아이가 다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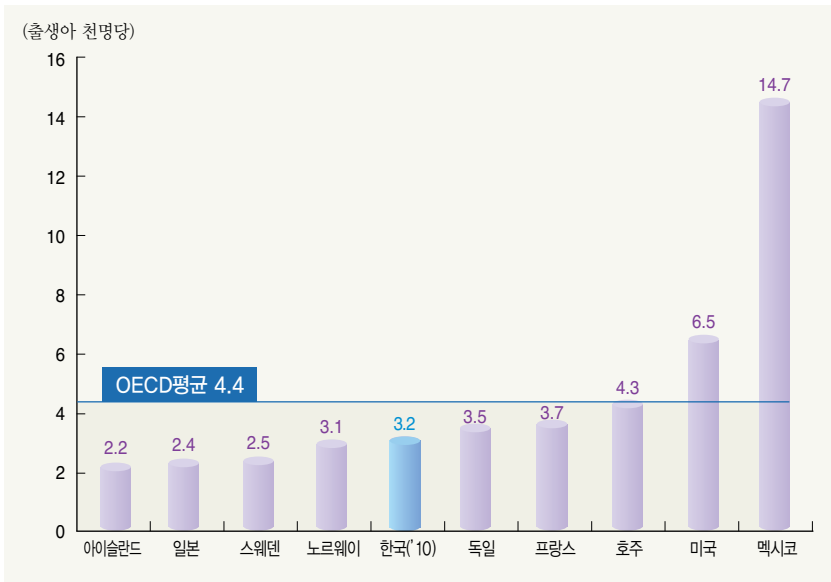
그림 1-6 | 우리나라 영아사망률



자료 : 통계청, 「2010 사망원인통계」

또한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은 평균 4.4명으로 우리나라(3.2명)가 다소 낮은 편이나 일본 (2.4명)이나 스웨덴 (2.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7 | OECD 국가 영아사망률 비교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11: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기대여명과 기대수명



올해로 53세인 김명자씨는 8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신 이모님들도 모두 살아계신다. 김명자씨의 어머니와 이모님들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찬 편이며 우리나라 80세 여성의 기대여명이 9.8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 ◎ 정확한 연령 x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Average remaining Lifetime)를 의미한다.
- ◎ 기대여명은 그 해의 사망수준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생명표로부터 얻어진다.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생명표 (Life Table)

- ◎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 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낸 표이다.
- ◎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출 등에 쓰이며 각 나이별로 작성한 생명표를 완전생명표(Complete Life Table), 5세 계급별로 작성한 생명표는 간이생명표(Abridged Life Table)라 한다.



50세 남성의 기대수명? 기대여명?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77.2년이다. 그렇다면 현재 50세인 남성은 앞으로 평균 27.2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이는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이다.

기대수명은 갓 태어난 아이의 기대여명, 즉 0세의 아기가 앞으로 살아갈 평균 생존년수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0세의 남자아이 기대여명은 한국인 남성의 기대수명과 같다.

기대여명은 그 해당 연령층이 앞으로 평균 생존하게 되는 평균년수를 뜻하기 때문에 5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단순히 0세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에서 50세를 뺀 것과는 다르다.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2010 생명표’를 보면 5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9.5년이므로, 이들은 평균적으로 79.5세(50+29.5)까지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갓 태어난 아이의 기대여명이 77.2년인데 이미 50세인 사람은 79.5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보건의료환경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의 기대여명이 50세의 기대여명보다 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0세의 기대여명은 0~50세까지의 사망 위험을 견디고 생존했기 때문에 그간의 사망확률이 제외되었고, 0세의 기대여명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사망위험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까지 생존한 사람의 기대여명은 0세의 기대여명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기대수명이라 함은 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므로 ‘50세 남자의 기대수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5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9.5년’이라고 써야 한다.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여명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연령의 생존자 중 다음해에는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를 연령별 사망확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것을 차례로 연령마다 반복하여 계산한 결과, 각 연령에서의 생존자수의 총합을 각 연령의 생존자수로 나눈 것이 그 연령의 기대여명이 된다.

앞으로의 자신의 생존년수를 알아보고 싶다면 생명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을 가정할 경우, 기대여명은 43.3년이므로 평균적으로 78.3세까지 생존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기대여명은 국민의 건강상태, 즉 공중위생의 정도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수치로서 현재 100개국 이상 나라들의 생명표가 1년에 1회, 또는 수년에 1회씩 국제연합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표 1-6 | 성·연령별 기대여명 추이(5세 간격별)

(단위 : 년)

연령	남 성					여 성				
	2000	2009	2010	'10-'00	'10-'09	2000	2009	2010	'10-'00	'10-'09
0세	72.3	77.0	77.2	4.9	0.2	79.6	83.8	84.1	4.5	0.3
1세	71.7	76.3	76.5	4.8	0.2	79.0	83.0	83.3	4.2	0.2
5세	67.8	72.3	72.6	4.7	0.2	75.2	79.1	79.4	4.2	0.2
10세	62.9	67.4	67.6	4.7	0.2	70.3	74.2	74.4	4.1	0.2
15세	58.0	62.5	62.6	4.6	0.2	65.3	69.2	69.4	4.1	0.2
20세	53.2	57.6	57.8	4.6	0.2	60.4	64.3	64.5	4.1	0.2
25세	48.4	52.7	52.9	4.5	0.2	55.5	59.4	59.6	4.1	0.2
30세	43.6	47.9	48.1	4.5	0.2	50.6	54.5	54.7	4.1	0.2
35세	38.9	43.1	43.3	4.4	0.2	45.8	49.7	49.9	4.1	0.2
40세	34.3	38.4	38.6	4.3	0.2	41.0	44.9	45.0	4.1	0.2
45세	29.9	33.8	34.0	4.1	0.2	36.2	40.1	40.2	4.0	0.2
50세	25.7	29.4	29.5	3.9	0.1	31.5	35.3	35.5	4.0	0.2
55세	21.6	25.1	25.2	3.6	0.1	26.9	30.6	30.8	3.9	0.2
60세	17.8	21.0	21.1	3.3	0.1	22.5	26.0	26.2	3.7	0.1
65세	14.3	17.0	17.2	2.8	0.1	18.2	21.5	21.6	3.5	0.1
70세	11.2	13.4	13.5	2.3	0.1	14.2	17.2	17.3	3.1	0.1
75세	8.6	10.2	10.3	1.7	0.0	10.7	13.2	13.3	2.6	0.1
80세	6.5	7.5	7.6	1.1	0.0	7.9	9.8	9.8	1.9	0.1
85세	4.9	5.5	5.5	0.6	-0.0	5.8	7.0	7.0	1.3	0.1
90세	3.8	4.0	4.0	0.2	-0.0	4.2	4.9	5.0	0.7	0.0
95세	2.6	3.0	3.0	0.4	-0.0	3.0	3.5	3.6	0.6	0.0

자료 : 통계청 「생명표」 2011

늘어나는 기대수명

2010년 갓 태어난 남자 아이의 기대여명은 77.2년, 여자 아이는 84.1년이다. 남녀 평균은 80.8년이며 이 수치가 바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된다.

표 1-7 | 우리나라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추이

(단위 : 년)

연 도	1970	1980	1990	2000	2010
전 체	61.9	65.7	71.3	76.0	80.8
남자(A)	58.7	61.8	67.3	72.3	77.2
여자(B)	65.6	70.0	75.5	79.6	84.1
차이(B-A)	6.9	8.3*	8.2	7.3	6.9

*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기대수명은 영양 상태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1.9년(남자 58.7년, 여자 65.6년)이었지만 2000년에는 76.0년(남자 72.3년, 여자 79.6년), 2010년에는 80.8년(남자 77.2년, 여자 84.1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OECD의 「Health Data 2011」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76.7년, 여성은 82.3년으로 평균 79.5년이다.

남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79.9년이었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86.4년)이었다.

표 1-8 | OECD 회원국 기대수명

(단위 : 년)

국가·기준연도	남 성 (A)		여 성 (B)		차이 (B-A)	
	기대수명	순위	기대수명	순위	차이	순위
그 리 스 '09	77.8	16	82.7	18	4.9	20
네 덜 란 드 '09	78.5	11	82.7	18	4.2	28
노 르 웨 이 '09	78.7	9	83.2	13	4.5	27
뉴 질 란 드 '09	78.8	8	82.7	18	3.9	32
대 한 민 국 '10	77.2	21	84.1	6	6.9	6
덴 마 크 '09	76.9	22	81.1	26	4.2	30
독 일 '09	77.8	16	82.8	16	5.0	19
룩셈부르크 '09	78.1	14	83.3	11	5.2	17
멕 시 코 '10	73.1	29	77.8	33	4.7	22
미 국 '09	75.7	27	80.6	27	4.9	21
벨 기 에 '09	77.3	20	82.8	16	5.5	14
스 웨 덴 '10	79.5	5	83.5	8	4.0	31
스 위 스 '09	79.9	1	84.6	4	4.7	24
스 페 인 '09	78.6	10	84.9	2	6.3	10
슬로바키아 '09	71.3	32	78.7	31	7.4	4
슬로베니아 '09	75.8	25	82.3	24	6.5	9
아이슬란드 '09	79.7	2	83.3	11	3.6	34
아 일 란 드 '09	77.4	19	82.5	22	5.1	18
에스토니아 '09	69.8	34	80.1	29	10.3	1
영 국 '09	78.3	12	82.5	22	4.2	28
오스트리아 '09	77.6	18	83.2	13	5.6	13
이 스 라 엘 '09	79.7	2	83.5	8	3.8	33
이 탈 리 아 '08	79.1	7	84.5	5	5.4	16
일 본 '09	79.6	4	86.4	1	6.8	7
체 코 '09	74.2	28	80.5	28	6.3	11
칠 레 '10	75.8	25	81.3	25	5.5	14
캐 나 다 '07	78.3	12	83.0	15	4.7	22
터 키 '09	71.5	30	76.1	34	4.6	26
포 르 투 갈 '09	76.5	24	82.6	21	6.1	12
폴 란 드 '09	71.5	30	80.0	30	8.5	2
프 랑 스 '10	78.1	14	84.8	3	6.7	8
핀 란 드 '09	76.6	23	83.5	8	6.9	5
헝 가 리 '09	70.0	33	77.9	32	7.9	3
호 주 '09	79.3	6	83.9	7	4.6	25
OECD 평균	76.7		82.3		5.6	

* 국가의 배열 순서는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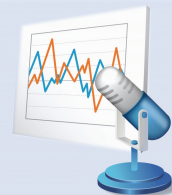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06

노령화지수



김은태씨는 직장을 옮기며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사를 했다. 서울처럼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도시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이나 쇼핑센터, 식당 등에서 아이들과 젊은이 보다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노령화지수 (Aging index)

- ◎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0~14세 유소년인구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 ◎ 노령화지수가 100이라면,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가 1백명으로 유소년과 고령인구 규모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text{노령화지수}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0~14세 인구}} \times 100$$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 ◎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 ◎ 노년부양비가 50이라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50명이라는 의미이다.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유소년부양비 (Child dependency ratio)

- ◎ 0~14세 유소년인구에 대한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 ◎ 유소년부양비가 20이라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20명이라는 의미이다.

$$\text{유소년부양비} = \frac{\text{0~14세 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총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 ◎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를 합한 수치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의 총수를 의미한다.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부양비} + \text{노년부양비} = \frac{0\sim 14\text{세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고령화사회

-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고령인구가 11.0%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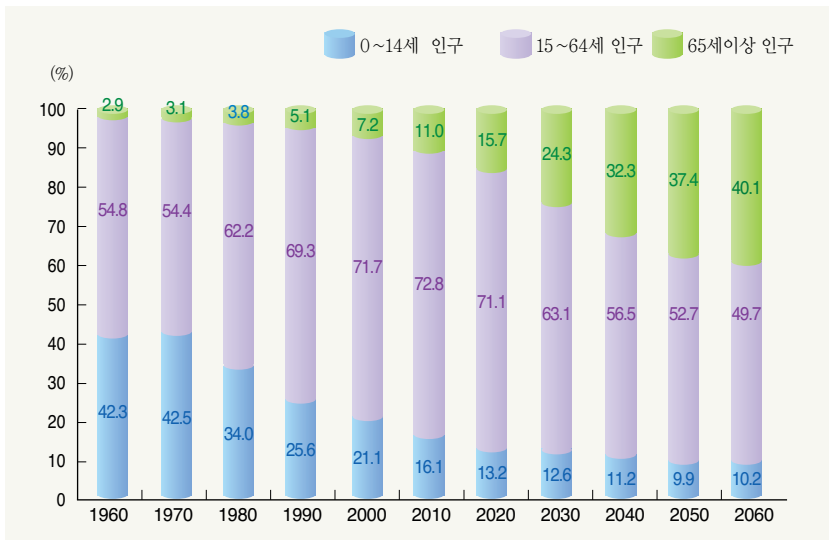
통계청이 201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0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545만명(11.0%)이다. 1960년 73만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p대로 성장하다가 베이비부머¹⁾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2028년 사이에 연평균 5%p대로 급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4세 이하인 유소년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유소년인구 비율은 1972년 1,386만명(41.4%)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급감하

그림 1-8 |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 베이비부머(baby boomer) :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태어나 한 반 학생이 60명~100명이나 되는 공나물교실에서 2,3부제 수업을 하며 자랐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랑 속에 청춘을 보냈으며, 우리 인구의 14.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여 2010년 현재 798만명(16.1%)을 기록하고 있다. 2030년 658만명(12.6%), 2060년 447만명(1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추세로 가면 2060년 '1대1 부양시대' 열려

노령화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01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총부양인구는 2010년 37.3명이지만 2030년 58.6명, 2050년 89.8명을 넘어 2060년에는 101.0명이 된다. 즉 한 사람이 일을 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명에 이르렀지만 1970~1990년대까지 급격히 감소해 2010년 현재 22.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60년(20.5명)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현재 15.2명에서 2030년 38.6명을 거쳐 2060년에는 80.6명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 역시 2010년 현재 68.4명이지만 2030년 193.0명, 2040년 288.6명, 2060년에는 394.0명까지 급격히 증가한다.



표 1-9 | 중위가정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생산인구 백명당, 유소년인구 백명당)

중위가정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7.3	40.7	58.6	77.0	89.8	101.0
유소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2	18.6	20.0	19.8	18.9	20.5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5.2	22.1	38.6	57.2	71.0	80.6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4.3	68.4	119.1	193.0	288.6	376.1	39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II

44 > 67



2장 | 가구와 가족

01	가구구조	44
02	결혼	50
03	이혼	55
04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	60
05	조손가구	65

01

가구구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40평대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가 과거와 달리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 4인 이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가구구조가 1~2인 가구 위주로 바뀌면서 중·대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구

-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도 다를 수 있다.

1인 가구

-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혈연가구

- ◎ 혈연가족 관계로만 구성된 가구

일반가구

- ◎ 1인가구, 혈연가구, 혈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를 말한다.

집단가구

- ◎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와 집단시설가구를 말한다.

집단시설가구

- ◎ 기숙사,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수녀원, 대사찰 등 특정 시설내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대표가구

- ◎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들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가장 오래 살았거나 주택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말한다.

자기집

-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전 세

- ◎ 전세금만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

월 세

- ◎ 매월 집세(월세)를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

사글세

- ◎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 증가보다 빠른 가구수 증가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10년 11월1일 기준 1,757만4천가구로 5년 전인 2005년의 1,598만8천가구에 비해 9.9% 증가했다. 집단가구를 뺀 일반가구의 경우 1,733만9천가구로 2005년 1,588만7천가구보다 9.1% 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인구증가율이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의 분화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 총조사 가구의 규모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05년(A)		2010년(B)		증감(B-A)	
	가수	구성비	가수	구성비	가수	구성비
총 가구	15,988	100.0	17,574	100.0	1,586	9.9
일반가구	15,887	99.4	17,339	98.7	1,452	9.1
집단가구	17	0.1	21	0.1	4	25.2
외국인가구	85	0.5	214	1.2	129	1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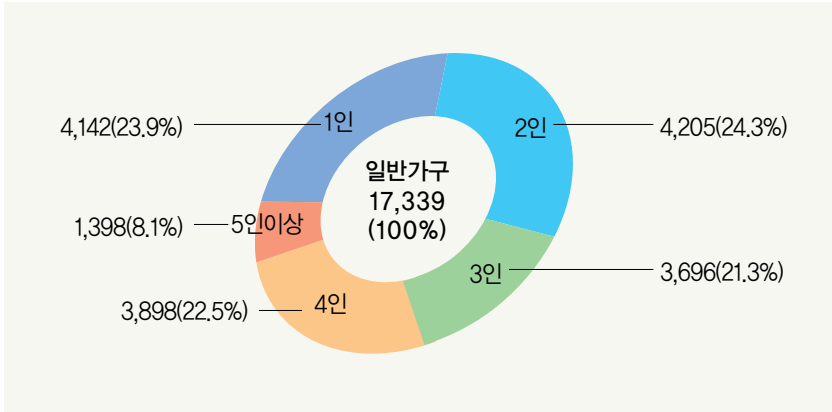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1980년 4.62명, 1990년 3.77명, 2000년 3.12명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80년대에는 5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최대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2인가구가 24.3%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23.9%), 4인가구(22.5%), 3인가구(21.3%)가 뒤를 따랐다. 5인가구는 8.1%에 그쳤다.

그림 2-1 | 우리나라 가구원 수 규모(2010년)

(단위 : 천가구,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 2-2 | 우리나라 가구원 수 규모 추이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인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2인	840 (10.5)	1,176 (12.3)	1,566 (13.8)	2,185 (16.9)	2,731 (19.1)	3,521 (22.2)	4,205 (24.3)
3인	1,153 (14.5)	1,580 (16.5)	2,163 (19.1)	2,636 (20.3)	2,987 (20.9)	3,325 (20.9)	3,696 (21.3)
4인	1,620 (20.3)	2,422 (25.3)	3,351 (29.5)	4,110 (31.7)	4,447 (31.1)	4,289 (27.0)	3,898 (22.5)
5인 이상	3,974 (49.9)	3,734 (39.0)	3,253 (28.7)	2,385 (18.4)	1,922 (13.4)	1,582 (10.0)	1,398 (8.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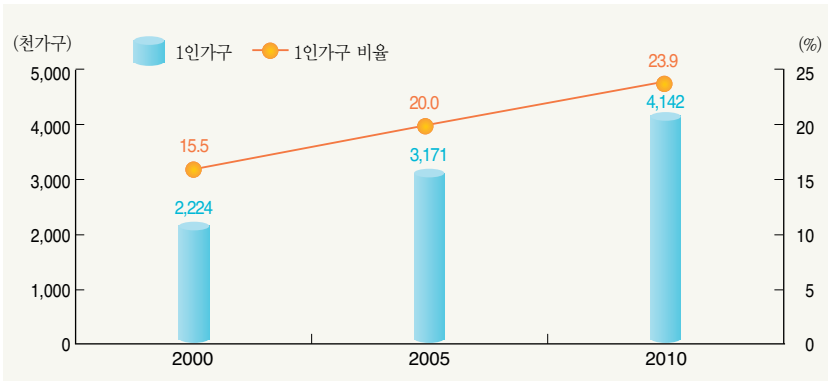
‘나홀로가구’의 급속한 증가

가구 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인가구의 증가이다.

2010년 1인가구 비율은 23.9%(414만2천가구)로 2005년 20.0%에서 3.9%p 증가했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1인가구인 셈이다.

2005년에는 학교와 직장에 다니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20대가 21.4%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는 70세 이상이 1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 1인 가구 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표 2-3 | 가구 수 및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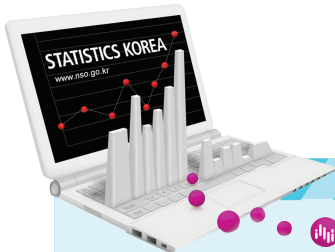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 체 가 구	14,312	15,887	17,339
1 인 가 구	2,224	3,171	4,142
1인가구 비율	15.5	20.0	23.9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3.1	2.9	2.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02

결혼



명문대와 대학원을 나와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김새롬 (여·35)씨는 아직 독신이다. 지금은 일에 열중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만 주변에서 결혼을 재촉하는 어른들의 성화가 늘고 있다.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나중에 결혼이 하고 싶어질 때 괜찮은 신랑감은 점점 사라지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김씨는 가끔씩 불안하다.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 CMR)

- ◎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일반혼인율 (General Marriage Rate : GMR)

-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일반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 \times 1,000$$

연령별 혼인율 (Age-specific Marriage Rate : AS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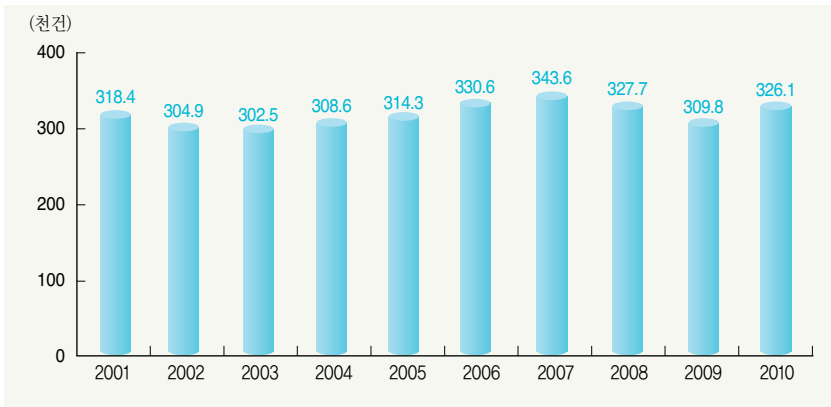
-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 혼인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혼인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계산

$$\text{연령별혼인율} = \frac{\text{연령별 혼인건수}}{\text{해당연령층의 남자(여자)연앙인구}} \times 1,000$$

2010년 32만6천쌍 “우리 결혼했어요”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0년 혼인건수는 32만6천건으로 전년보다 1만6천건 늘어났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6.5건으로 전년보다 0.3건 증가했다. 조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1980년(10.6건)에 비해 30여년 만에 4.1건이 줄었다.

그림 2-3 | 혼인건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표 2-4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 천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혼인건수	318.4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증감건수	-13.7	-13.5	-2.4	6.1	5.7	16.3	12.9	-15.8	-18.0	16.3
증 감 율	-4.1	-4.2	-0.8	2.0	1.8	5.2	3.9	-4.6	-5.5	5.3
조혼인율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높아지는 초혼연령

2010년 남성의 초혼 연령은 31.8세, 여성은 28.9세로 2009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0.2세 높아졌다.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은 서울이 남성 32.2세, 여성 29.8세로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반면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성은 울산과 충남(31.3세), 여성은 충남(28.2세)으로 나타났다.

표 2-5 | 2010년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

(단위 : 세)

	남 성	여 성
전 국	31.8	28.9
서 울	32.2	29.8
부 산	31.9	29.5
대 구	31.8	29.3
인 천	31.7	29.0
광 주	31.7	29.0
대 전	31.6	29.0
울 산	31.3	28.9
경 기	31.8	29.2
강 원	31.9	28.9
충 북	31.5	28.5
충 남	31.3	28.2
전 북	31.8	28.5
전 남	31.9	28.3
경 북	31.5	28.6
경 남	31.5	28.8
제 주	32.0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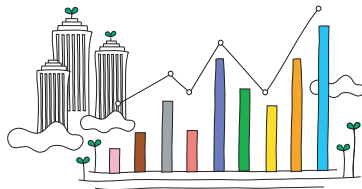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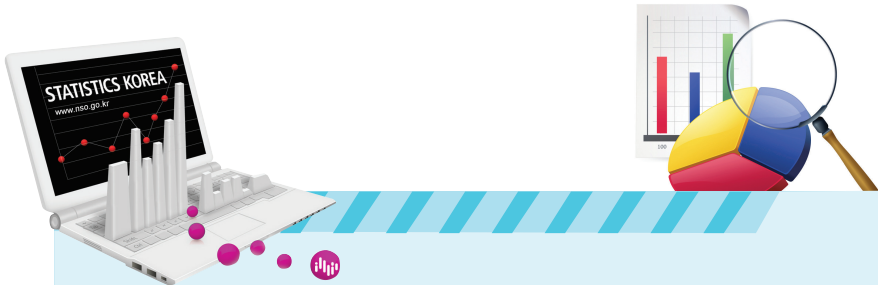
고졸미만 40대 남성 미혼율 15.3%, 대졸이상 40대 여성 미혼율 7.9%

만혼화 현상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미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미혼자 비중이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 40대 가운데 고졸 미만자의 미혼율은 15.3%에 달한다. 또 고학력자일수록 미혼자 비중이 낮아 전문대졸의 경우 8.8%, 대졸 이상 6.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여성의 경우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미혼자 비중이 7.9%로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줄어들었다. 전문대졸(5.9%), 고졸 미만(3.4%) 등의 순이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한다고 각종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혼율 높기로 유명한 미국이나 스웨덴을 앞질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자그마치 47.4%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혼한 10쌍 중 4.7쌍이나 이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 CDR)

- ◎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일반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 : GDR)

-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일반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 \times 1,000$$

연령별 이혼율 (Age-specific Divorce Rate : ASDR)

-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 이혼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이혼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

$$\text{연령별이혼율} = \frac{\text{연령별 이혼건수}}{\text{해당연령층의 남자(여자)연앙인구}} \times 1,000$$

유배우(有配偶) 이혼율 (Divorce rate of married couples)

- ◎ 특정 1년 동안에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 유배우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 이혼은 결혼한 인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빈도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 연앙인구}} \times 1,000$$

이혼율을 나타낼 때는 이혼비가 아닌 유배우이혼율을 봐야

조이혼율의 분모인 총인구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비결혼자가 포함되어 있고, 결혼을 한 적이 있더라도 당해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이혼율은 실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추이를 설명하는 통계자료로는 부적합하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05년부터 유배우이혼률을 작성 발표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이혼율을 제공하고 있다.

유배우이혼율은 당해연도의 결혼 상태에 있는 유배우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혼빈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신문기사를 비롯한 많은 자료에서 ‘혼인 몇 쌍 중 몇 쌍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배우이혼율이 아닌 이혼비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A도시의 혼인건수는 1,000건이고 이혼건수가 200건일 경우, 이 도시의 “이혼율은 20%(×100)”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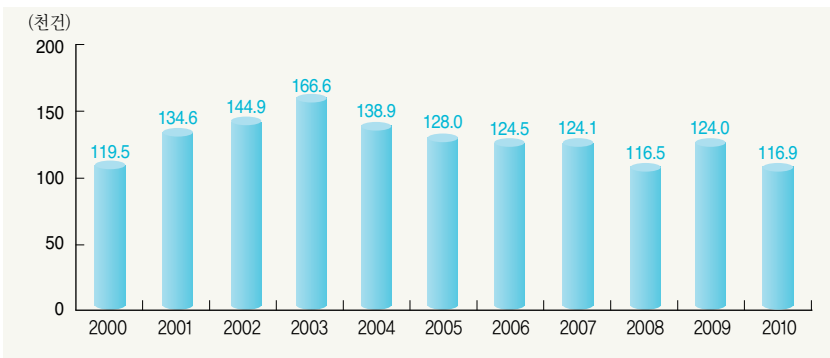
이 도시에서 2011년에 새로 결혼한 부부가 1,000쌍일뿐이므로 이미 그 이전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인구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유배우이혼율’이다.

이혼율의 추이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1만7천 건의 이혼이 발생했고 조이혼율은 인구 천명당 2.3건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2009년보다 7천건 감소했고 조이혼율도 0.2건 감소한 수치다.

유배우이혼율은 4.7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으며 2000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1천쌍 당 약 9.5쌍(4.7×2)이 이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배우이혼율은 2003년의 7.2건을 정점으로 이후 낮아져 최근 수년간 5건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 | 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표 2-6 | 이혼율

(단위 : 총이혼건수 천건, 조이혼율 유배우이혼율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혼건수	119.5	134.6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조 이 혼 율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유배우 이혼율	5.3	5.9	6.3	7.2	6.0	5.5	5.3p	5.2p	4.8p	5.1p	4.7p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전체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성은 40대 초반, 여성은 30대 후반이며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5세, 여성 41.1세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2-7 | 남녀 평균 이혼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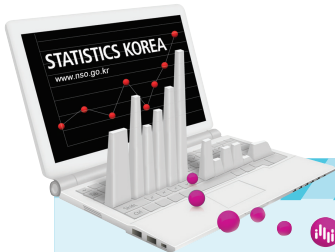
(단위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 성	40.1	40.2	40.6	41.3	41.7	42.1	42.6	43.2	44.3	44.5	45.0
여 성	36.5	36.7	37.1	37.9	38.2	38.6	39.0	39.5	40.5	40.7	41.1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명식(38)씨는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국 여성과 결혼할 계획이다. 여러 번 선을 보고 여자를 만날 기회를 가져봤으나 상대방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더 이상 총각으로 늙고 싶지 않다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래의 마을 남자들 상당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신부를 맞이해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 마침 군청에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 지원도 한다고 하니 이참에 신청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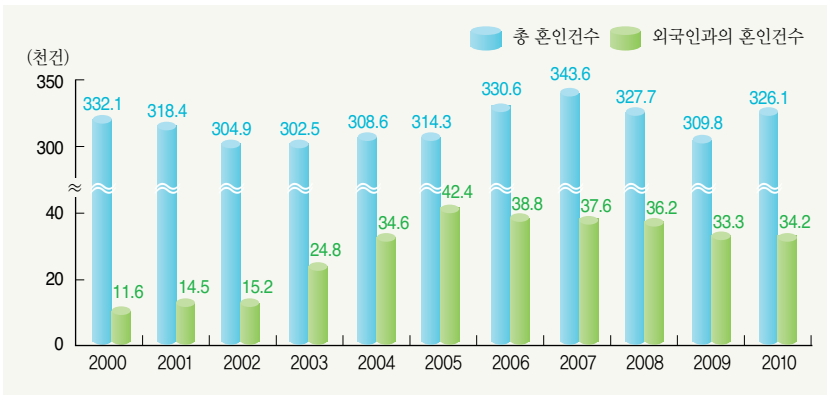
열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지난 십여년간 3배 가량 늘었다.

2010년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으로 총혼인건수 중 10.5%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5 | 총 혼인건수 및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표 2-8 |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 혼인 (총 혼인 중 비중)	11,605 (3.5)	14,523 (4.6)	15,202 (5.0)	24,776 (8.2)	34,640 (11.2)	42,356 (13.5)	38,759 (11.7)	37,560 (10.9)	36,204 (11.0)	33,300 (10.8)	34,235 (10.5)
한국남성 + 외국여성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성 + 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배우자는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이 많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비율이 2000년에는 59.8%였으나 2010년에는 76.7%로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신부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36.6%)과 베트남(36.6%)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7.3%)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10쌍 중 7.3쌍이 중국이나 베트남 신부와 결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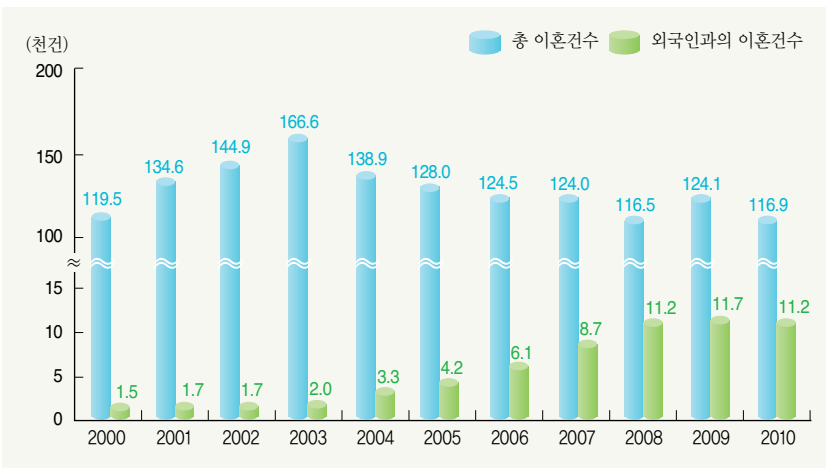
국제이혼도 급증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들 부부의 이혼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은 2002년에는 1,744건이었으나 2005년 4,171건, 2009년 11,692건 2010년 11,24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국제결혼과 이로 인한 이혼을 줄이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이혼비중이 높은 나라 출신의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가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림 2-6 | 총 이혼건수 및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표 2-9 |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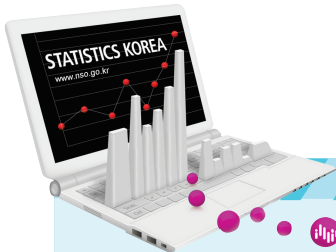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이혼 (총 이혼 중 비중)	1,498 (1.3)	1,694 (1.3)	1,744 (1.2)	2,012 (1.2)	3,300 (2.4)	4,171 (3.3)	6,136 (4.9)	8,671 (7.0)	11,255 (9.7)	11,692 (9.4)	11,245 (9.6)
한국남성 + 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한국여성 + 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자료 :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조손가구

(조손가정, 조손가족)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 엄마와 7살 상우가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한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 외딴집에 남겨진 상우. 전자오락기와 롤러블레이드의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인 상우에게 사방이 돌투성이인 시골집 마당과 짙은 뒷간은 생애 최초의 시련이다.

상우는 잠든 할머니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훔치고, 양말을 꿰매는 외할머니 옆에서 방구들이 꺼져라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등 짓궂게 할머니를 괴롭힌다. 그렇지만 외할머니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다. 어린 상우는 처음에는 투정만 부리다가 차츰 그 사랑을 깨닫는다.

〈영화 '집으로' 내용 중, 2002년〉

조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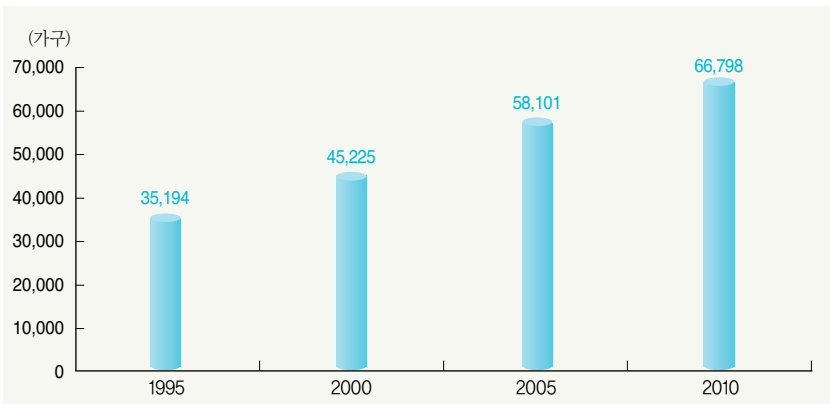
◎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조손가구의 증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조손가구는 2000년 4만5,225가구에서 2010년 6만6,798가구로 10여년 간 47.7%나 증가했다.

특히 가족이 해체되어 아이들을 시골의 노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농촌지역의 조손가구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집으로’에서와 같이 아이들이 낯선 농촌에서 살면서 또래 집단의 부족, 부모세대와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의 조손가족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그림 2-7 | 조손가구수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조손가구

여성가족부가 2010년 조손가구 1만27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구의 절반 이상(53.2%)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14.3%, ‘부모의 파산’이 7.6%, ‘부모의 취업’이 6.7%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손가구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균 1.4명이며,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경우가 전체가구의 66.2%였다. 조부나 조모 모두 생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되었다.

이중 친부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 친모는 8.6%에 불과하며 조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그쳐 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0 | 조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만원)

구 분	응답자 수 (명)	40만원 미만	40만원~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무응답	합 계	평균
전 체	12,750	20.1	44.0	17.9	17.9	100.0	59.7
조부모 가족	2,176	13.1	36.7	33.8	16.4	100.0	77.6
조부(모) 가족	10,574	21.6	45.5	14.6	18.3	100.0	55.9

자료 : 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2010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III

70 > 87



3장 | 소득과 소비

01 국민소득	70
02 지니계수	74
03 소득5분위배율	78
04 물가	80
05 빈곤율	84

01

국민소득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나리는 뉴스를 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돌파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3만 불을 향해 달려 가야할 때라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국민소득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GDP)

- ◎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다 더한 값이다.
- ◎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따라서 GDP는 그 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경제지표로서, 국가간 경제 비교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여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 GNP)

- ◎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 ◎ GNP는 국적 개념의 지표로서 한 나라 국민의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다.
- ◎ 과거에는 GDP와 GNP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GNP는 해당 나라의 국내 경기 및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현재는 국민총소득(GNI)이라는 지표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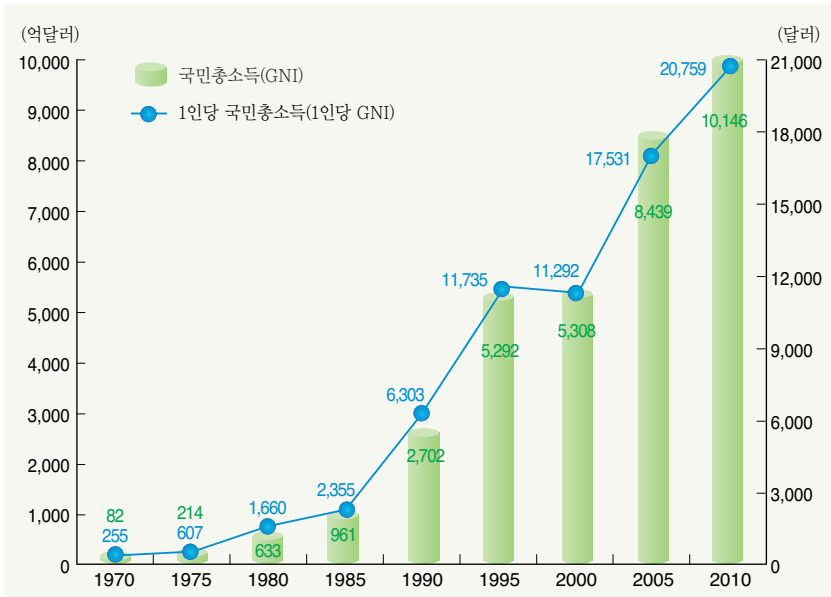
- ◎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 ◎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소득의 합계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GNI = GDP + \text{국외순수취 요소소득} (\text{국외수취 요소소득} - \text{국외지급 요소소득})$$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 재진입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분석해보면 꾸준히 국민총소득(GNI)은 증가하고 있다. 1970년 82억달러였던 GNI는 1975년 214억달러, 1980년 633억달러로 수직 상승하였고 1990년 2,702억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IMF를 맞아 주춤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상승추세에 있으며, 2010년 1조146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3-1 | 우리나라 경제지표



자료 : 한국은행, 「연간지표」 각년도

1인당 GNI의 경우에는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20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년 연속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0년 2만759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2만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에도 약 2만3천달러의 1인당 GNI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NI 사상 최대치이다.

표 3-1 | 우리나라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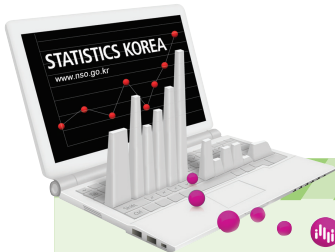
연 도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GNI)	경제성장률 (실질GDP성장률)
1970	81	82	255	-
1975	216	214	607	7.3
1980	643	633	1,660	-1.9
1985	984	961	2,355	7.5
1990	2,703	2,702	6,303	9.3
1995	5,313	5,292	11,735	8.9
2000	5,335	5,308	11,292	8.8
2005	8,447	8,439	17,531	4.0
2010	10,143	10,146	20,759	6.2

자료 : 한국은행, 「연간지표」 각년도



02

지니계수



뉴스를 보면 대기업과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금자(46)씨는 잘 체감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가게 손님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편이고 수입도 지난해보다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 ◎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 ◎ 0~1사이의 값으로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뜻한다.
- ◎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이상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 ◎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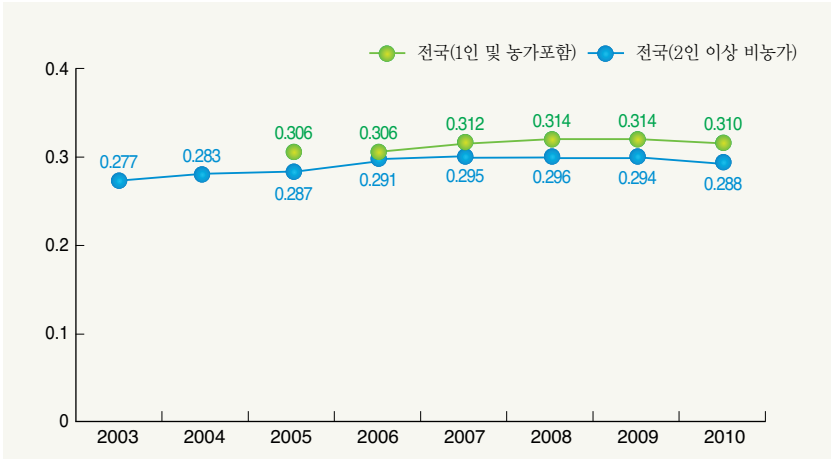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국가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간의 소득 분배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가리키며,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우리 사회의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산업의 경제 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전국(1인 및 농가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0으로 전년도 0.314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 소득분배(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OECD에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 및 방법으로 작성한 지니계수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0.314로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다.



표 3-2 | OECD 국가 지니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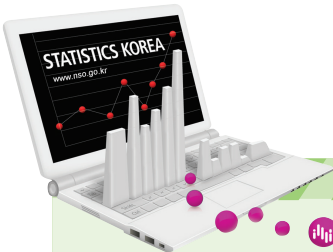
(단위 : 지니계수)

국 가	지니계수	국 가	지니계수
덴 마 크	0.232	O E C D 평 균	0.311
스 웨 덴	0.234	대 한 민 국	0.314
룩 섴 부 르 크	0.258	캐 나 다	0.317
오 스트 리 아	0.265	스 페 인	0.319
체 코	0.268	일 본	0.321
슬 로 바 키 아	0.268	그 리 스	0.321
핀 란 드	0.269	아 일 랜 드	0.328
벨 기 예	0.271	뉴 질 랜 드	0.335
네 델 란 드	0.271	영 국	0.335
스 위 스	0.276	이 탈 리 아	0.352
노 르 웨 이	0.276	폴 란 드	0.372
아 이 슬 란 드	0.280	미 국	0.381
프 랑 스	0.281	포 르 투 갈	0.385
형 가 리	0.291	터 키	0.430
독 일	0.298	멕 시 코	0.474
호 주	0.301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우리나라는 2008년, 일본과 뉴질랜드는 2003년, 이외국가는 2005년 기준.

03

소득5분위배율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3 김아람(18)군은 다음달 중국으로 가기로 예정된 졸업여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환경이 급격히 기울어 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어서 해외로 졸업여행을 갈 만한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김군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부산으로 가는 졸업여행코스도 준비해놨으나 김군은 중국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돈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점이 더 서글프게 다가온다.

소득5분위배율

-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다.
-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소득5분위배율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졌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대신 계층별 소득분배상황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2010년 기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 4.81배

소득5분위배율이란 쉽게 말하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버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소득5분위배율이 10배라면 상위 20%의 사람이 하위 20%의 사람보다 소득이 10배 많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소득5분위배율은 1998년 IMF를 기점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즉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2인 이상 비농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03년 4.43배, 2005년 4.75배, 2008년 4.98배를 기록했으며 2010년의 경우 4.81배로 다소 낮아졌다.

표 3-3 | 소득분배(5분위배율) - 가처분소득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1인 및 농가포함) 5분위배율	-	-	-	5.38	5.60	5.71	5.75	5.66 (잠정치)
전국(2인 이상 비농가) 5분위배율	4.43	4.61	4.75	4.83	4.95	4.98	4.95	4.8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04

물 가



중소 디자인업체에 다니는 박민석씨(38)는 한 달 전부터 도시락족(族) 대열에 합류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동료들과 사무실에 모여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밥을 먹는다. 예전에는 오천원이면 웬만한 식당에서 거의 모든 메뉴를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거의 없다. 김치찌개도 6천원은 줘야 하고 설렁탕도 한 그릇에 8,000원이나 돼 점심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있다. 오른 것은 밥값만이 아니다. 전세 값도 크게 오르고 있고, 식료품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다.

물가 (Price)

- ◎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본 개념이다.
- ◎ 물가는 물가지수로 측정되는데,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로 표시한다.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내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월 481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 ◎ 최근까지 2005년부터 시행된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했으나 2010년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기존에는 489개 품목)

라스파이레스지수 (Laspeyres' index)

- ◎ Laspeyres, E.에 의해 1871년에 창안된 지수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지수나 생산지수 작성에 사용되고 있다.
- ◎ 물가지수의 경우 우선 기준시점에서 일군의 품목집합가격과 수량을 파악하여 기준시점 가격과 기준시점 수량을 정한 후 비교시점에서는 기준시점수량은 고정시키고 가격의 변동분만을 반영한 비교시점가격 · 기준시점수량을 기준시점가격 · 수량과 대비하여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text{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 \left\{ \frac{\text{전품목의 } \Sigma(\text{품목별 비교시점 가격} \times \text{기준시점 수량})}{\text{전품목의 } \Sigma(\text{품목별 기준시점 가격} \times \text{기준시점 수량})} \right\}$$

생활물가지수

- ◎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활용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일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 측정에 활용된다. 물가변동이 도시가구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가구나 계층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지수 수치 해석방법은 예를 들어 2010년 7월에 전년동월비 5.5% 상승했다면 1년 전인 2009년 7월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가 5.5% 상승했음을 뜻한다. 2010년부터 활용된 새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대체로 전년동월 대비 3~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 3-4 | 2011년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3.4	3.9	4.1	3.8	3.9	4.2	4.5	4.7	3.8	3.6	4.2	4.2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2011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아래와 같다.

표 3-5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지 수	전도시	86.1	88.1	90.3	94.5	97.1	100.0
농축수산물	전도시	83.5	83.4	85.0	85.4	90.9	100.0
공 업 제 품	전도시	84.4	86.1	87.7	94.6	96.9	100.0
집 세	전도시	92.5	92.8	94.5	96.6	98.2	100.0
공공서비스	전도시	88.7	91.8	94.6	96.9	98.8	100.0
개인서비스	전도시	85.6	88.2	90.9	95.2	97.9	100.0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각년도

● 빅맥지수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나라간의 물가와 통화가치를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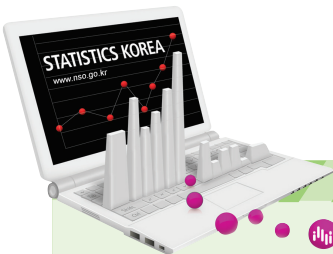
빅맥지수는 맥도널드 햄버거인 '빅맥(Big Mac)' 가격에 기초해 120여 개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주요 지수로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 분기마다 작성·발표한다. 빅맥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기·재료·품질 면에서 표준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국가 간 물가 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각국 환율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1년 6월 빅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50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빅맥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3.5달러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빅맥 한 개가 4.07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원화가 14% 가량 저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조사대상국들 가운데 중국(2.27), 홍콩(1.94), 인도(1.89) 등의 빅맥지수가 낮은 편이었으며, 노르웨이(8.31), 스위스(8.06), 스웨덴(7.64) 등은 높았다. 우리나라의 빅맥지수는 주요 37개국 가운데 2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5

빈곤율



초등학생 빛나는 어느날 저녁을 먹고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래의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엄마가 음식을 줘도 먹기 싫어 몰래 버리곤 했던 빛나는 뉴스에 나온 자기 또래의 아이의 이야기를 보고 너무 놀랐다. 이후 빛나는 자기 친구들 중에 혹시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절대적 빈곤율

- ◎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text{절대적 빈곤율} = \left\{ \frac{\text{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text{전체인구}} \right\} \times 100$$

상대적 빈곤율

- ◎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국민 전체 가처분 소득 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text{상대적 빈곤율} = \left\{ \frac{\text{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text{전체인구}} \right\} \times 100$$

늘어나는 빈곤율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율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국민 전체 가처분 소득 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빈곤율 지수는 사회 지표상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 또는 가난의 구조, 경제 상황 등을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별이가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인구수가 10명 중 1~2명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6.5%였던 절대적 빈곤율이 2009년 11.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 농어가, 1인 가구는 제외된 수치이다.

또한 최하위 계층은 아니지만 국민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하위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2인 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04년 13.8%에서 2006년 14.8%, 2008년 15.0%, 2010년 14.9% 이다.

표 3-6 |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 50%미만, 2인 이상 비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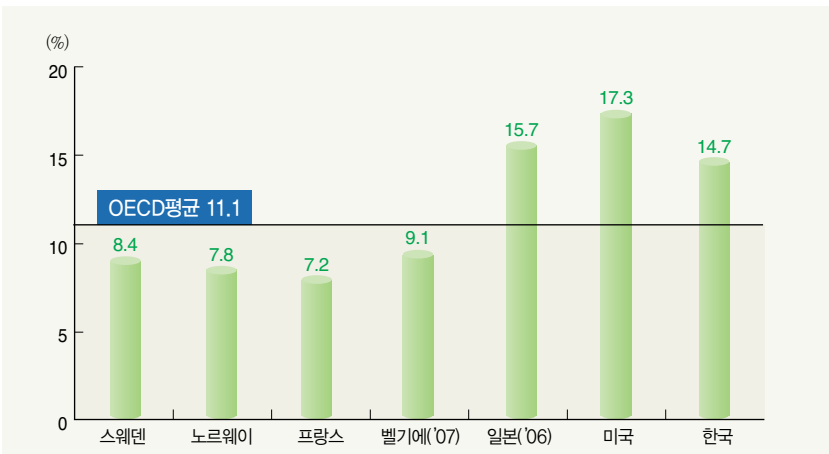
(단위 : %)

소득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시장소득	13.8	12.8	14.7	13.6	14.8	13.8	15.5	14.9	15.0	14.7	15.4	15.4	14.9	14.9
가처분소득	12.1	11.4	12.9	11.9	12.6	11.9	12.9	12.6	12.9	12.5	13.0	13.1	12.5	12.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같은 OECD에서 집계한 국가간 상대적 빈곤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OECD 평균인 11.1%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17.3%), 일본(15.7%)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반면 스웨덴(8.4%), 노르웨이(7.8%), 벨기에(9.1%), 프랑스(7.2%) 등은 평균보다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 상대적 빈곤율(2008년도) 국제비교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알기 쉬운
사회지표해설



IV

90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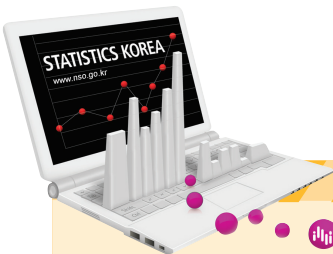


4장 | 노동

01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90
02	고용률과 실업률	95
03	비정규직	101
04	노동시간	105
05	산업재해율	10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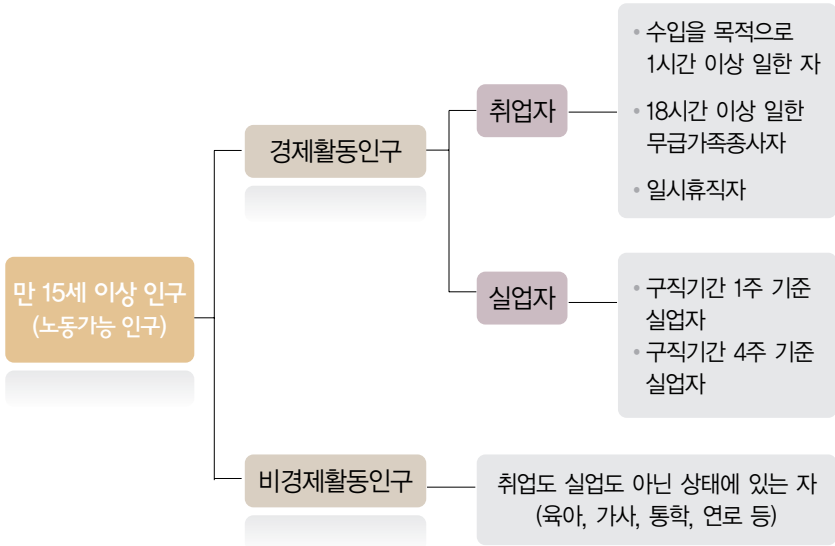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주부 김문희씨(48)는 지난해 둘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자 1년여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 최근에 포기했다. 결혼 전에 출판사에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출판사에 취업하기를 원했지만 일을 그만 둔 기간이 워낙 오래된 데다 젊은 인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을 포기한 김씨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것일까? 실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

김씨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IV
노
인
인
구

노동가능인구

- ◎ 실질적으로 경제적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취업자 + 실업자)

취업자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중에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적극적 구직 활동을 했으며, ③ 일이 주어지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 예외적으로 직장이 예정되어 향후 1달 이내에 일이 가능한 사람, 즉 발령대기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취업준비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등이다.

경제활동참가율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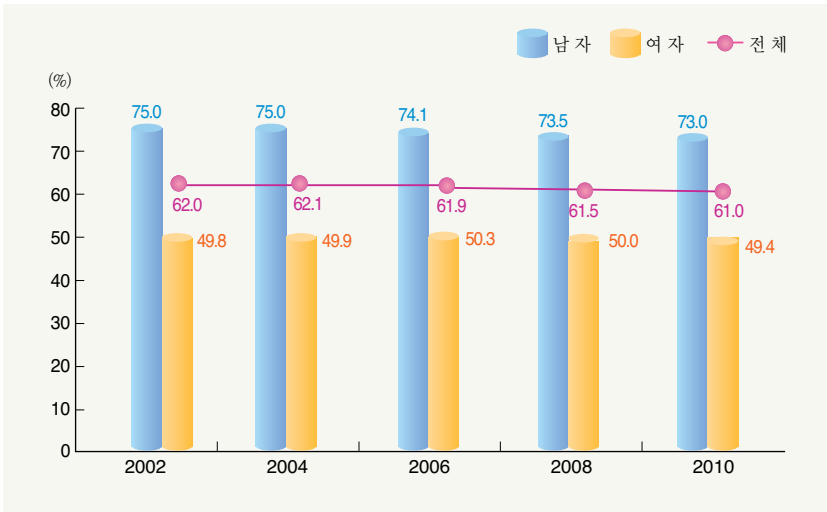
$$\text{경제활동참가율} = \left\{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right\} \times 100$$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우리나라는 ILO에서 권고하는 노동력체계(labour force framework)에 따라 노동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또는 노동력)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2000년 이후 통계를 보면 2004년에 62.1%를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2004년 75.0%에서 2008년 73.5%로 하락한 반면 여자는 2004년 49.9%에서 2005년(50.1%) 처음 50%를 넘은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1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4-1 |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4	2006	2008	2010
15세 이상 인구	36,963	37,717	38,762	39,598	40,590
경제활동인구	22,921	23,417	23,978	24,347	24,748
취업자	22,169	22,557	23,151	23,577	23,829
실업자	752	860	827	769	920
비경제활동인구	14,042	14,300	14,784	15,251	15,841
경제활동참가율	62.0	62.1	61.9	61.5	61.0
- 남자 경제활동참가율	75.0	75.0	74.1	73.5	73.0
-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49.8	49.9	50.3	50.0	49.4
고용률	60.0	59.8	59.7	59.5	58.7
실업률	3.3	3.7	3.5	3.2	3.7
구직단념자	69	100	122	119	220
취업준비자	-	383	525	598	6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준비생인 박정우씨(25)는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지표상 공식 실업률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너무 달라 고개를 갸웃했다. 주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실업률 통계는 그러한 현실과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씨는 실업률 산정방식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고용률 (Employment Rate)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다.

$$\text{고용률} = \left\{ \frac{\text{취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right\} \times 100$$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text{실업률} = \left\{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right\} \times 100$$

구직단념자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내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

청년실업 (Youth Un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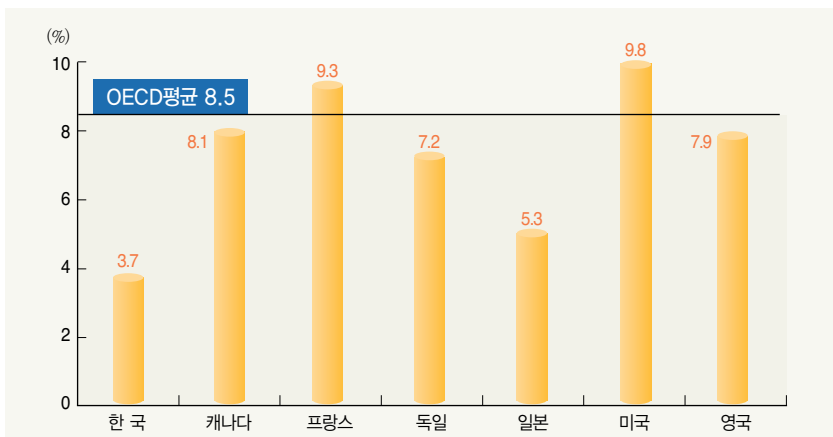
- ◎ 15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말한다.
- ◎ 청년층 연령기준은 나라마다 제도·문화 등의 차이로 그 나라 사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20대 후반에 이루어진다는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15~29세로 설정하고 있다.

실업률, 고용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

실업과 취업을 나누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3%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OECD가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한 주요국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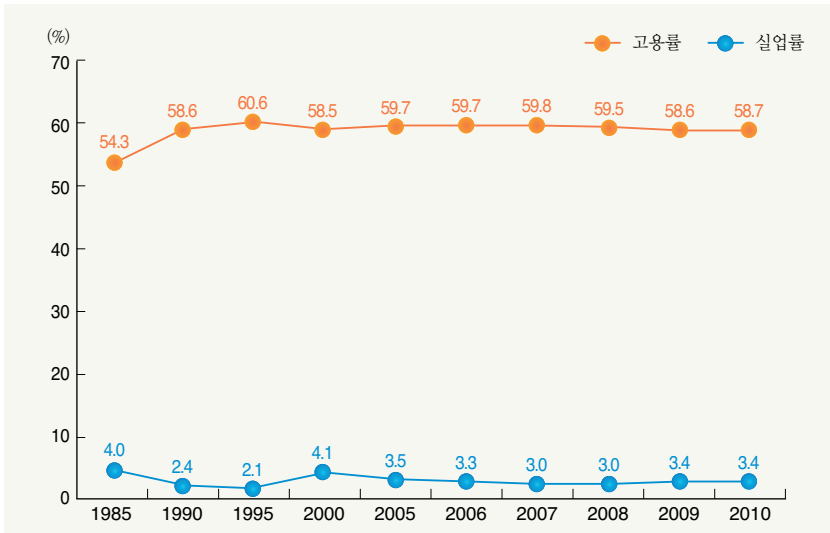
그림 4-2 | 2010년 기준 실업률 국제비교



자료 : OECD 홈페이지(stats.oecd.org)

고용률은 2010년 기준 58.7%로 우리보다 실업률이 높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오랜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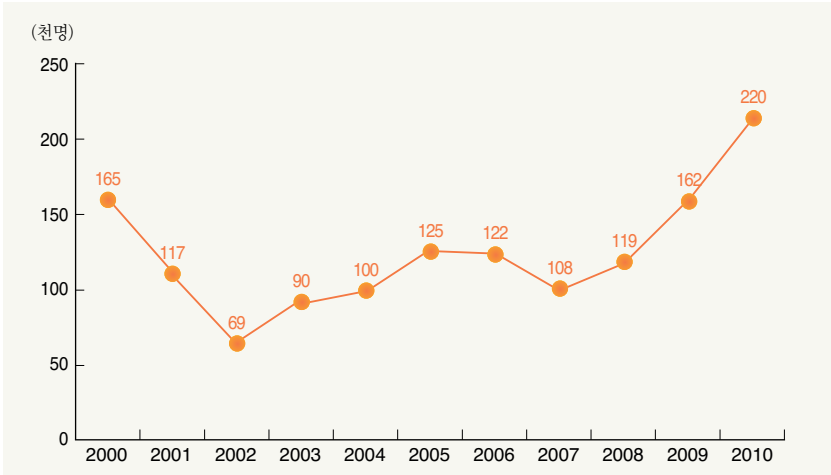
그림 4-3 | 우리나라 연도별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구직단념자란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구직단념자는 2000년대 들어와 10만명 안팎에 머물렀으나 2009년 16만2천명, 2010년 22만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 10월 기준 17만2천명을 기록했다.

그림 4-4 | 구직단념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OECD국가들의 고민 '청년실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줄곧 7~8%대를 유지하면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국가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OECD국가들이 대부분 청년 실업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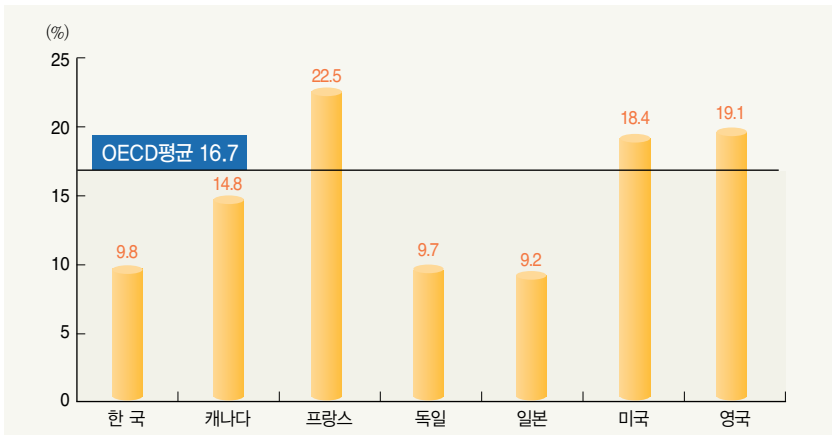
표 4-2 |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 추이

(단위 : %)

연 도	청년실업률	연 도	청년실업률
2000	8.1	2006	7.9
2001	7.9	2007	7.2
2002	7.0	2008	7.2
2003	8.0	2009	8.1
2004	8.3	2010	8.0
200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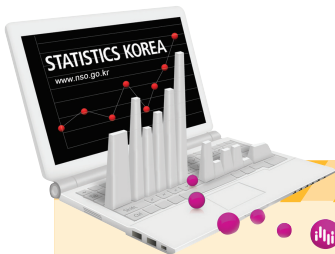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4-5 | 2010년 청년실업률(15~24세) 국제비교



자료 : OECD 홈페이지(stats.oecd.org)

비정규직



A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김정남씨(35)는 비정규직이다. 김씨의 연봉은 잔업에 휴일특근까지 해서 1800만원 정도로 바로 옆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씨는 언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임금 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근거하여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다

한시적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고용의 지속성)을 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시간제 근로자

-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로 대체로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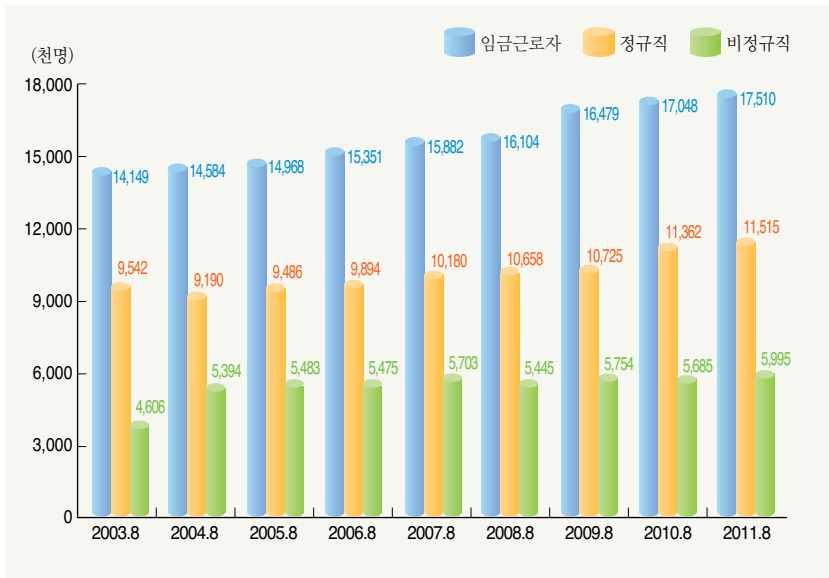
- ◎ 파견,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OECD는 한시적근로자(temporary workers)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시적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및 사회적으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했다.

그림 4-6 | 근로형태별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각년도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표 4-3 | 근로형태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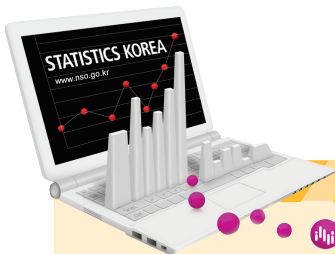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3.8	14,149	9,542	4,606	3,013	929	1,678
2004.8	14,584	9,190	5,394	3,597	1,072	1,948
2005.8	14,968	9,486	5,483	3,615	1,044	1,907
2006.8	15,351	9,894	5,457	3,626	1,135	1,933
2007.8	15,882	10,180	5,703	3,546	1,201	2,208
2008.8	16,104	10,658	5,445	3,288	1,229	2,137
2009.8	16,479	10,725	5,754	3,507	1,426	2,283
2010.8	17,048	11,362	5,685	3,281	1,620	2,289
2011.8	17,510	11,515	5,995	3,442	1,702	2,427

자료 : 통계청,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각년도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통계청의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에 해당한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04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7.0%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06년 35.5%, 2008년 33.8%, 2010년 33.3% 등 조금씩 낮아졌으며 2011년은 전년에 비해 0.9% 높아졌다.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둔 고만석 과장은 요즘 신입사원들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자신이 신입사원일 때와는 많이 다른 회사 분위기 때문이다. 사원일 때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상사들이 다 퇴근 한 뒤에야 자신도 집에 갈 수 있었던 자신과 달리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약속을 잡고 퇴근하는 후배들을 보며 기업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곤 한다.

노동시간

- ◎ 노동시간(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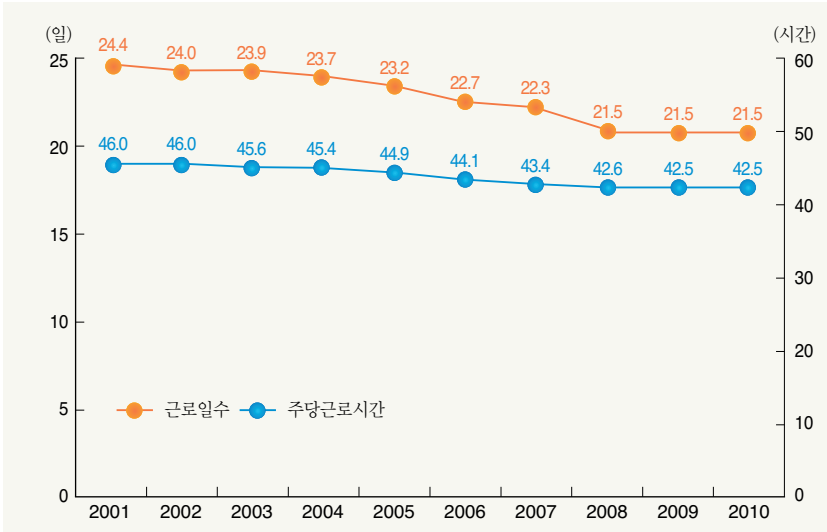
월 평균 근로일수 21.5일, 주당 노동시간은 42.5시간

노동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적절한 노동시간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만 과도한 노동시간은 생산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 재생산성(再生産性)을 유지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기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를 한도로 하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림 4-7 | 월 평균 근로일수 및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표 4-4 | 월 평균 근로일수 및 주간근로시간 추이

(단위 : 일, 시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일수	24.4	24.0	23.9	23.7	23.2	22.7	22.3	21.5	21.5	21.5
근로일수 증감차	-0.2	-0.4	-0.1	-0.2	-0.5	-0.5	-0.4	-0.8	0.0	0.0
근로시간	202.5	199.6	198.2	197.2	195.1	191.2	188.4	184.8	184.4	184.7
주당 근로시간	46.6	46.0	45.6	45.4	44.9	44.1	43.4	42.6	42.5	42.5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높은 근로시간과 일수를 기록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주 5일제 실시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1년 근로일수가 월 24.4일에서 2010년 21.5일로 감소하였다. 근로시간 또한 2001년 기준 주당 46.6시간이던 것이 2010년 42.5시간을 기록하여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다.

여전히 한국은 OECD 주요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1」를 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표 4-5 |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국 가	근로시간	국 가	근로시간	국 가	근로시간
한 국	2,193	칠 레	2,068	헝 가 리	1,961
멕 시 코	1,866	이탈리아	1,778	미 국	1,778
일 본	1,733	포르투갈	1,714	캐 나 다	1,702
호 주	1,686	스 페 인	1,663	영 국	1,647
오스트리아	1,587	독 일	1,419	네덜란드	1,377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05

산업재해율

IV
제 4부

건설 현장 소장인 김판근씨(50)는 요즘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 인부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보호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운 여름 날씨에도 꼭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여름 무사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최대의 목표다.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재해율

- 재해율은 연간 근로자수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재해율} = \left\{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right\} \times 100$$

사고성 사망만인율

- 연간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text{사고성 사망만인율} = \left\{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right\} \times 10,000$$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산업재해율

산업재해통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집계 대상은 사망자 및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 또는 질병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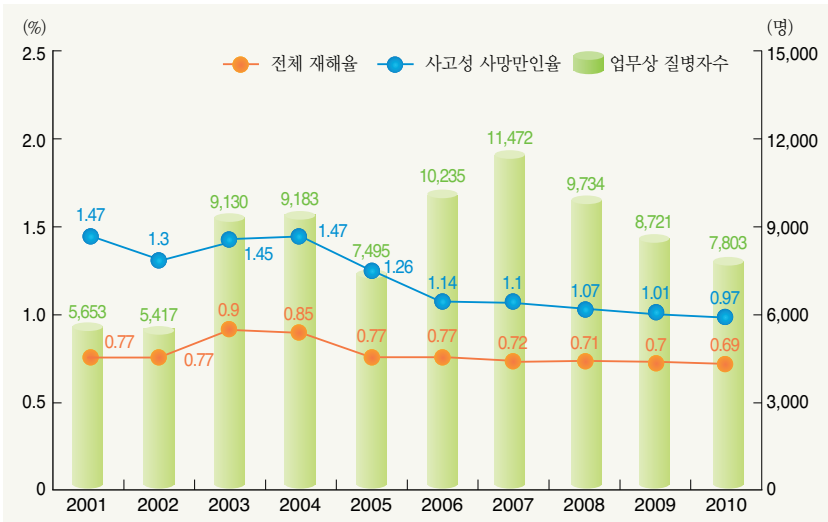
산업재해율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과 건설

수주액 증가, 안전보건규제 완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약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지원사업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율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으며(2006년 제외) 2010년에는 0.6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0.01% P 감소하였다.

근로자 만명당 업무관련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 및 실제 사망자수 역시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1년 업무 관련 사망자수는 2,748명,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47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2,200명, 0.97명으로 떨어졌다.

그림 4-8 | 산업재해율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년도

표 4-6 |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재해율	0.77	0.77	0.9	0.85	0.77	0.77	0.72	0.71	0.7	0.69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5.5	0	16.9	-5.6	-9.4	0	-6.5	-1.4	-1.4	-1.4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97	0.92	1.02	0.96	0.93	0.91	0.85	0.84	0.84	0.83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5.4	-5.2	10.9	-5.9	-3.1	-2.2	-6.6	-1.2	0	-1.2
사고성 사망만인율	1.47	1.3	1.45	1.47	1.26	1.14	1.1	1.07	1.01	0.97
전년대비 사고사망 만인율 증감율	-1.3	-11.6	11.5	1.4	-14.3	-9.5	-3.5	-2.7	-5.6	-4
사망자수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8.7	-5.2	12.2	-3.4	-11.8	-1.6	-1.9	0.7	-9.9	0.9
업무상 질병자수	5,653	5,417	9,130	9,183	7,495	10,235	11,472	9,734	8,721	7,803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39.5	-4.2	68.5	0.6	-18.4	36.6	12.1	-15.1	-10.4	-10.5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년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V

116 > 135



5장 | 농림어업

01 농림어가 인구	116
02 경지 규모와 영농형태	120
03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	125
04 귀농인구	131

01

농림어가 인구



전남 구례군의 작은 마을에 사는 정원용씨(60)는 부인과 단둘이 산다. 지난해 막내아들을 끝으로 자식 넷이 모두 도시로 나갔다. 정씨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만 남았다. 올해 환갑을 맞은 정씨도 마을에서는 어린 축에 속한다. 내년에는 청년회장을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나마 농촌 인구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살갑게 지내는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

-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임가

- 현재 산림면적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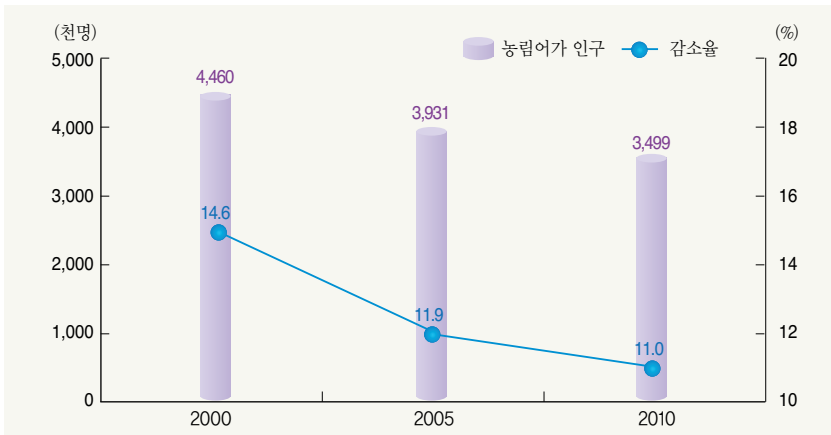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 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림어가 인구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9천명으로, 가구수로 보면 134만3천가구이다. 이중 농가는 117만7천가구, 어가는 7만가구(해수면 6만6천, 내수면 4천), 임가 9만6천가구로 구성돼 있다.

농림어가 인구는 2000년 446만명, 2005년 393만1천명에 이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수 역시 2000년 153만5천가구, 2005년 145만4천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그림 5-1 | 농림어가 인구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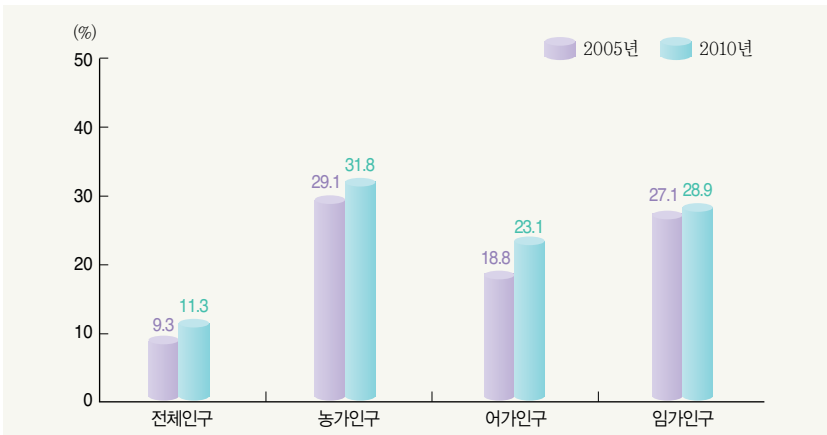
그 결과 전체가구에 대한 농림어가의 비중은 7.7%로 5년 전 9.2%에서 1.5%p 감소했으며 인구비중도 2005년 8.4%에서 7.3%로 감소했다.

농림어가의 소가족화 속도 역시 전체가구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으로 전체가구 2.7명보다 적다. 특히 2인가구 비중에 있어 농가 45.2%, 어가 46.6%, 임가 48.3%로 전체가구 24.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전체인구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로 전체인구 11.3%보다 2.8배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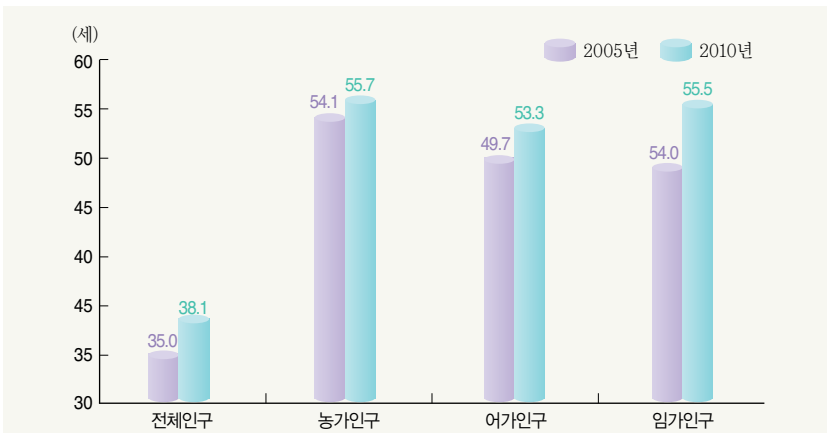
이처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2005년 60.6세에서 5년만에 62.0세로 1.4세 상승했고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연령은 55.5세로 전체인구의 중위연령 38.1세보다 무려 17.4세나 높다.

그림 5-2 | 농림어가 고령화율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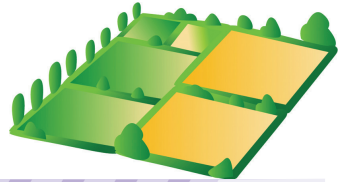
그림 5-3 | 중위연령 비교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02

경지 규모와 영농형태



25년 동안 쌀농사를 지어 온 권영진씨(47)는 3년 전 '업종'을 전환했다. 1년간 열심히 재배한 쌀을 내다팔아도 수입은 매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끔씩 찾아오는 흉작에는 인건비, 영농자재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때도 있다. 이에 권씨는 작물을 다양화하기로 했고 현재 그가 쌀 대신 경작하고 있는 작물은 사과다. 과일 자체로도 판매량이 많을뿐더러 주스와 식초의 원료로도 쓰이는 사과는 쌀보다 수익이 높은 편이다.

영농형태별 농가

- ◎ 지난 1년간 농가에서 농업으로 수확 또는 증식된 농산물을 조수입으로 평가하여 평가액이 가장 높은 분야를 주 영농분야로 분류한다.
- ◎ 논벼 : 농가의 농업수입 중 논벼농사를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한다.
- ◎ 과수 : 농가의 농업수입 중 과수농사를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하며 가장 주종인 과종별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과수로 구분하였다.
- ◎ 채소 : 농가의 농업수입 중 채소농사를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하며 노지에서 재배하는 일반채소와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채소로 구분하였다.
- ◎ 특용작물 : 특용작물에는 유지작물(참깨, 들깨, 유채 등), 약용작물, 전매작물, 버섯 등이 있으며 특용작물을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한다.
- ◎ 화훼 : 화훼농가에는 꽃, 분재, 관상수 등의 작물을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가 해당된다.
- ◎ 전작 : 밭작물 중 일반작물인 밭벼,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등의 재배를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한다.
- ◎ 축산 : 가축사육농가로 축산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축종별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으로 구분하였다.
- ◎ 기타 : 기타농가에는 농업서비스업(양수, 탈곡)과 양모, 전지, 병아리감별 등을 통한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를 말한다.



줄어드는 논, 늘어나는 밭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2001년 187만6천ha였던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천ha로 지난 10년간 총 16만1천ha 감소했으며 연평균 1만6천ha씩 줄어들고 있다.

2010년 현재 논 면적은 98만4천ha로 전년보다 2.6% 감소했고, 밭 면적은 73만1천ha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논은 감소하고 밭은 증가한 이유는 많은 농민들이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고추, 과수 등의 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이다.

표 5-1 | 경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 천ha,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지면적	1,889	1,876	1,863	1,846	1,836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 논	1,149	1,146	1,138	1,127	1,115	1,105	1,084	1,070	1,046	1,010	984
- 밭	740	730	724	719	721	719	716	712	713	727	731
수리답면적	880	881	880	878	870	867	859	848	832	806	-
- 수리답률	76.6	76.9	77.3	77.9	78	78.5	79.2	79.3	79.5	79.8	-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각년도

2010년 농림수산물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73ha로 미국 32.08ha의 1/44, 프랑스 14.08ha의 1/19, 일본 1.59ha의 1/2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경지면적은 많으나 농가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1인당 경지면적은 0.19ha에 불과해 우리나라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표 5-2 |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국제비교

(단위 : 백만ha, 백만명, ha)

	중국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경지면적	158.1	170.1	18.3	1.6	4.3
농가인구	828.1	5.3	1.3	2.2	2.7
1인당 경지면적	0.19	32.08	14.08	0.73	1.59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2010」

25년새 과수, 채소 경지면적 2배로 늘어

통계청의 「농업조사」를 보면 경지를 논벼 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땅은 1985년 160만ha였으나 2009년 57만ha로 103만ha가 사라졌다. 그 대신 다른 부문은 거의 모두 증가했다. 배, 복숭아, 포도 등을 경작하는 '과수' 면적과 배추와 무 같은 '채소' 재배 면적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용작물과 화훼를 기르는 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표 5-3 | 영농형태 별 경지 면적

(단위: ha)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논 벼	1,597,203	1,231,839	823,458	787,451	648,299	571,486
과수	71,661	107,262	143,600	143,362	145,236	147,742
채소	125,451	172,350	246,648	238,291	230,011	258,458
특용작물	34,695	38,585	45,693	37,647	27,883	44,356
화훼	-	6,404	10,062	8,091	10,196	12,549
일반 밭작물	-	114,132	69,898	91,930	125,513	75,563
축산	86,419	88,522	155,923	72,173	82,283	79,981
기타	10,440	7,939	5,463	4,523	3,487	4,580
합계	1,925,869	1,767,033	1,500,745	1,383,468	1,272,908	1,194,715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 각년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과 특용작물, 기타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축산 농가소득은 4,218만원, 특용작물 농가소득은 3,913만원, 과수 농가소득은 3,499만원을 보였고, 반면 논벼 농가소득은 2,063만원, 일반 밭작물 농가소득 2,725만원 등을 나타냈다.

표 5-4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전체평균	논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2001	23,907	20,857	28,877	21,388	32,705	15,958	16,810	27,078	-
2002	24,475	20,225	29,735	23,497	33,294	26,037	16,574	31,512	-
2003	26,878	21,868	28,808	23,358	33,896	22,215	18,643	36,600	16,033
2004	29,001	22,127	32,681	25,146	35,247	27,551	28,104	42,706	14,746
2005	30,503	22,648	32,810	26,314	41,168	38,951	19,432	44,061	19,079
2006	32,303	25,753	33,467	26,279	40,319	34,378	18,208	48,245	19,198
2007	31,967	24,143	32,983	26,490	31,359	52,921	24,800	43,056	19,590
2008	30,523	23,318	30,419	24,164	41,633	35,874	20,022	46,398	28,768
2009	30,814	21,824	29,469	25,813	37,343	38,021	14,999	48,762	25,743
2010	32,121	20,628	34,991	28,625	39,127	27,408	27,252	42,179	40,77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



박수경씨(23)는 평소에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끼니를 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쌀로 지은 밥을 거의 안 먹는다는 뜻이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것 같아서 간단한 과일로 배를 채운다. 점심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밥을 먹지 않고 샌드위치나 라면, 햄버거 등을 먹는 경우도 많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뒤에도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는 일이 번거로운데다 다이어트에도 신경 써야 해서 샐러드나 감자, 고구마로 간단히 때울 때가 많다.

식량작물

- 미곡 : 논벼, 밭벼
- 맥류 :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 밀
- 두류 : 콩, 팥, 녹두, 동부, 완두, 기타두류(작두콩, 넝쿨콩)
- 잡곡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울무
- 서류 : 고구마, 감자

채소류

- 엽채류 : 일반배추, 김장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부추
- 과채류 : 수박, 참외, 오이, 늙은호박, 애호박,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가지
- 근채류 : 일반무, 김장무, 총각무, 열무, 당근
- 조미채소 :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 기타채소 : 썩갓, 토란, 우엉, 마, 두릅나물, 아욱, 고들빼기, 취, 달래, 피망, 파프리카 등
- 양채류 : 샐러드, 치커리, 케일, 양상추, 로즈마리, 브로콜리, 페퍼민트, 자스민 등

특약용작물

- 유지작물 : 유채, 참깨, 들깨, 땅콩
- 약용작물 : 감초, 황기, 마, 천궁, 익모초, 오가피나무, 헛개나무, 오미자나무, 길경(도라지), 사삼(더덕), 당귀 등
- 특용작물 : 차나무, 목화, 박, 해바라기, 결명자, 수세미, 영지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삼(대마) 등

바뀌는 식생활, 쌀 소비의 감소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2000년에 529만 톤이었던 생산량은 2010년 약 100만 톤 가까이 감소해 429만5천 톤이 됐다. 다른 작물에 비해 쌀의 생산량이 급감했는데, 이는 경지 면적과 영농 형태에서 논과 벼농사가 감소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표 5-5 |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톤)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미 곡	5,290,771	4,926,746	5,000,149	4,679,991	4,843,478	4,295,413
맥 류	163,407	217,893	189,665	153,802	180,412	120,332
잡 곡	75,186	85,243	88,083	81,783	103,754	85,368
두 류	134,224	134,792	155,772	169,864	146,895	119,288
서 류	247,786	231,444	235,540	214,862	222,999	216,055
합 계	5,911,374	5,596,118	5,669,209	5,300,302	5,497,538	4,836,456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표 5-6 |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단위 :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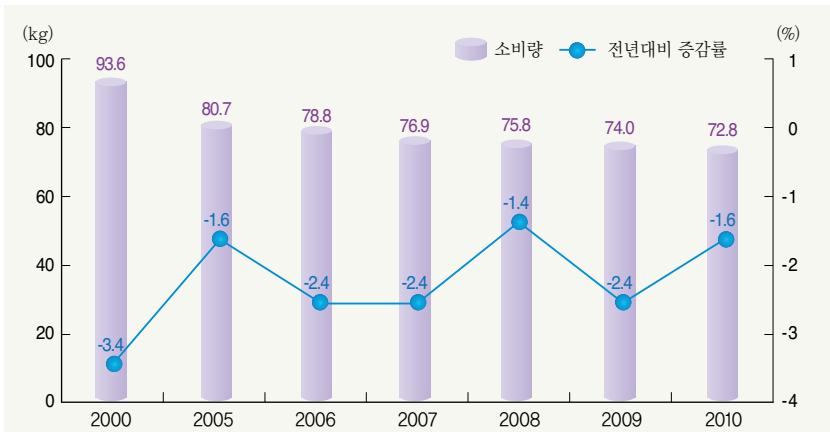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주 식	106.2	101.6	95.7	87.1	84.3	81.4	78.7
장 류	1.0	0.7	0.7	0.6	0.8	0.6	0.5
떡, 과자	2.1	2.2	1.6	1.5	1.4	1.3	1.5
기 타	2.5	2.0	1.0	0.8	0.7	0.6	0.6
합 계	111.7	106.5	99.0	90.0	87.2	83.9	81.3

자료 : 통계청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쌀 생산량과 함께 소비량도 줄어, 2000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은 93.6kg이었으나, 2010년에는 72.8kg으로 20kg 이상 감소했다. 쌀과 국, 찜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식사 대신 빵, 라면, 시리얼 같은 대용식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한 결과다.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부와 기업은 쌀을 다른 음식에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떡을 비롯해 라면과 빵, 케이크에도 쌀을 사용하고, 소주를 빚을 때 쓰는 주정에도 쌀의 함유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림 5-4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2010년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결과」

우유와 치즈, 주요 식품으로 자리 잡다

2011년 8월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사이에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우유 대란'이 일어났다. 대형마트에는 '우유 사재기를 자제해 달라'는 문구가 붙었고, 우유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우유를 더 많이 구입하는 사람이 늘었다. 며칠 뒤에 양측이 원유 가격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사태는 종지부를 찍었으나, 우유가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국내의 유제품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었다. 30여 년 전인 1980년에 백색시유와 가공시유를 합친 우유의 소비량은 28만여 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170만 톤으로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치즈와 버터, 탈지분유도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치즈는 1980년 소비량이 123톤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약 7만2천톤으로 늘었고, 버터와 탈지분유도 각각 9배와 8배씩 증가했다. 우유와 치즈는 2010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정한 '가격 중점감시 48대 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표 5-7 | 유제품별 소비 실적

(단위 : 톤)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백색시유	188,365	647,669	1,242,140	1,311,494	1,447,376	1,310,882	1,351,540
가공시유	90,691	92,761	94,312	248,840	224,132	380,317	350,755
조제분유	16,146	18,750	25,535	25,932	27,282	15,742	15,039
전지분유	6,532	11,030	15,177	2,619	5,555	1,145	4,941
탈지분유	3,018	6,046	18,302	17,568	20,996	25,784	25,344
연 유	1,183	2,438	3,448	3,791	4,068	3,940	3,426
버 터	740	2,844	7,254	2,775	4,760	8,812	6,957
치 즈	123	478	4,744	13,881	44,896	68,290	71,953
발효유	-	-	-	584,441	529,162	476,533	449,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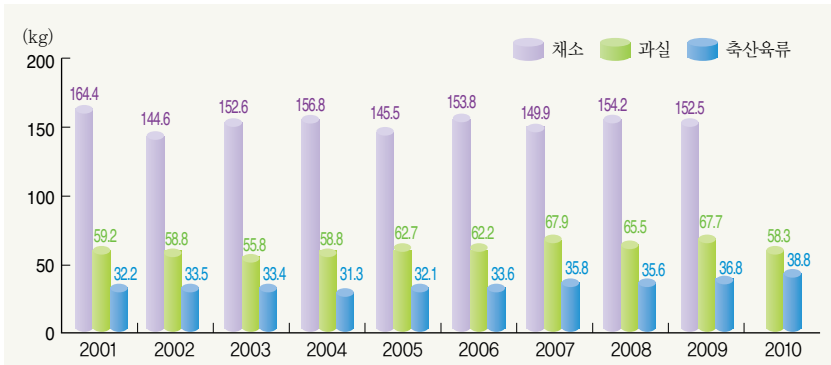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우유 및 유제품 소비상황」 각년도

1인당 채소 소비량은 정체, 과일 및 육류 소비량은 증가

채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150kg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일 1인당 소비량은 1998년도 49.4kg에서 2010년 58.3kg으로 증가했다.

축산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1998년 28.1kg 였으나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소비량 증가로 2002년 33.5kg까지 증가한 후 2005년까지 32.1kg으로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10년 38.8kg로 늘어났다.

그림 5-5 | 주요 농산물 소비량 추이



자료 : 통계청, 「작물통계」

표 5-8 |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 : kg)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소비량 추이(kg)	채소	164.4	144.6	152.6	156.8	145.5	153.8	149.9	154.2	152.5	-
	과일	59.2	58.8	55.8	58.8	62.7	62.2	67.9	65.5	67.7	58.3
	축산육류	32.2	33.5	33.4	31.3	32.1	33.6	35.8	35.6	36.8	38.8
	- 쇠고기	8.1	8.5	8.1	6.8	6.7	6.8	7.6	7.5	8.1	8.8

자료 : 통계청, 「작물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양곡수급실적 및 계획」, 「채소류 생산실적」 등

귀농인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용준씨(45)는 1년여 전부터 귀농을 준비해 왔다. 팍팍한 도시생활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생활에 지친 김씨는 부인을 설득해 가족 모두 농촌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교육도 받았다. 이 교육에서 김씨는 품목별 작목 소개 및 재배기술 교육과 농장경영관리 및 마케팅 기법, 귀농관련 장성군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또 선배 귀농인의 사례발표를 통해 이주희망자에게 지역민과의 화합법 및 농업 소득 창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귀농

- ◎ 도시에서 제2차·제3차 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 ◎ 과거에는 불황으로 인해 실업한 노동력의 환류나 고령화로 퇴직한 자의 농촌 복귀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출신 귀농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귀촌

- ◎ 귀농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것이라면 귀촌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 ◎ 도시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농촌에 정착하여 사는 형태다.

엘리트 귀농 크게 늘어

과거에는 도시생활에 실패하거나 나이가 들어 고향이 그리울 때 귀농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의 귀농세태는 많이 달라졌다. 농촌에서 좀더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뒤 귀농을 단행하는 ‘준비된 귀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직업과 여유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제2의 삶을 찾아 귀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케이스도 많아졌다.

전북 장수의 ‘하늘소마을’과 경북 봉화의 ‘비나리마을’, 전북 진안의 ‘새울터마을’은 고학력 귀농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귀농 공동

체다. 이들은 귀농 준비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골살이에 더 쉽게 적응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관내 인구 증가를 목표로 적극적인 귀농 지원 정책을 펴면서 생긴 새로운 추세다.

고학력 귀농자들은 다양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물론 농사도 짓지만 땅만 일구며 사는 건 아니다. 지자체에서 귀농자들을 사회복지사나 촉탁 교사, 마을 간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명은 농사를 짓고 한 명은 부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맞벌이도 등장한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에 보급하거나 폐교를 개조해 미술관이나 행사장으로 만드는 등 마을 발전에 힘쓰는 사람도 있다.

한 해 귀농인구 4,000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4월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귀농한 가구수는 4,067가구, 인구수는 9,732명(가구당 2.4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1,112가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768가구), 전북(611가구), 경남(53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인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 2000가구를 돌파했고 2009년과 2010년 모두 4000가구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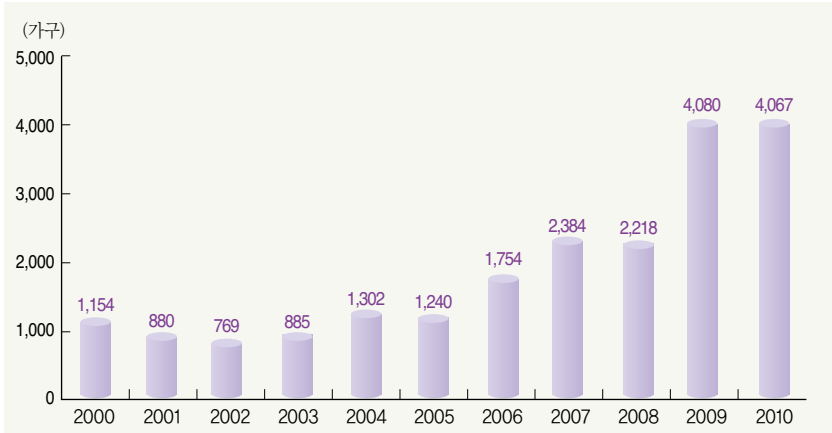
표 5-9 |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단위 : 가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구수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누계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23,943	25,697	28,081	30,299	34,379	38,44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그림 5-6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이처럼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2009년 6월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0년 귀농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농업 생산활동이 가능한 50대 이하(59세까지)의 비중이 81.1%에 이르기 때문에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신규인력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5-10 | 2010 연령별 귀농현황

(단위 : 명,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4,067	59	553	1,229	1,457	665	98	6
(비율)	1.5	13.6	30.2	35.8	16.4	2.4	0.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VI

138 > 155



6장 | 교 육

01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률	138
02	교육격차	142
03	사교육비	147
04	유학	151

01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률



대전에 살고 있는 손대영군(18)은 내년이면 고3이 된다. 손군은 미래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지도 않다. 평범한 학생이라고 자부하는 그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주위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바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일단 대학에는 가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까닭에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드는 등록금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진학률

- ◎ 졸업생 가운데 상급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을 뜻한다.
- ◎ 대학진학률의 경우 종전에는 2월 고등학교 졸업당시 대학합격자 기준으로 조사했으나 더 정확한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산출을 위해 2011년부터 진학자의 조사기준을 대학등록자로 조정했다.

$$\text{진학률} = \left\{ \frac{\text{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text{당해년도 졸업자}} \right\}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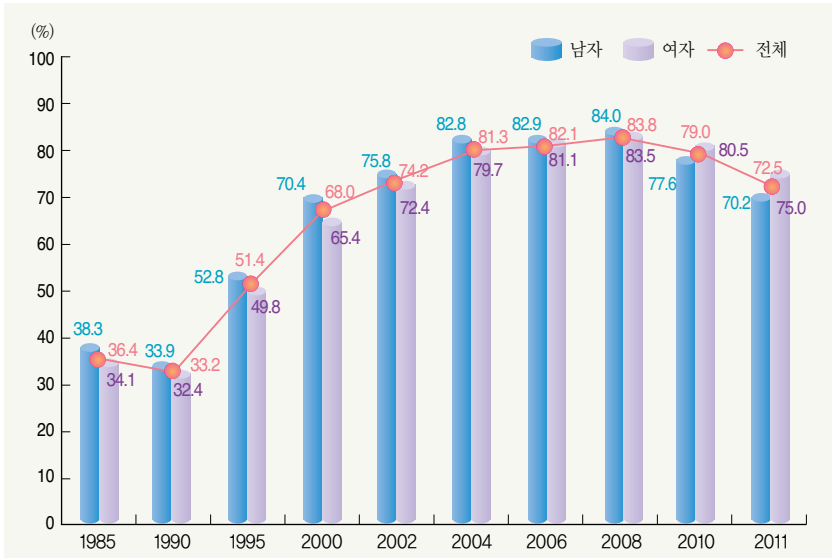
고교 졸업생 다섯 명 중 네 명이 대학 진학

1985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1/3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취업 대신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1995년 대학설립이 자유화되면서 국내 대학의 수는 1990년 241개에서 20여 년 만에 346개로 늘어났다.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돈만 있다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을 나오게 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림 6-1 |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넘쳐나는 박사 학위자

학력 인플레이 현상은 비단 대학교 졸업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학을 마친 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에 배출된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는 2,742명이었으나 2010년에 배출된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만1,093명에 이른다. 박사 '1만명 시대'에 돌입한 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증가세는 이학, 공학 등 자연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사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그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간강사를 전전하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1 | 인구 만 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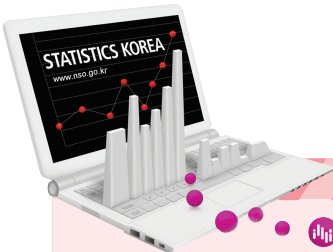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박사학위 취득자 수	2,742	4,429	6,555	9,029	11,093
인구만명당 취득자수	0.6	1.0	1.4	1.9	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02

교육격차



전북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윤형균(17)군은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지만 집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윤군은 반에서 5등 안에 들지만, 수학만은 자신이 없다.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수학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으면 등수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럴 형편이 안 돼 아쉬울 때가 많다.

교육격차

- ◎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의 또는 타의, 교육환경,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육 산출의 차(差)의 정도를 뜻한다.
- ◎ 한국의 교육격차 특징은 도농간 교육격차가 심하여 읍면지역의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 이 외에도 저학력·저소득층과 고학력·고소득층 간 교육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사교육 현황

교육의 미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부모의 능력 또는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교육격차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정비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0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지만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6만3천원,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만3천원으로 평균의 절반 또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4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명암이 갈리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36.0%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8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표 6-2 |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감차
전 체	24.2	24.0	-0.8	75.0	73.6	-1.4
100만원 미만	6.1	6.3	3.3	35.3	36.0	0.7
100 ~ 200 미만	11.0	10.3	-6.4	55.1	50.7	-4.4
200 ~ 300 미만	18.0	17.0	-5.6	72.9	69.8	-3.1
300 ~ 400 미만	24.6	24.0	-2.4	82.6	79.8	-2.8
400 ~ 500 미만	31.0	29.8	-3.9	86.5	84.5	-2.0
500 ~ 600 미만	37.2	36.2	-2.7	88.9	87.1	-1.8
600 ~ 700 미만	42.0	40.4	-3.8	90.1	89.6	-0.5
700만원 이상	51.4	48.4	-5.8	91.1	89.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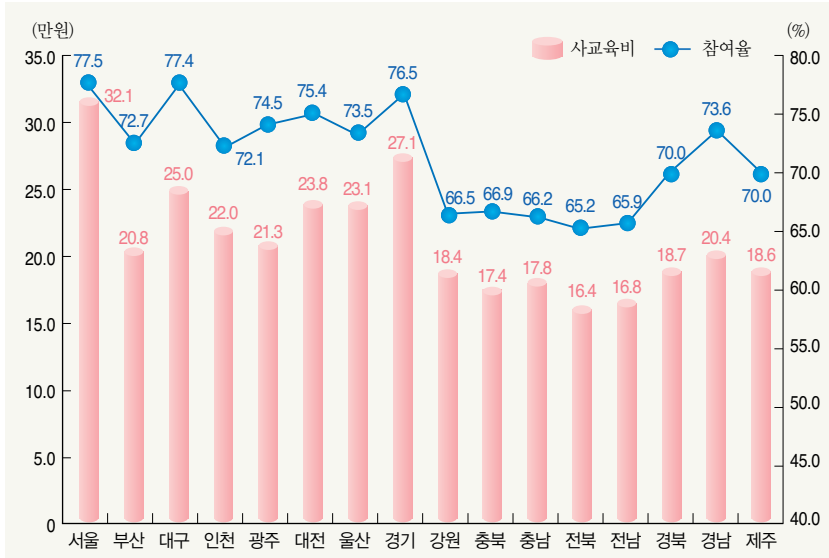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소외되는 읍면 지역 아이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차이가 나는데 서울은 32만1천원, 중소도시 24만4천원, 광역시 22만7천원, 읍면지역 16만원 순으로 나타난다.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이 77.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4.7%, 광역시 74.1%, 읍면지역 65.4% 순으로 사교육비 순위와 같다.

그림 6-2 | 2010년 시도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골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교육 받을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근처에서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거나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면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수십km의 통학 거리도 감수하기도 한다. 또한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 혼자 공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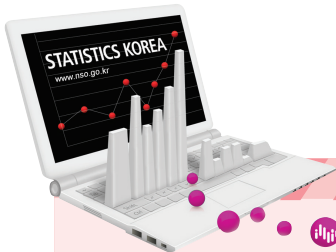
교육격차의 격차, 수능점수 및 대학진학률과 연계

위와 같은 교육격차는 실제로 수능점수 또는 대학진학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2004~2008) 자료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각각 평균 274.4점과 272.7점으로 비슷했으나 읍면지역은 244.0점으로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학 진학률 역시 도시지역은 60%를 넘었으나 읍면지역은 40.9%에 그쳤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수능점수와 대학진학률의 차이는 나타난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의 평균 수능점수는 257.6점, 대학진학률은 43.1%를 보였다. 그러나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정의 학생의 평균 수능점수는 291.1점, 대학진학률은 77.8%로 저소득층 학생보다 우위를 보였다.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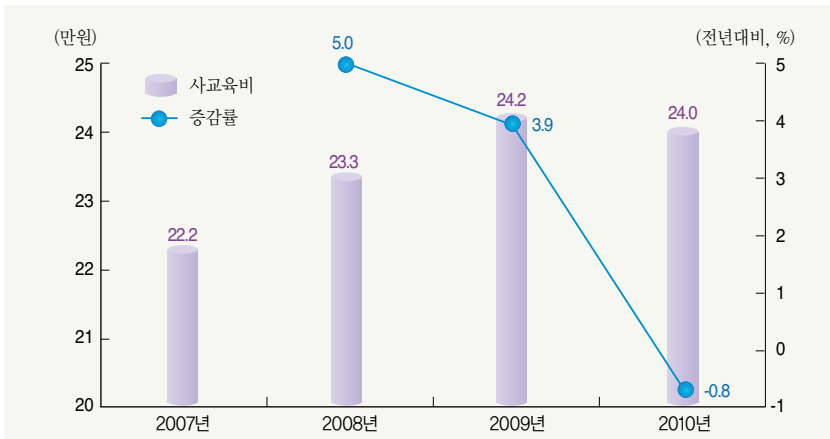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서연우씨(43)는 사교육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교 2년생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딸의 사교육비로 매달 165만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경우 영어 학원비가 30만원, 수학 과외비 60만원에 언어 학원비 20만원을 합해 매달 110만원씩 들고, 딸은 영어와 수학 학원비로 55만원이 나간다. 사교육비 지출이 좀 과한 듯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한 아이 당 월 100만원 넘게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는 집도 많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학원이나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교육비

- ◎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학원이나 과외 등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73.6%

그림 6-3 | 2010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9천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7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천원 줄어들었다.

2010년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3.6%로 2009년 75.0%보다 1.4%p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86.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2.2%, 일반계 고등학생 61.1%로 상급학교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6-3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차)		증감률(차)		증감률(차)	
사교육비 (만원, %)	22.2	23.3	5.0	24.2	3.9	24.0	-0.8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4.5	0.0
중학교	23.4	24.1	3.0	26.0	7.9	25.5	-1.9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21.8	0.5
일반고	24.0	24.9	3.7	26.9	8.0	26.5	-1.5
참 여 율 (% , %p)	77.0	75.1	-1.9	75.0	-0.1	73.6	-1.4
초등학교	88.8	87.9	-0.9	87.4	-0.5	86.8	-0.6
중학교	74.6	72.5	-2.1	74.3	1.8	72.2	-2.1
고등학교	55.0	53.4	-1.6	53.8	0.4	52.8	-1.0
일반고	62.0	60.5	-1.5	62.8	2.3	61.1	-1.7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상위 10% 이내 학생 사교육비가 하위 20%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사교육비 유형을 보면 학원수강이 12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3만2천원), 그룹과외(2만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이 상위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7천

원으로 하위 20% 학생의 13만6천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상위 10% 이내 학생은 85.3%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하위 20% 이내 학생의 경우 48.8%만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 성별 및 성적 순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감차
전 체	24.2	24.0	-0.8	75.0	73.6	-1.4
남 학 생	24.1	23.4	-2.9	74.1	72.4	-1.7
여 학 생	24.3	24.7	1.6	76.0	74.9	-1.1
상위 10%이내	31.9	31.7	-0.6	87.0	85.3	-1.7
10 ~ 30%	28.3	28.2	-0.4	84.9	83.9	-1.0
31 ~ 60%	23.2	23.3	0.4	75.3	73.8	-1.5
61 ~ 80%	18.4	18.2	-1.1	60.7	59.8	-0.9
하위 20%이내	13.9	13.6	-2.2	50.4	48.8	-1.6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학 6만8천원이었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영어, 고등학생은 수학과목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04

유 학



기업 인사부에 재직 중인 김중만(42) 부장은 이번 신입사원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자의 상당수가 유학파 출신이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신입사원 일 때 외국 유학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유 학

-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뜻한다.

국외 유학생(초, 중, 고)

- ◎ 매 학년도(당해년 3월1일~익년 2월28일)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자.
- ◎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 파견동행 : 가족 전체 또는 일부의 해외 파견(발령)으로 인하여 동행한 학생 (초,중,고 모두 해당)
- ◎ 해외이주 :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간 학생 (초,중,고 모두 해당)

국외 유학생(대학)

- ◎ 매년 4월1일 당시 외국의 고등교육단계의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등에 있는 재외 한국인 유학생.

늘어나는 유학생 수

한때 조기유학열풍이 불면서 초중고생의 대거 해외유학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지내다가 부적응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같이 해외로 떠나다보니 국내에서는 이른바 ‘기러기아빠’가 양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초중고생의 조기유학열풍은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세를 보이게 된다. 2002년 3,464명이었던 초등학교 유학생수는 2006년 1만3,814명을 기점으로 2010년엔 8,794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대학 및 학위과정을 목표로 하는 20세 이상 해외 유학생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10월 기준 해외에 있는 대학 및 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수는 45만3,457명에 달한다.

표 6-5 |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백만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외 유학생수	초등학교	4,052	6,276	8,148	13,814	12,341	12,531	8,369	8,794	-
	중학교	3,674	5,568	6,670	9,246	9,201	8,888	5,723	5,870	-
	고등학교	2,772	4,602	5,582	6,451	6,126	5,930	4,026	4,077	-
	대학	159,903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	240,949	251,887	289,288
	학위과정	98,331	105,893	100,716	113,735	123,965	127,000	151,566	152,852	164,169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학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학위과정	7,981	11,121	15,577	22,624	32,056	40,585	50,591	60,000	63,653
유학 연수 수지	국내수입액	14.8	15.9	12.6	28.0	44.9	54.4	36.3	37.4	51.0
	해외지급액	1,854.7	2,493.8	3,380.9	4,515.0	5,025.3	4,484.5	3,999.2	4,488.0	3,806.4
	유학·연수수지	-1,839.9	-2,477.9	-3,368.3	-4,487.0	-4,980.4	-4,430.1	-3,962.9	-4,450.6	-3,755.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과부 자체조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11년도 초,중,고 국외 유학생 수는 '12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예정

-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03년까지는 교육부 자체조사 결과이며 '04년 이후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대학)는 '03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만을 조사하였으며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 * 유학·연수 수지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이상의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11년도 자료는 10월 까지의 잠정치임)

유학생 45% 이상이 미국과 중국으로

표 6-6 |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

국 가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계
유학생수	72,153	62,957	17,310	33,929	25,692	15,808	10,289	30,061	21,089	289,288
비 율	24.9	21.8	6.0	11.7	8.9	5.5	3.6	10.4	7.3	100.0

자료 : e-나라지표 (2011년 4월 기준)

2011년 기준 해외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 수는 28만9,288명으로 전년 25만1,887명에 대비해 15% 증가했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으로 학위를 따러 가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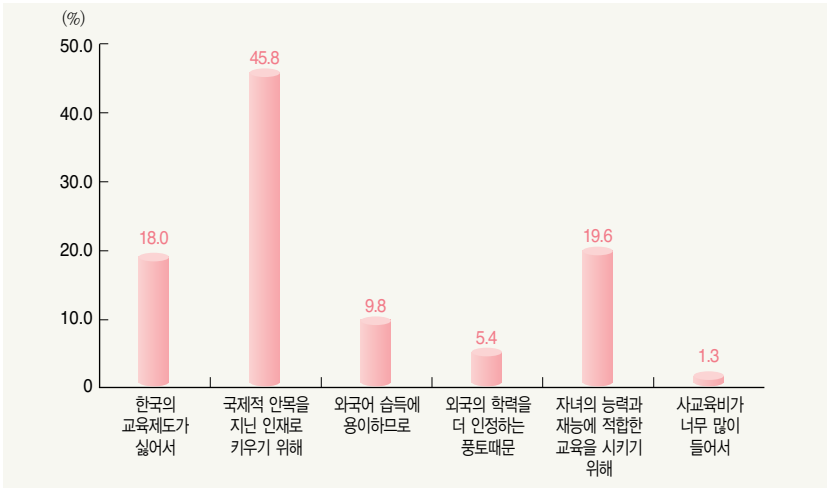
또한 해외대학으로 가는 유학생의 45% 이상이 미국과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국가는 호주,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유학을 원하는 이유 “국제적 안목 위해”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 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45.8%)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9.6%),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18.0%)라는 답변이 나왔다.

한편 자녀를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보내기 원하는 부모의 이유는 ‘경쟁 위주, 입시제도 등 한국의 학교교육제도가 싫어서’가 가장 높았다.

그림 6-4 | 자녀유학을 원하는 이유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결과」

외국인 국내 유학생 10만명 시대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2,526명에 비해 2011년에는 89,537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이 59,317명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4,520명, 미국 2,707명, 베트남 2,325명 등의 순이었다.

표 6-7 |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9,317	4,520	2,707	2,325	1,574	3,699	15,395	89,537
비율(%)	66.2	5.0	3.0	2.6	1.8	4.1	17.2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1.4



알기 쉬운
사회지표해설



VII

158 >>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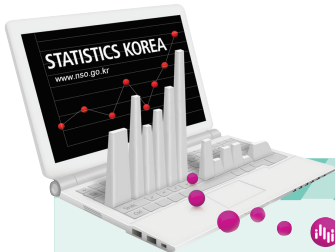


7장 | 보건 복지

01 국민체력실태	158
02 주요 사망원인	162
03 음주율, 주류소비	168
04 흡연율	173
05 비만율	178
06 장애인	184

01

국민체력실태



고교 1년생인 아들을 두고 있는 김혁빈씨(45)는 휴일에 아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아들의 체력이 너무 약한 것을 알고 걱정이 됐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아들이 턱걸이를 두 개밖에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1분에 15개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턱걸이를 10개 이상 하고 팔굽혀펴기도 30~40개는 너끈히 했었던 자신의 고교 때를 생각하며 아들의 형편없는 체력에 한숨이 나왔다.

국민체력실태조사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체력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 ◎ 19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4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수,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 ◎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 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 ◎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 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비율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

- ◎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 활동을 1일 30분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

걷기 실천율

-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

키는 커졌는데 체력은 퇴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체격은 좋아졌다. ‘꽃미남’ ‘짐승남’ ‘짐승돌’ 과 같은 신조어가 말해주듯 한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키가 커졌고 말쑥해졌다. 20대 초반 남성의 평균 키는 2009년 174.1cm로 1965년 163.7cm보다 10cm 이상 커졌다. 그러나 체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마다 19세 이상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체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30대의 근지구력과 스피드, 유연성, 순발력 등 체력 요소가 2007년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조사와 비교해 20, 30대에서 제자리멀리뛰기는 16~17cm 줄어들었고, 윗몸일으키기 횟수는 평균 2, 3회 감소했으며, 50m 달리기 기록은 0.6~0.8초 느려졌다.

또한 비만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body mass index · 신체 질량지수)가 $25\text{kg}/\text{m}^2$ 보다 높으면 비만으로 평가하는데, 30대 후반 남성의 BMI는 $25.2\text{kg}/\text{m}^2$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몸무게는 74.4kg).

다음으로는 50대 초반의 비만도가 $25.0\text{kg}/\text{m}^2$, 30대 초반과 50대 후반이 $24.8\text{kg}/\text{m}^2$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BMI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7-1 | 한·중·일 3국의 BMI 비교

(단위 : kg/m²)

구 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이상
남자	한국	23.6	24.5	24.8	25.2	24.2	24.4	25.0	24.8	24.4	24.4
	중국	21.7	22.6	23.2	23.6	23.9	24.0	24.1	23.9	23.8	23.5
	일본	22.2	22.5	23.2	23.6	23.7	23.7	23.7	23.7	23.5	23.1
여자	한국	21.2	21.2	21.7	22.8	22.9	23.3	23.6	23.9	24.3	24.9
	중국	20.9	21.4	22.1	22.9	23.6	24.1	24.4	24.3	24.4	24.0
	일본	20.2	20.1	20.4	20.5	21.0	21.6	22.0	22.4	22.5	22.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체력실태 조사」
 중국 「2005년 국민체질감측보고」
 일본 「2008년 체력운동능력검사」

걷기 실천율은 작년과 비슷

일상 생활에 있어 신체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활동실천율을 보면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2007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9년 17.9%가 됐다. 걷기 실천율은 2009년 46.1%로 전년과 유사한 수치이나 2005년 60.7%에 비해서는 14.6%p 떨어졌다.

표 7-2 | 신체활동실천율 추이

(단위 : %)

국 가	2005	2007	2008	2009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29.6	21.1	25.9	26.3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15.2	13.9	17.1	17.9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	18.7	9.9	14.5	13.4
걷기 실천율	60.7	45.7	46.9	46.1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

02

주요 사망원인



최근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자살해 모친상을 치른 김구현씨(43)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서 자살이 4위를 차지한다는 통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이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망원인통계

- ◎ 우리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해마다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원인별 사망률

-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한다.

$$\text{사망원인별 사망률} = \left\{ \frac{\text{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text{당해연도의 연앙인구}} \right\} \times 100,000$$

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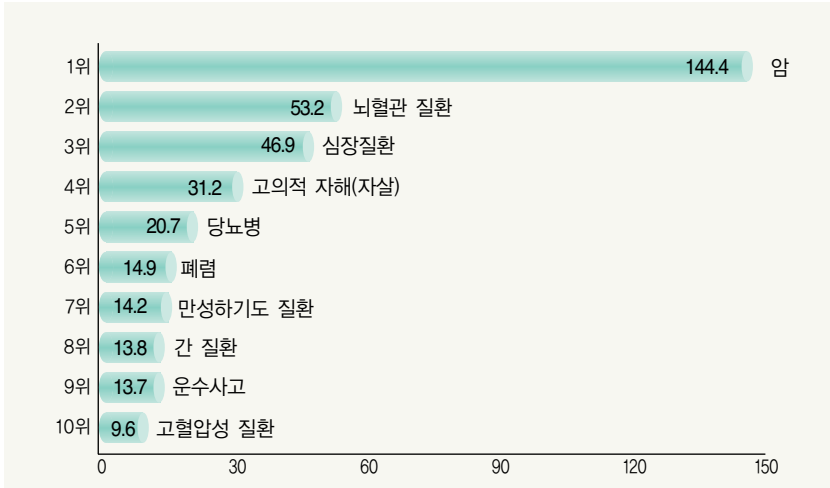
- ◎ 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한다.

$$\text{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 = \left\{ \frac{\text{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text{특정 연령의 연앙인구}} \right\} \times 100,000$$

10대 사망원인

그림 7-1 | 2010년 10대 사망원인

(단위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11

통계청의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총사망자의 4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사인은 위의 3대 사인에 더하여 자살,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으로 총사망자의 70.8%를 차지했다.

연령별 사망원인 중 첫 번째를 살펴보면 1~9세 운수사고, 10~30대 자살, 40대 이상은 암이었다.

표 7-3 | 2010년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

연 령	1위	2위	3위
	사 망 원 인	사 망 원 인	사 망 원 인
1-9세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0-19세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40-49세	악성신생물(암)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50-59세	악성신생물(암)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60-69세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70-79세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80세이상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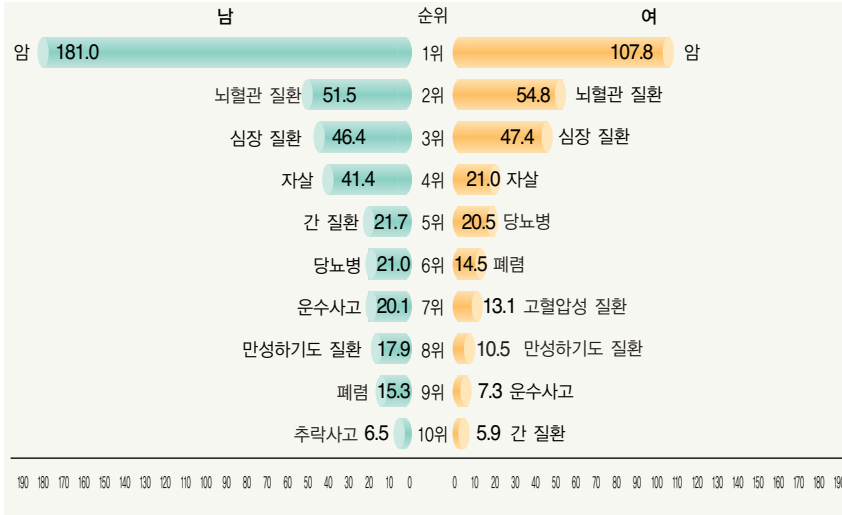
남녀 사망원인 순위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등 4대 사인까지 동일했고 남성은 간 질환과 운수사고의 사망원인 순위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폐렴이 6위로 사망원인 순위가 남성보다 높았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은 10순위 사인 중 여성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은 사인이었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44.4명으로 폐암 → 간암 → 위암 순으로 높았다. 남성은 폐암 → 간암 →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여성은 폐암 → 위암 →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그림 7-2 | 2010년 성별 사망원인 순위

(단위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11

자살의 급증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급증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5,566명으로 하루 평균 43명, 약 34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 2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감소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증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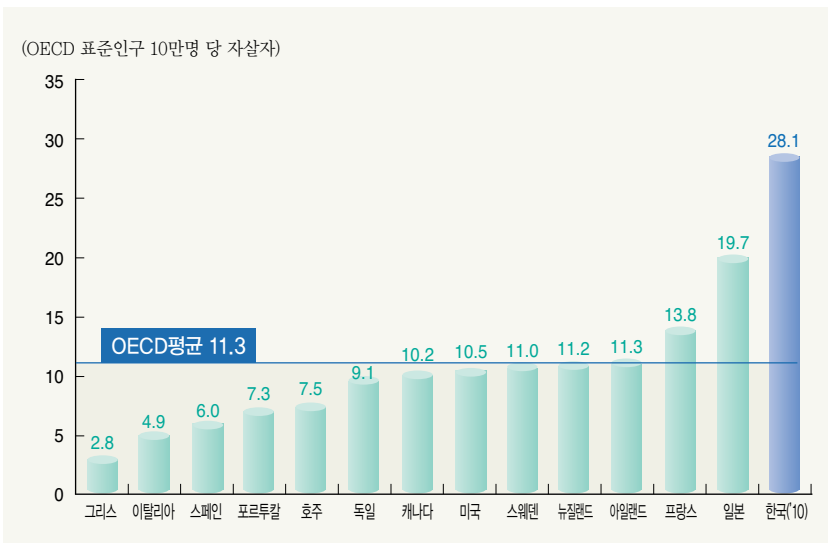
표 7-4 | 성별 자살자수 추이

(단위 : 명)

연 도	자 살 자 수		
	남녀전체	남	여
1990	3,251	2,256	995
2000	6,444	4,481	1,963
2009	15,413	9,936	5,477
2010	15,566	10,329	5,237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11

그림 7-3 |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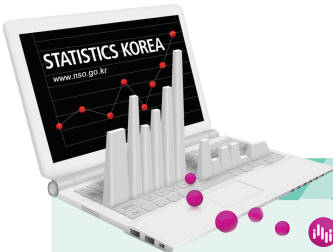
OECD, 「OECD Health Data 2011: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2011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 2010년 : OECD 표준인구로 자체 계산한 결과임

03

음주율, 주류 소비



회사원 박광현씨(32)는 애주가다. 그가 즐겨 마시는 술은 소주와 맥주지만, 최근에는 막걸리도 자주 마시고 있다. 맛이 부드러운 데다 알코올도수가 맥주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 부담이 적은 탓에 막걸리를 주문하는 친구와 직장 동료도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 ◎ 15세이상 국민 1인이 순수하게 소비한 알코올의 양을 의미한다.
- ◎ 그러나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산출한다.

$$\text{알코올 소비량} = \text{소비량알코올} + \text{수입량} - \text{알코올 수출량}$$

월간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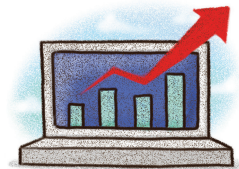
- ◎ 최근 1년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

고위험 음주율

- ◎ 월1회 이상, 1회에 소주 7잔 이상 음주한 분율

주류출고량

- ◎ 주류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류를 시장에 낸 양을 뜻하며 국세청이 해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위스키 등의 연간 출고량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줄어들지 않는 음주량, 취해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술을 마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술먹는 남성은 81.8%이다. 그 가운데 일주일에 3~4회 마시는 사람이 14.6%,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이 6.6%로 약 20%는 이틀에 한 차례 이상 술을 마시고 있다.

표 7-5 | 성별 음주 및 음주횟수 (20세 이상)

(단위 : %)

성 별	음주율	음 주 횟 수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남자	81.8	16.0	28.8	34.0	14.6	6.6
여자	55.5	44.1	34.9	16.2	3.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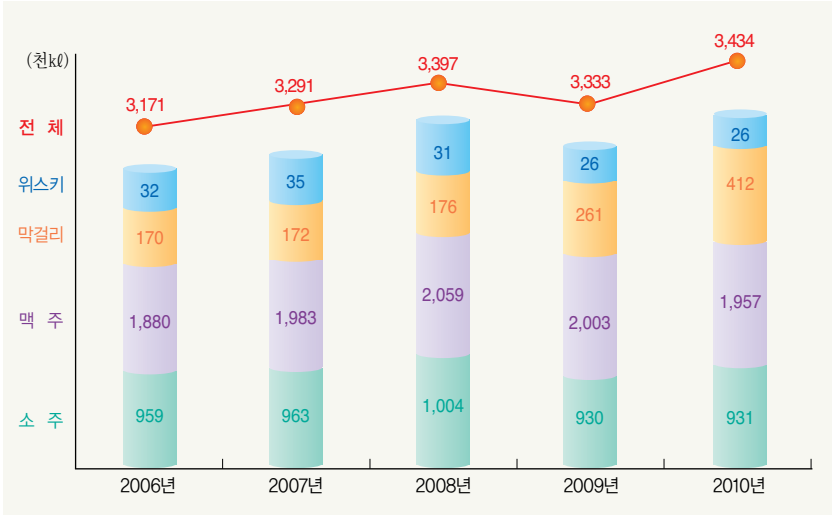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보고서」

음주 여부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20대는 81.5%가 음주를 하고 있는데 반해 65세 이상은 35.2%만이 음주를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의 음주는 38.0%, 중학교 졸업은 60.1%, 고등학교 졸업은 74.2%, 대학교 졸업 이상은 77.9%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2009년을 제외하고 주류 출고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6년 317만1천kl였던 주류 출고량은 2010년 343만4천kl로 4년만에 약 8.3%나 증가했다.

그림 7-4 | 주요 주류 출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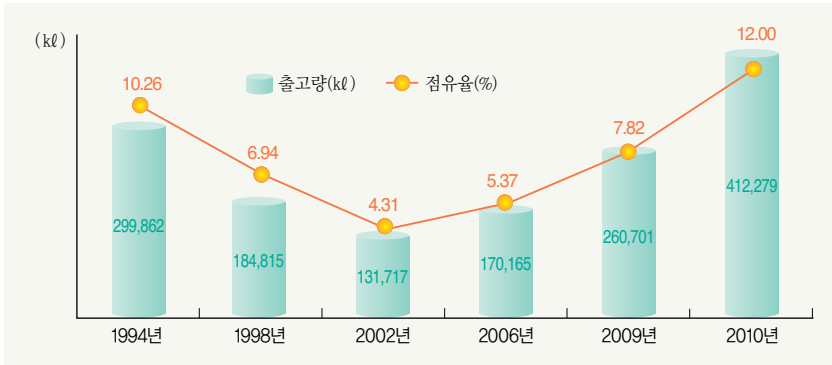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2010 주류 출고동향」

맥걸리 열풍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와인’이 큰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와인보다 맥걸리의 인기가 더 높다. 국세청 「2010년 주류 출고동향」에 따르면 2010년 맥걸리 출고량은 41만2천kl로 2009년 26만kl보다 58.1%나 증가했다. 이는 2009년 맥걸리 출고량이 전년 대비 47.8% 증가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체 주류 출고량의 12.0%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1995년 1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0% 점유율을 회복했다.

‘와인 바’ 처럼 다양한 막걸리를 판매하는 ‘막걸리 바’ 가 등장했고, 호텔 업계에서는 막걸리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막걸리는 해외에 수출되는 ‘한류 상품’ 으로도 자리매김했다.

그림 7-5 | 막걸리 출고량 추이



자료 : 국세청, 「2010 주류 출고동향」

‘주류’에 투영된 정보화 사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는 ‘술’도 예외일 수 없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와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양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와인과 막걸리의 지역별, 제조사별 특징과 관련 맛집, 이용자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산지, 제조사, 빈티지, 용량, 가격, 등급을 알 수 있으며, 와인 라벨을 촬영하면 상세한 정보가 뜨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됐다.



20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동수씨(41)는 금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처는 물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까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주위에서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땅한 취미가 없고, 업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 금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김씨는 내년부터 흡연량이라도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다.

평생흡연율

-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의 비율

현재흡연율

-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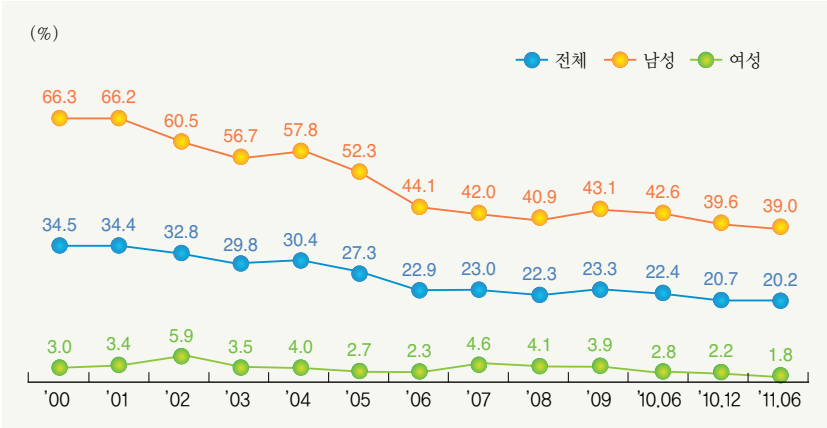
늘어나는 금연구역

서울시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도시 공원, 학교 정화 구역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도심 거리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금연 구역의 확산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성인의 흡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흡연 실태조사를 보면 2011년 상반기 성인흡연율은 20.2%로 전년동월대비 2.2%p 낮아졌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39.0%로 전년동월대비 3.6%p 떨어졌고 성인여성 흡연율 역시 1.8%로 전년동월대비 1.0%p 낮아졌다.

그림 7-6 |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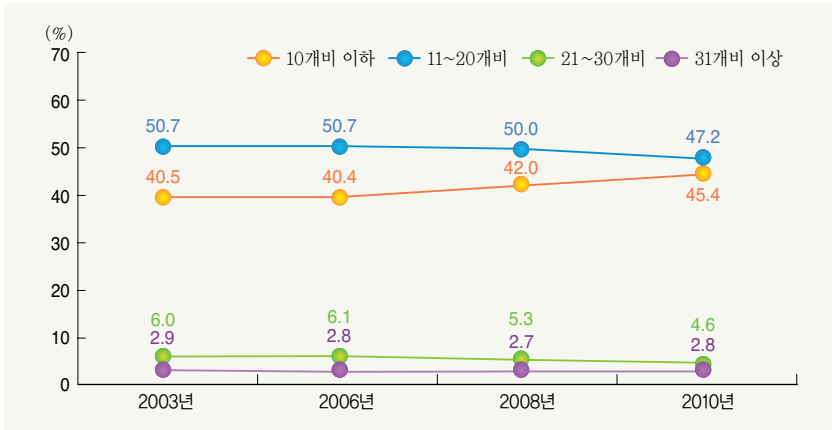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흡연 실태조사」 각년도

연령대별 흡연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흡연율이 51.2%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0대가 3.6%로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 젊은 남성의 흡연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40대 이상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2010년 상반기 대비 2011년 상반기에 9.8%p나 흡연율이 하락했다.

이와 함께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양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하루에 10개비 이하로 피우는 사람은 2003년 40.5%에서 2010년 45.4%로 늘어난 데 비해 11~20개비를 피우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3.5%p 줄었다.

그림 7-7 | 성인 1일 평균 흡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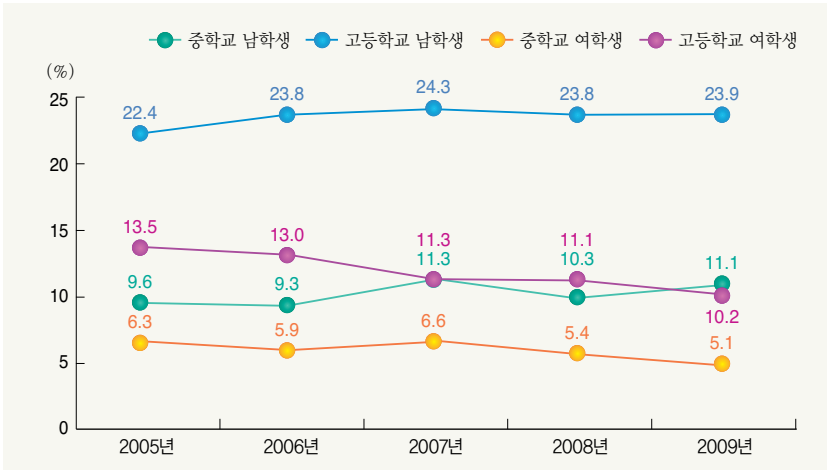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남자 고교생의 23.9%, 여고생의 10.2%가 흡연

청소년 흡연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남자 고교생 가운데는 여전히 20%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고생은 확실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감소했으나, 중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인 PC방과 당구장, 150m²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차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물가 안정 차원에서 모두 백지화되기도 했다.

그림 7-8 | 중고등학교 남녀 흡연율 추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표 7-6 | 청소년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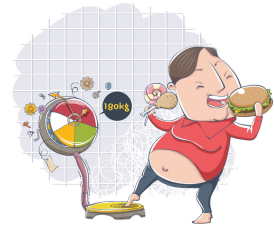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체	11.8	12.8	13.3	12.8	12.8	14.3	16.0	17.4	16.8	17.4	8.9	9.2	8.8	8.2	7.6
중학교	8.0	7.7	9.1	8.0	8.3	9.6	9.3	11.3	10.3	11.1	6.3	5.9	6.6	5.4	5.1
고등학교	18.3	18.7	18.1	17.8	17.5	22.4	23.8	24.3	23.8	23.9	13.5	13.0	11.3	11.1	10.2
-일반계고	12.2	12.8	13.1	13.1	13.3	16.4	17.7	19.2	19.2	19.5	7.5	7.2	6.4	6.4	6.5
-전문계고	34.1	34.1	31.9	31.6	30.4	37.9	39.0	37.7	36.8	37.2	29.6	28.4	25.1	25.4	22.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05

비만율



대학교 3학년인 김미영씨(21)는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163cm에 57kg으로 스스로 약간 통통하다고 생각하는 김씨는 몸무게를 50kg 정도까지 줄이고 싶어 한다. 연예인들의 프로필을 보면 한결같이 40kg대 중후반이어서 욕심 같아서는 7kg 이상 살을 빼서 40kg대를 유지하고 싶다.

비만 유병율

- ◎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체질량지수(kg/m²)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체질량지수 (BMI)

- ◎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비만도를 측정할 때 이용한다.

$$\text{체질량지수} = \left\{ \frac{\text{체중}}{(\text{신장})^2} \right\}$$

- ◎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이상 25 미만은 정상, 25이상 30 미만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로 비만도 측정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은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를 이용한다.

체질량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비만도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 체중을 계산한다. cm로 계산한 신장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면 그 신장대의 표준체중이 나온다.

- 표준체중 = (신장cm - 100) × 0.9
- 비만도(%) = $\left\{ \frac{\text{현재체중(kg)}}{\text{표준체중(kg)}} \right\} \times 100$

표준체중에서 - 10%~+10 % 차이가 나면 정상 체중
 표준체중에서 - 10% 넘게 차이 나면 저체중
 +11%에서 +20% 이면 과체중
 +21%에서 +30% 이면 경도비만
 +30%에서 +50%는 중등도비만
 +50%에서 +80%는 고도비만
 +80% 초과는 초고도비만

이런 계산법에 따라 사례에 나타난 김미영씨의 비만도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163cm 키의 표준체중은 56.7kg(163-100*0.9)이며 비만도는 56.7/57*100=99.47%로 표준체중(100%)에서 10% 이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체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키와 체중만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다. 체중이 평균보다 많이 나가거나 복부가 나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만은 비만 전문의와의 문진을 통해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체크하고 이외에도 체성분 분석을 통한 체지방률, 체형, 복부둘레, 내장비만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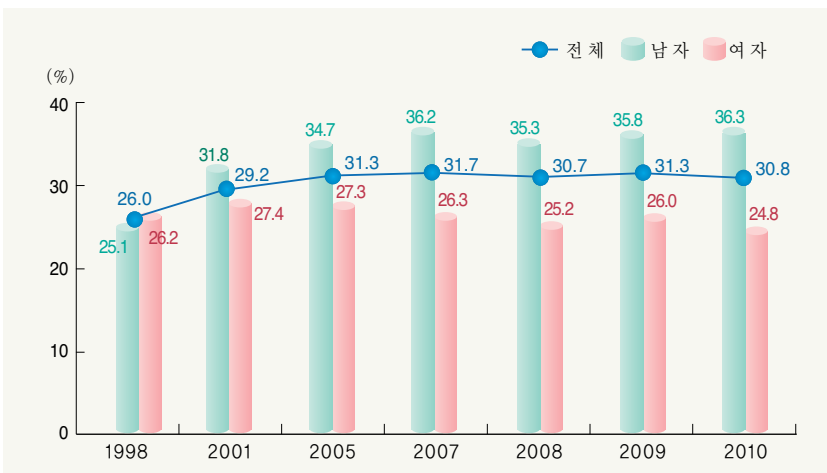
비만율 증가추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만율(BMI 25 이상)은 증가해 31.0%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 성인(20세 이상)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건강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09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1998년 26%를 나타냈으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30~31% 수준에 도달해있는 상태다. 성별로는 2009년 기준 남성 비만율(35.8%)이 여성(26.0%)보다 9.8%p 높다. 1998년에는 남녀의 비만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는 남성의 비만율이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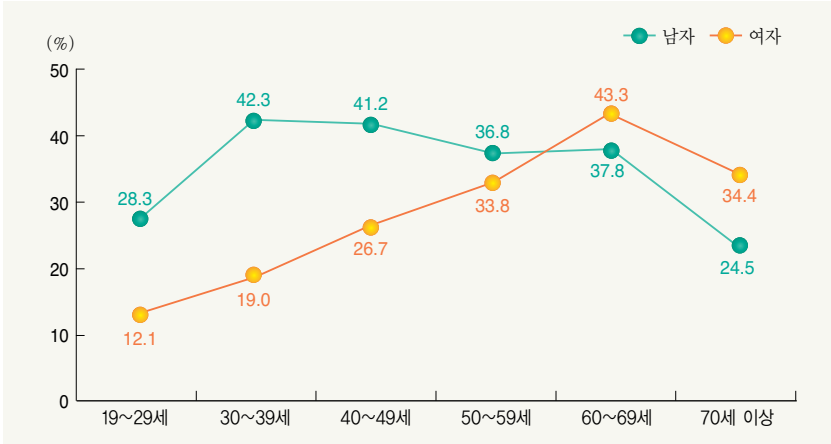
Ⅶ
국민 건강

그림 7-9 |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7-10 | 2010년 연령별 비만율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저소득층 자녀 비만 심각

소아청소년층 비만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비만학회가 1998년과 2007~200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5% 가정의 2~18세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5%에서 9.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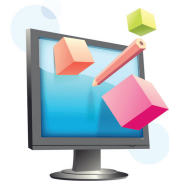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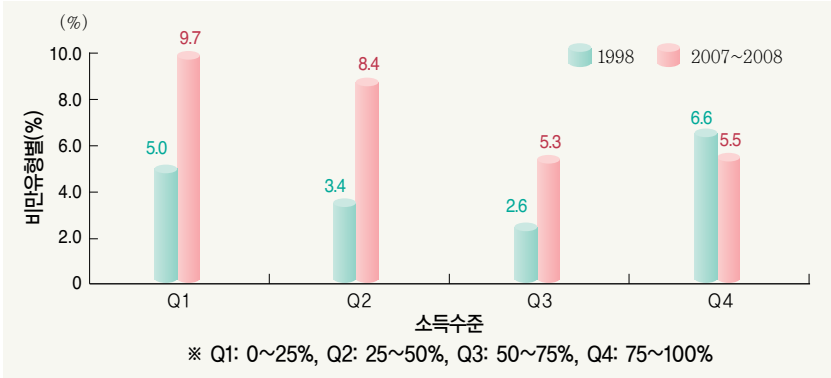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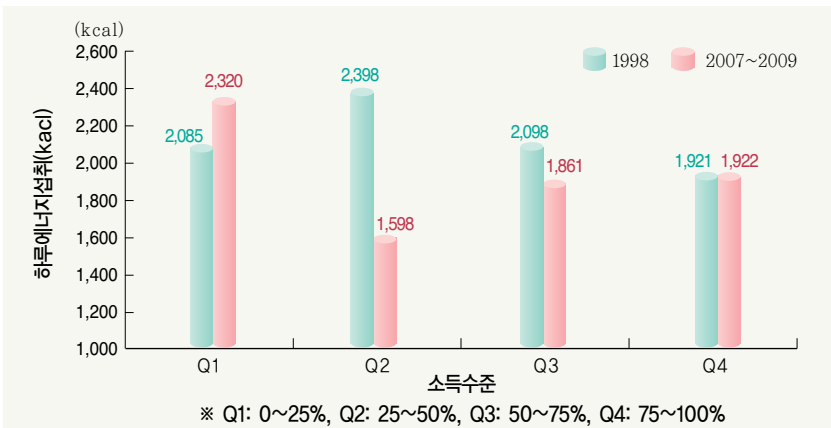
그림 7-11 | 소득수준별 소아청소년(2~18세) 비만 유병률



자료 : 한국 비만학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2010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하위 25% 계층에선 지난 10년간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235kcal 늘었지만 다른 소득층에선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 들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루 지방 섭취량도 하위 25%에선 15.4g 늘어난 반면 상위 25%는 8.1g 늘었으며, 중간계층에선 오히려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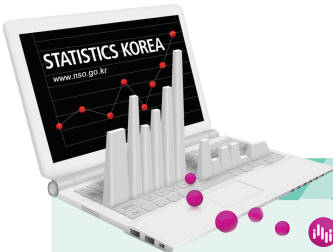
그림 7-12 | 소득수준별 에너지 섭취량



자료 : 한국 비만학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2010

06

장애인



김수경씨(27)는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극장을 찾았다. 그가 본 영화는 공지영 원작의 '도가니'. 광주의 한 장애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김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

-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종류와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

절단, 관절손상(강직, 약화 불안정 등 양 상하지 및 척추장애(신경계손상 및 근육병증)

2.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

3. 시각장애

시력 및 시야결손 장애

4. 청각장애

청력 및 평행기능 장애

5. 언어장애

음성 및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

6. 정신지체

지적 성장의 항구적 지체로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남
IQ 75 이하인 사람, Down Syndrom(Monglism)

7. 정신장애

정신분열, 조울병, 우울증, 알콜중독자 등

8. 발달장애

자폐증(Autism), 정신지체 동반

9. 신장장애

신장(콩팥)의 기능저하로 인한 장애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연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

산소를 흡입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극심한 심장기능부전자

11. 간장애

간병변으로 간의 일부를 절제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운 동반 간암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은 사람

12. 장루, 요루장애

대장, 항문질환으로 장루를 사용하는 자(인공항문)
대장암, 직장암 등

13. 호흡기장애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산소를 흡입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천식으로 일정기간 병원치료병력이 있는 사람

14. 간질장애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비정기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
일정기간 간질약을 복용한 병원치료병력이 있는 사람

15. 안면기형장애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늘어나는 장애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90년 20만여 명에 불과했던 등록 장애인은 2010년 251만여명으로 증가했다. 1990년부터 5년 동안 12만4천여 명이 늘었으나,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63만 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000년대에는 약 160만 명이 등록되었다.

장애인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팔, 다리, 척추에 문제가 있는 지체장애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의 비중이 높다. 지능 발달이 일반인보다 뒤쳐져 있는 지적장애는 1990년 약 15%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장애인의 6% 수준을 보였다.

표 7-7 |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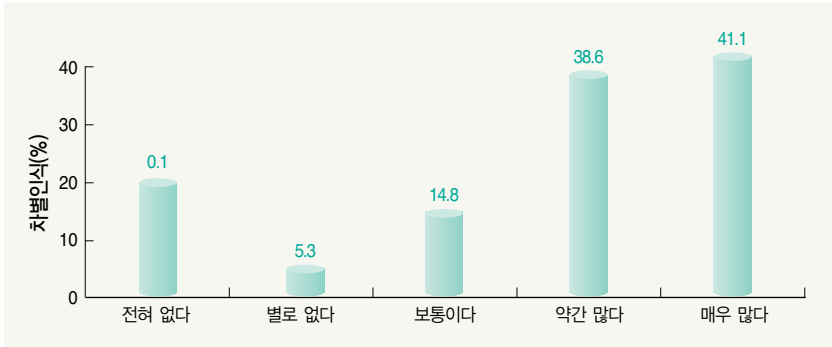
	지 체	시 각	청각, 언어	지 적	기 타	합 계
1990	125,267	14,698	28,721	31,686	-	200,372
1995	220,723	21,488	36,655	45,994	-	324,860
2000	606,422	90,997	87,387	86,793	86,597	958,196
2005	965,014	189,933	175,587	127,881	331,028	1,789,443
2010	1,337,722	249,259	277,610	161,249	491,472	2,517,312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 등록현황」 각년도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삶에 대한 만족도 보통 이상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열 명 중에 여덟 명은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0.1%에 불과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약간 많다’거나 ‘매우 많다’고 답한 사람은 38.6%와 41.1%였다.

그림 7-13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

하지만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처하는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대부분이 무시하거나 참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점이나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사람은 2.4%, 진정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0.6%였다. 97%의 다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표 7-8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단위 : %)

대 처 방 법	2008년	대 처 방 법	2008년
무시 또는 참기	96.9	진정, 고발 조치	0.6
그 자리에서 항의	2.4	기 타	0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

그렇다고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6.7%였고, 만족한다는 사람도 24.2%나 됐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결혼생활과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 장애인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만족도	2008년	만족도	2008년
매우 만족	3.5	약간 불만족	21.7
약간 만족	20.7	매우 불만족	7.4
보통이다	46.7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VIII

192 >> 217



8장 | 주거와 교통

01 주택보급률	192
02 주택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196
03 주거생활	200
04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204
05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9
06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213

01

주택보급률



중소기업 과장인 최창수씨(39)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 최씨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기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살까 생각하다가도 마음을 접곤 한다.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은 가계를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전세를 살면서 저축을 해나갈 계획이다.

주택보급률

- ◎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 ◎ 여기서 말하는 보통가구수는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를 뜻하며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때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한다.

$$\text{주택보급률} = \left\{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right\} \times 100$$

신주택보급률

- ◎ 최근에는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 계산하는 '신 주택보급률'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일반가구수는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거처를 반영해서 계산한다.

$$\text{신주택보급률} = \left\{ \frac{\text{주택수}}{\text{일반가구수}} \right\}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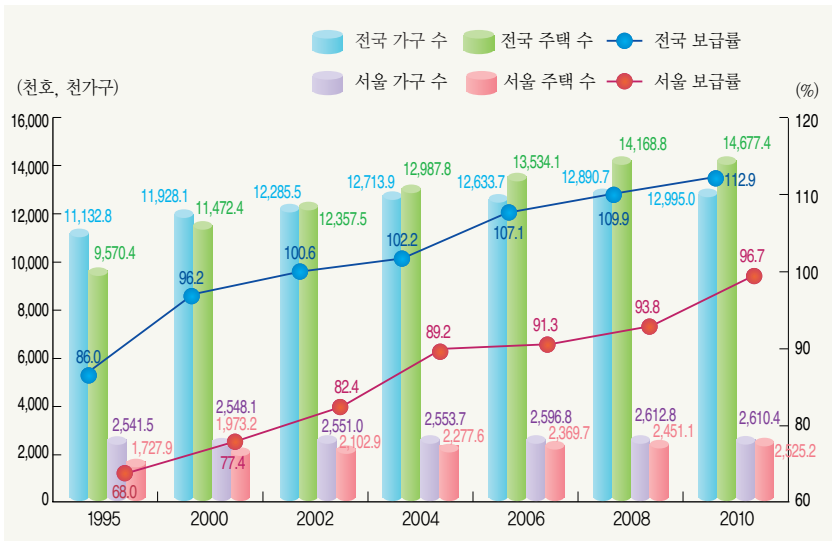
1가구 1주택 시대, 그러나 서울시내 가구 절반은 셋집 살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현황을 보면 전국 주택보급률²⁾은 2002년 100%를 넘어섰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가구에 돌아갈 집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주택보급률은 계속해서 증가해 2010년에는

2) 신 주택보급률이 아닌 예전 방식의 주택보급률 기준

112.9%에 이르렀다. 과밀화로 인한 주택 문제가 심각한 수도 서울도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늘어나 곧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규 주택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그림 8-1 | 주택보급률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보급률」 각년도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를 보면 실제로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940만 가구(54%)뿐이다. 나머지는 전세, 월세와 같은 셋집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난이 가중되고, 은행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전세금이 오르면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의 월세와 사글세 가구는

2008년 약 67만 가구였으나, 2년 만에 86만 가구로 27.7%p 정도 늘었다. 또한 반전세 전환은 전셋값이 비싸고 학군이 좋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8-1 | 거주 형태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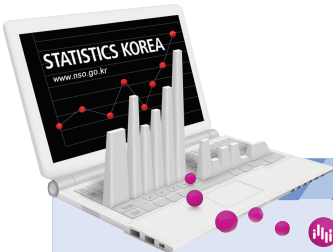
		2006	2008	2010
전 국	자 가	8,828,100	9,269,677	9,406,893
	전 세	3,556,760	3,672,317	3,755,576
	보증금 있는 월세	2,394,557	2,433,892	3,148,344
	보증금 없는 월세	333,206	316,694	341,584
	사글세	284,092	251,613	226,070
	무상, 기타	490,413	495,774	461,091
	합 계	15,887,128	16,439,967	17,339,558
서 벌	자 가	1,475,848	1,514,217	1,444,007
	전 세	1,100,175	1,130,336	1,149,787
	보증금 있는 월세	612,499	618,145	782,767
	보증금 없는 월세	50,487	42,373	60,869
	사글세	16,994	14,244	18,340
	무상, 기타	53,887	52,021	48,607
	합 계	3,309,890	3,371,336	3,504,377

자료 : 국토해양부,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각년도



02

주택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결혼한 뒤 10여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고종찬(42)씨는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전세시세에 촉각을 세우곤 한다. 지난번에 전세값 급등으로 부득이 평수를 줄여서 전세를 옮겨야 했던 고씨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전세가격지수가 낮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08년 12월 기준 = 100)을 기준으로 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주택 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 값으로 부여하여 매월 산출하는 지표를 말한다.

재산증식 수단이 된 아파트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은 지난 15년간 두 배나 증가했다. 2008년 12월 가격을 100으로 잡을 경우 1995년 50.3에 불과했던 아파트 주택가격지수는 IMF 사태가 있던 1997년 전후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주택가격지수 추이는 96.9에서 101.7로 그다지 차이가 없었고, 연립주택도 아파트만큼 큰 변화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주거공간이고 동시에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진다. 아파트는 다른 부동산 상품과 달리 표준화, 규격화가 쉽고 환금성이 높아 금융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8-2 | 도시 주택가격지수

(단위 : %)

	1995	1998	2001	2004	2006	2008	2009	2010
단 독	96.9	85.4	85.6	89.7	95.3	100.0	100.9	101.7
연 립	73.0	65.1	69.5	74.4	85.6	100.0	101.8	102.7
아파트	50.3	47.1	59.4	79.5	95.7	100.0	101.6	104.1
합 계	64.9	58.9	67.2	81.0	94.0	100.0	101.5	103.4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1 (2008년 12월 = 100.0 기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해지는 추세다. 2010년 아파트 주택가격지수는 104.1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과거만큼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다. 이는 주택보급률의 상승과 관련이 깊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을 때는 시장이 공급자 우위였으나, 이제는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공급자가 아무리 주택가격을 올리려 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전셋값 상승 주도하는 아파트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는 주택의 실수요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008년 이후에 주택가격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정체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 상승세가 가장 확연하고, 연립 주택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 다만 단독주택은 지난 15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8-3 | 도시 전세가격지수

(단위 : %)

	1995	1998	2001	2004	2006	2008	2009	2010
단 독	92.5	79.6	98.8	94.9	95.6	100.0	101.0	104.1
연 립	66.4	57.6	86.4	82.9	90.0	100.0	102.5	108.6
아파트	51.6	46.2	78.7	85.6	97.4	100.0	104.5	113.8
합 계	64.0	56.1	84.8	87.4	95.9	100.0	103.4	110.8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1(2008년 12월 = 100.0 기준)



03

주거생활



최근 수도권의 신도시로 이사한 주부 이경애씨(52)는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그보다 싼 가격대에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를 샀는데, 집 주변에 쇼핑시설과 병원, 스포츠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서울까지의 이동도 편해 이사한 것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

- 국토해양부는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담은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위탁수행)를 실시하고 있다.
- 주거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짝수해에는('06·'08·'10년) 일반가구를, 홀수해는('07년·'09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10명 중 8명 “주거환경 만족”

국토해양부가 2011년 8월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가구들은 주거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80.06%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통근시간, 지역유대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과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항목은 다소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별로 도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81.80%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79.47%, 광역시 78.71% 순이었다.

표 8-4 |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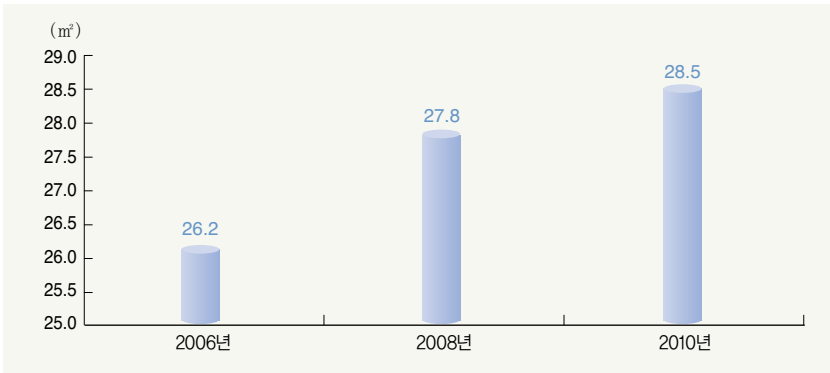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전 국	3.04	16.90	72.70	7.36	100.00
수도권	3.26	17.27	73.44	6.03	100.00
광역시	3.11	18.17	70.71	8.00	100.00
도지역	2.67	15.53	72.87	8.93	100.00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1인당 주거 면적 증가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2010년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8.48㎡로 2006년 26.16㎡, 2008년 27.80㎡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8.71㎡로 2008년의 69.29㎡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1, 2인가구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8-2 | 1인당 주거면적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표 8-5 |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단위 : ㎡, %)

구 분	2008 (가구 비중)	2010 (가구 비중)
계	69.29 (100.0)	68.71 (100.0)
1인가구	46.80 (15.9)	46.59 (18.0)
2인가구	68.20 (24.2)	68.11 (24.9)
3인가구	71.27 (21.7)	71.31 (21.1)
4인가구	76.33 (28.5)	76.52 (26.6)
5인가구	81.21 (7.4)	82.82 (7.2)
6인 이상 가구	90.88 (2.3)	90.67 (2.2)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개별가구 주거면적의 합계/ 개별 가구수

자가와 전세 줄고 월세는 늘어

2010년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비율이 각각 54.25%, 21.66%로 2008년보다 감소했고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가구 비율은 21.43%로 2008년에 비해 3.18%p 증가했다.

표 8-6 | 주택점유형태

(단위 : %)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 월세	월 세	사글세	무 상	계	
전 체	2006	55.57	22.42	15.26	2.06	1.63	3.06	100.00
	2008	56.39	22.34	14.80	1.93	1.52	3.02	100.00
	2010	54.25	21.66	18.16	1.97	1.30	2.66	100.00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04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 대수



결혼한 지 6개월된 고성훈씨(33)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전세금 대출을 갚느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었지만, 아내가 지난달에 임신을 하면서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위에서도 아이와 함께 멀리 이동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조만간 차를 장만할 생각이다.

자동차등록현황

- ◎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집계하여 『자동차등록현황 보고』라는 통계명칭으로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대수

- ◎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대수는 제외된 대수이다.

자동차 구분기준

- ◎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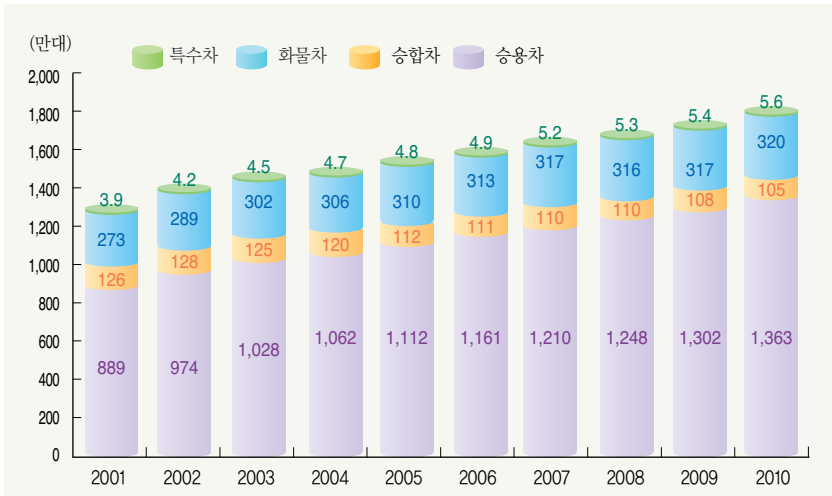
이륜자동차

-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다만,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

1985년에 등록된 자동차는 111만대였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1997년 1,041만대로 처음으로 천만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10년말 기준 1,794만 1천대로 늘어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2.82명, 1세대당 자동차보급대수는 0.90대가 되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수 및 세대수 기준)

그림 8-3 |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시도별 자료), 각년도

차종별로 보면 승용 1,363만2천대(75.9%), 승합 105만대(5.9%), 화물 320만4천대(17.9%), 특수 5만6천대(0.3%)이며 용도별로 보면 자가용 1,690만1천대(94.2%), 영업용 97만4천대(5.4%), 관용 6만6천대(0.4%)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18만9천대(23.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8만 1천대(16.6%), 경남 137만7천대(7.7%)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809만6천대가 몰려있어 전체의 45.13%를 차지했다.

수입차는 2010년 한 해 동안 10만65대가 신규 등록돼 총 등록대수는 51만8,322대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위 통계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통계이며 2010년 말 기준 이륜자동차 신고현황은 182만5천대이다.

표 8-7 |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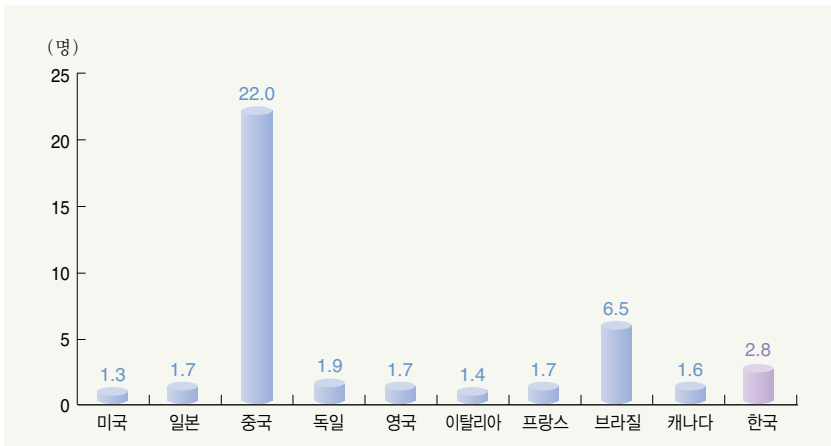
(단위 : 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5,396,715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서울	2,808,771	2,856,857	2,933,286	2,949,211	2,954,704	2,981,400
부산	979,969	994,292	1,010,086	1,038,954	1,116,719	1,147,311
대구	848,492	865,077	881,481	889,127	909,222	948,764
인천	800,149	822,317	853,226	870,322	895,818	925,711
광주	436,044	449,911	462,444	474,105	494,460	518,477
대전	506,691	521,234	535,697	539,233	553,857	572,372
울산	382,715	394,770	407,477	416,565	427,610	440,735
경기	3,505,759	3,651,142	3,792,395	3,888,856	4,014,392	4,189,151
강원	526,126	539,520	555,496	568,213	587,707	606,742
충북	510,535	531,667	553,427	569,460	591,478	617,225
충남	669,355	700,321	732,894	762,287	796,918	834,391
전북	597,650	617,567	638,270	654,797	683,103	711,479
전남	590,622	613,181	637,887	657,162	686,384	713,668
경북	949,941	984,265	1,013,833	1,032,280	1,067,507	1,106,316
경남	1,070,316	1,131,088	1,191,420	1,250,129	1,303,680	1,376,820
제주	213,310	222,025	228,858	233,518	241,651	250,794

자료 : 국토해양부, 「시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2011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한국이 2.8명, 미국은 1.3명, 일본은 1.7명, 독일은 1.9명, 중국은 22.0명이다.

그림 8-4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국제간 비교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0 세계자동차통계」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서울 강서구에서만 30년 넘게 살아온 장도근씨(35)는 최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가 집을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종로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판단도 이사를 결심하는 데 일조했다. 아직 지하철은 개통되지 않았지만, 광역급행버스를 타면 강서구에서 서울시내까지 이동하는 것과 시간상 큰 차이가 없고 자리에 앉아 갈 수도 있어 몸이 오히려 이전보다 덜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KTX

- ◎ 한국고속철도(韓國高速鐵道, Korea Train eXpress; KTX)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체계의 통칭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제한최고속도였던 300km/h에서 305km/h로 5km/h를 높여 운행 중이다.

이용률

- ◎ 수송량을 공급좌석수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text{이용률} = \left\{ \frac{\text{수송량}}{\text{공급좌석수}} \times 100 \right\}$$

날로 빨라지는 철도교통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는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통일호가 삼분하던 철도교통이 KTX와 무궁화를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KTX의 운행과 함께 통일호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고 새마을호도 운행 편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사람은 KTX, 여유롭게 기차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무궁화호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셈이다.

표 8-8 | 열차종류별 철도여객수송량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연도	합계	간 선						전철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비둘기	
1999	823,563	119,075	0	14,807	73,299	30,204	765	704,488
2000	837,268	115,914	0	15,534	73,809	26,478	93	721,354
2001	850,971	117,618	0	16,041	76,089	25,488	0	733,353
2002	851,716	109,935	0	15,362	70,539	24,034	0	741,781
2003	894,621	105,524	0	14,537	67,510	23,477	0	789,097
2004	921,223	111,214	19,882	12,490	63,569	15,273	0	810,009
2005	950,995	115,002	32,370	10,625	58,665	13,342	0	835,993
2006	969,145	114,331	36,490	9,690	55,914	12,237	0	854,814
2007	989,294	110,630	37,315	10,015	55,320	7,980	0	878,664
2008	1,018,977	113,098	38,016	10,814	57,383	6,885	0	905,879
2009	1,020,315	107,732	37,477	10,932	55,335	3,988	0	912,583
2010	1,060,850	112,018	41,303	10,917	58,543	1,255	0	948,832
2011.11	936,237	101,336	45,936	9,352	55,390	739		824,820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여객수송 추이」 각년도

KTX는 서울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대략 40분, 오송역까지 50분, 대전역까지 1시간이 걸린다. 각지의 고속철도 역과 집이 가깝다면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월평균 KTX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2007년 2,755명에서 2010년 4,163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 입주가 진행되면 KTX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이 경기도를 넘어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한 도시나 마찬가지

대도시의 광역화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동인구이다. 코레일이 집계한 수도권 전철 노선별 수송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충남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지난 5년간 5,275만 명에서 6,220만 명으로 18% 증가했다. 2004년 이후 양평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전철이 개통됐고, 경의선과 경춘선도 통근열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고속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M 버스’라고 불리는 광역급행버스는 자리가 모두 차면 정류소에 들르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다. 일산, 분당, 파주 등 신도시와 서울 도심, 강남역 등을 왕복하는 이 버스를 타면 일반 버스보다 10~1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선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 8-9 | 수도권 전철 노선별 수송실적

(단위 :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부선	166,643	174,137	178,894	185,979	185,782	193,301
경인선	138,073	136,908	136,756	139,870	138,450	141,410
경원선	81,878	80,639	87,950	91,332	92,527	94,839
안산선	36,596	37,376	38,827	41,172	41,103	42,888
과천선	30,492	29,910	30,780	32,208	32,860	34,735
분당선	62,351	64,770	67,172	72,730	72,713	75,943
일산선	30,194	30,557	30,539	31,499	30,827	31,302
중앙선	290	9,399	12,741	14,843	17,373	20,984
기 타	-	-	-	158	10,391	20,645
합 계	546,517	563,696	583,659	609,791	622,026	656,047

자료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선별 여객 수송실적(인원)」, 각년도

06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사업가 오상민씨(47)는 집이 인천이지만, 부산에서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많아 두 지역을 자주 오간다. 예전에는 45분 정도 걸리는 국내선 항공기를 주로 이용했지만, 요새는 고속열차인 KTX를 탈 때도 많다. 김해공항이 부산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만나는 장소인 해운대나 광안리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KTX의 소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 ◎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따위로 여행하는 수송능력을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 교통수단별 수송인원과 수송거리(인-km : 수송인원×수송거리)를 기준으로 각기 분담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분담률은 총 수송인원수(수송거리)에 대한 교통수단별 이용인원수(수송거리)의 비율이다.
- ◎ 국내 여객수송분담률은 도로-지하철-철도순이다.
- ◎ 화물수송을 분담하는 비율은 화물수송분담률이라고 한다.

수송

- ◎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일로 수송을 통로에 따라 구분하면 육운·수운·공운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다시 육운은 철도·도로 수송, 수운은 해상(해운)·하천·호수·운하 수송으로 구별된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무엇이 좋을까

지난 10여 년간 분담률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교통수단은 '철도교통'이다. 철도와 지하철을 합한 광의의 철도교통의 여객수송분담률은 1997년 19%였으나, 2009년에는 25%로 증가했다. 여전히 자동차와 버스, 택시, 고속버스 등의 '도로교통'이 여객수송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교통이 증가한 만큼 도로교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항공교통은 2004년 KTX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 결과 1997년 256만 명이었던 항공기 탑승객은 2009년 180만 명으로

30%가 감소했다. 김포-제주 같은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국내선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양양공항은 정기노선이 운항되지 않는 '죽은 공항' 이 됐다. 반면 해운교통은 꾸준히 여객수송 인원이 늘어나 12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표 8-10 | 국내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 인원

(단위 : 천명)

	1997	2000	2003	2005	2007	2009
철 도	832,999	837,267	894,620	950,995	989,294	1,020,319
지하철	1,855,166	2,235,221	1,982,192	2,020,360	2,090,290	2,182,346
공 로	10,887,456	10,410,577	9,404,764	8,801,839	9,518,760	9,588,133
해 운	9,899	9,702	10,336	11,099	12,634	14,868
항 공	25,639	22,514	21,380	17,156	16,848	18,061
합 계	13,611,159	13,515,281	12,313,292	11,801,449	12,627,826	12,823,727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국토해양통계연보」

KTX의 대항마, 저비용항공

항공업계에서는 고속열차인 KTX에 대항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설립, 국내선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 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요금이 더욱 저렴한 '진에어' 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이 겨루고 있는 노선은 단연 김포-제주이지만, 김포-부산 구간도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어부산은

운항 스케줄을 한 시간 간격으로 조절해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KTX 탑승권보다 싼 할인항공권을 내세워 승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07년까지 감소하던 항공교통의 여객수송 분담인원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수송인원은 8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상승했으며, 여객 분담률도 7.0%p 상승한 42.2%를 기록했다.

표 8-11 | KTX 수송 총괄 추이

(단위 : 명)

구분 년/월	합계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이용객	이용객	이용객	이용객	이용객
2004	19,881,785	16,698,759		3,183,026	
2005	32,368,338	26,852,128		5,516,210	
2006	36,490,029	30,191,243		6,298,786	
2007	37,283,771	30,978,620		6,305,151	
2008	38,015,008	31,532,578		6,482,430	
2009	37,394,243	31,010,127		6,384,116	
2010	41,302,821	34,342,062	118,744	6,842,015	
2011.11	45,933,444	35,754,567	3,263,643	6,713,677	201,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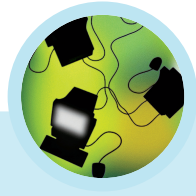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철도공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알기 쉬운
사회지표해설



IV 220 >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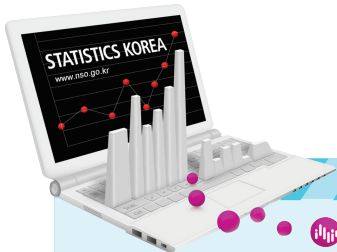


9장 | 정보와 통신

- 01 인터넷 이용률 220
- 02 인터넷 쇼핑 이용률 및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224
- 03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228

01

인터넷 이용률



대학생 김이용씨(21)는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여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해 둔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갈 때면 인터넷 빠른 길찾기를 이용한다. 길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목적지 근처 건물들의 사진을 확인해두는데, 이렇게 하면 길을 헤맬 일이 없다.

인터넷 이용률

- ◎ 만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을 뜻한다.

10년만에 인터넷이용자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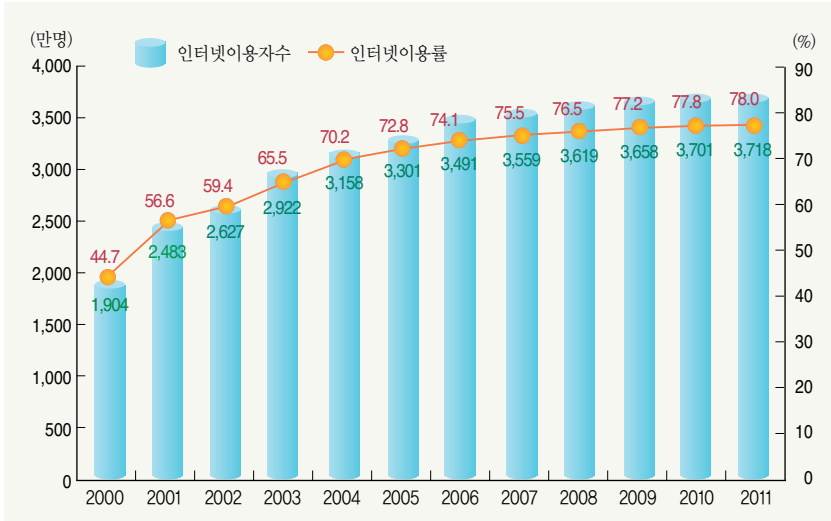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처음에 조사 대상은 만7세 이상 인구였지만 2002년 만6세 이상 인구로 변경됐고 2006년부터는 만3세 이상 인구로 다시 변경됐다. 인터넷 이용자 정의도 처음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였지만 2004년부터는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로 바뀌었다.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78.0%로 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78.0%인 3,718만명이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의 44.7%(1,904만명)에 비해 인구수로 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72.8%) 이후 2006년 74.1%, 2007년 75.5%, 2008년 76.5%, 2009년 77.2%, 2010년 77.8%을 보이며 1%p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가 이미 성숙·안정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용자수의 양적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이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의 인터넷 활용 및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9-1 |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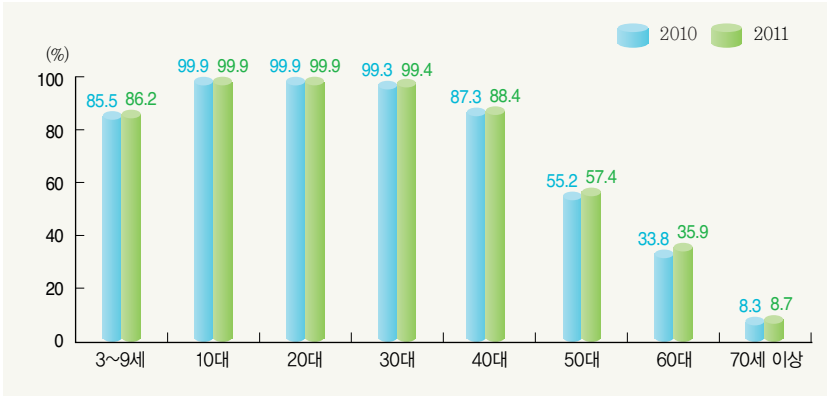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젊은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10대(99.9%), 20대(99.9%), 30대(99.4%)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40대(88.4%)와 3~9세(86.2)의 이용률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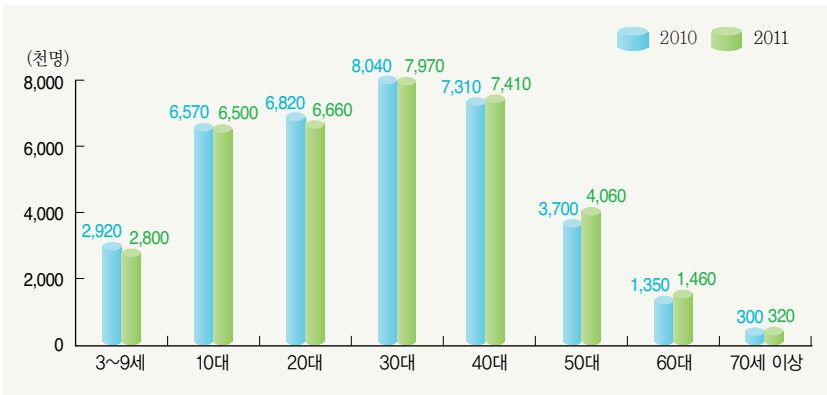


그림 9-2 |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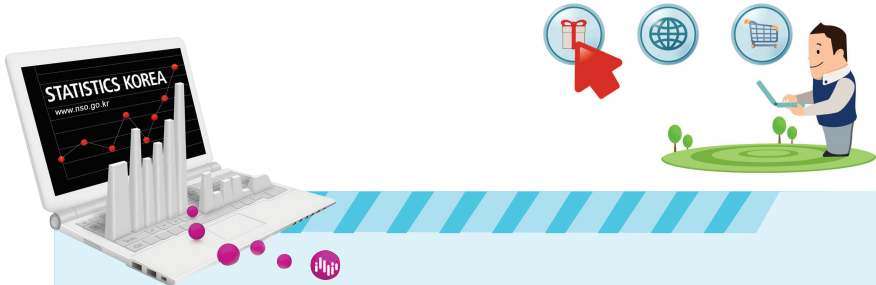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9-3 |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수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쇼핑 이용률 및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서울에 사는 주부 이소영씨(43)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한다. 그녀는 직장생활로 인해 따로 장 볼 시간을 내기 힘들어 인터넷 장보기를 하게 됐다.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사면 안 좋은 상품을 받게 될까 걱정했지만 대형 마트의 인터넷몰을 이용해보니 당일 및 예약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장보기를 해주는 직원을 통해 장을 대신 봐주기 때문에 이젠 주기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 ◎ 인터넷상의 상점이나 점포에 접속해서 사용자가 쇼핑물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
- ◎ 온라인 쇼핑, 사이버 쇼핑 또는 전자 쇼핑과 유사한 개념이다.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경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쇼핑 사업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구축, 암호 및 보안 기술, 인증 제도, 법 제도 개선, 개인 정보 보호, 통신 속도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자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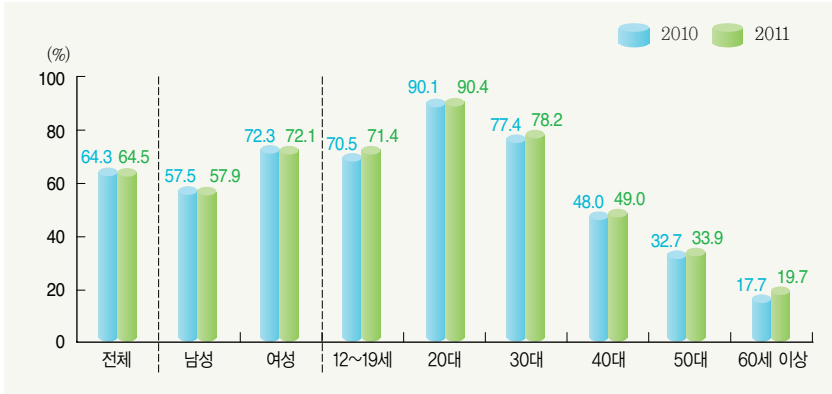
- ◎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망과 그 외의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모든 비인터넷 통신망을 포함한다.
- ◎ 전자상거래는 거래 주체에 따라 기업과 기업의 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정부의 거래인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인 B2C(Business to Consumer),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인 C2C(Consumer to Consumer)로 나눌 수 있다.

B2B 주도형태에 따른 분류

- ◎ 구매자 중심형 :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
- ◎ 판매자 중심형 :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
- ◎ 중개자 중심형 : 중개용 B2B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

인터넷 쇼핑 이용률

그림 9-4 | 인터넷 쇼핑 이용률 -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여성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남성에 비해 높아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예약·예매 포함)한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전체 기준으로 2009년에는 62.3%, 2010년에는 64.3%, 2011년 64.5%를 기록하였고, 성별 기준으로는 2011년 현재 여성이 72.1%로 57.8%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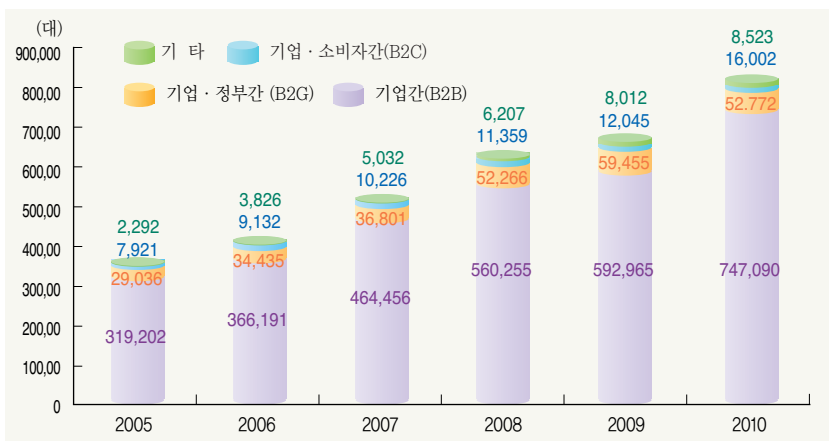
20대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90.4%로 30대(78.2%)보다 앞섰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도 각각 33.9%와 19.7%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규모 지속적인 증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 358조4,500억원에서 2010년 824조3,9100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 전자상거래 규모 부분별로 살펴보면 2009년 대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26.0%,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32.9% 각각 증가한 반면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B2G)는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5 |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각년도

표 9-1 |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358,450	413,584	516,514	630,087	672,478	824,391
기업간(B2B)	319,202	366,191	464,456	560,255	592,965	747,090
기업·정부간(B2G)	29,036	34,435	36,801	52,266	59,455	52,772
기업·소비자간(B2C)	7,921	9,132	10,226	11,359	12,045	16,005
기 타	2,292	3,826	5,032	6,207	8,012	8,523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각년도

IX
전자상거래 동향조사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직장인 나은영씨(31)는 최근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그는 같은 부서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화제로 삼기 때문에 기존 핸드폰의 해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교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일반 터치폰으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순 없었다.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하며, 친구들과 통화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야기를 나눈다.

시내전화 가입자수

- 유선 시내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유선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
- 한 국가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정도, IT활용 지수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

-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현재 TV 등 동영상 서비스와 카메라, 캠코더, MP3 기능 등이 추가된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 우리나라 총인구수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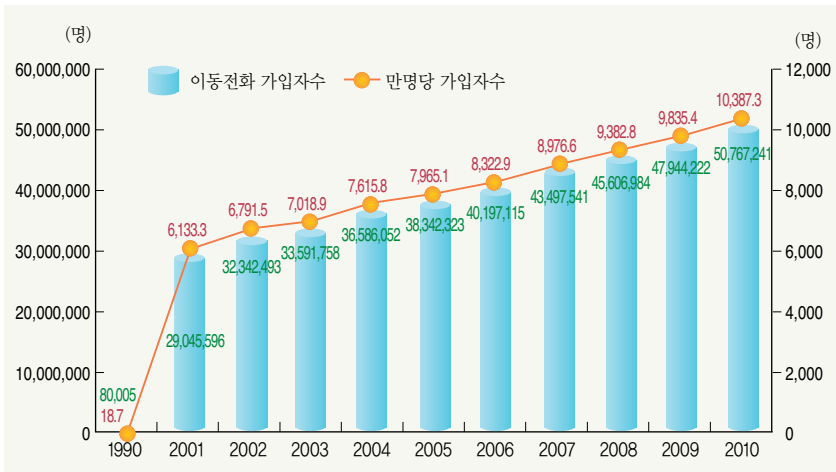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인구 만명당 1만387.3명으로 처음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넘어섰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1개 이상의 이동전화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동전화는 서비스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1996년부터 통화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갖가지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고, 2002년 이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 보급이 확대된 데 이어 사업자간 경쟁으로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집계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동통신 방식을 GSM³⁾을 채택한 국가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SIM카드 판매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CDMA⁴⁾를 이동통신 방식

그림 9-6 | 이동전화 가입자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보고자료」 각년도

3)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중합정보통신망과 연결되므로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화 단말기와 팩시밀리, 랩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동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이다.

4)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미국의 퀄컴(Qualcomm)에서 개발한 확산대역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이동통신방식으로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므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AMPS)보다 수용용량이 10배가 넘고 통화품질도 우수하다.

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재 사용 중인 회선수를 기준으로 가입자수를 집계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SIM카드를 2개 이상 구매하거나 또는 2개 이상 회선에 가입했을 때 2명 이상 가입자로 산출된다.

2년 만에 열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총 2천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4명 꼴이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는 이미 예견돼 왔다.

지난 2009년 12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80만 명에 불과했지만, 1년 뒤인 2010년 12월에는 442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2011년 2월에는 926만명, 3월에는 1,002만명으로 늘었다.

표 9-2 |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단위 : 만명)

	'09.12월	'10.3월	'10.6월	'10.9월	'10.12월	'11.1월	'11.2월	'11.3월	'11.10월
스마트폰 가입자	80	152	247	442	722	826	926	1,002	2,0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X

234 >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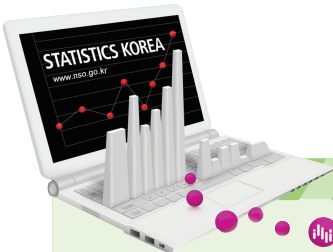


10장 | 환경과 안전

01 환경성과지수	234
02 녹색생활과 친환경소비	238
03 에너지 소비	243
04 교통사고	247
05 주요범죄 발생건수	252
06 외국인 범죄	255

01

환경성과지수



고등학교 2학년 이지민군(18)은 텔레비전에서 '환경성과지수'를 발표하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나라별로 환경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또 우리나라가 환경을 개선해서 환경성과지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국가별 환경 수준을 계량화·평가한 '환경분야 종합지표'이다.
- ◎ 세계경제포럼(WEF)이 미국 예일대학교 콜럼비아대학 환경연구소와 2년간 공동 연구하여 2001년부터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발표해 오다, 이를 보완하여 2006년부터 2년 간격으로 '환경성과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성과지수 산정방식

환경성과지수 지수산정방식은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항목별 목표의 달성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종합하여 국가별 순위를 측정한다.

개별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기관, 대학연구소 등이 발표한 기존 자료·모델링 결과 등을 인용, 가공하여 활용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자료 확보가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해 평가한다.

1~2항목의 자료 누락 시 평균점수로 대체하나, 다수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

우리나라는 2010년 163개국 중 94위를 기록, 2008년(149개국 중 51위) 대비 43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환경성 질병 부담, 생물다양성, 농업 범주 등이 200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가중치가 큰 기후변화 항목(온실가스 배출량, 발전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30개 회원국 중 19개 국가의 순위가 2008년 대비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대기보전', '생물다양성', '해양/어업', '기후변화' 등의 범주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0-1 | 2010 환경성과지수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아일랜드	93.5	56	시리아	64.6	111	타지키스탄	51.3
2	이스라엘	89.1	57	에스토니아	63.8	112	모잠비크	51.2
3	코스타리카	86.4	58	스리랑카	63.7	113	쿠웨이트	51.1
4	노르웨이	86.0	59	조지아	63.6	114	솔로몬제국	51.1
5	모리셔스	81.1	60	파라과이	63.5	115	남아프리카공화국	50.8
6	모리셔스	80.6	61	미얀마	63.5	116	잠비아	50.3
7	프랑스	78.2	62	브라질	63.4	117	리비아	50.1
8	오스트리아	78.1	63	폴란드	63.1	118	홍콩	49.9
9	쿠르디스탄	78.1	64	베넬라	62.9	119	우간다	49.8
10	롬비아	76.8	65	불가리아	62.5	120	마다가스카르	49.2
11	핀란드	76.3	66	이탈리아	62.4	121	중화인민공화국	49.0
12	핀란드	74.7	67	태국	62.2	122	카타르	48.9
13	슬로바키아	74.5	68	이집트	62.0	123	인도네시아	48.3
14	영국	74.2	69	러시아	61.2	124	에티오피아	48.0
15	뉴질랜드	73.4	70	아르헨티나	61.0	125	파키스탄	48.0
16	독일	73.3	71	그리스	60.9	126	탄자니아	47.9
17	영국	73.2	72	브루나이	60.8	127	짐바브웨	47.8
18	이탈리아	73.1	73	마케도니아	60.6	128	부르키나파소	47.3
19	포르투갈	73.0	74	튀니지	60.6	129	수단	47.1
20	일본	72.5	75	지부티	60.5	130	잠비아	47.0
21	라트비아	72.5	76	아르메니아	60.4	131	오만	45.9
22	체코	71.6	77	터키	60.4	132	기니아	44.7
23	바누아투	71.4	78	키르기스스탄	60.0	133	카메룬	44.7
24	파나마	71.4	79	키르기스스탄	59.7	134	인도네시아	44.6
25	스페인	70.6	80	라오스	59.6	135	르완다	44.6
26	벨기에	69.9	81	남미	59.3	136	기니아	44.4
27	엔티카바	69.8	82	우간다	59.2	137	볼리비아	44.3
28	싱가포르	69.6	83	우루과이	59.1	138	파푸아뉴기니	44.3
29	스리랑카	69.4	84	아제르바이잔	59.1	139	방글라데시	44.0
30	페루	69.3	85	베트남	59.0	140	부룬디	43.9
31	에티오피아	69.3	86	몰도바	58.8	141	에티오피아	43.1
32	덴마크	69.2	87	우크라이나	58.2	142	몽골	42.8
33	헝가리	69.1	88	벨기에	58.1	143	세네갈	42.3
34	살바도르	69.1	89	자메이카	58.0	144	우즈베키스탄	42.3
35	크로아티아	68.7	90	레바논	57.9	145	바레인	42.0
36	도미니카공화국	68.4	91	상투메 프린시페	57.3	146	에콰도르	41.9
37	리투아니아	68.3	92	카자흐스탄	57.3	147	북한	41.8
38	네덜란드	68.2	93	니카라과	57.1	148	캄보디아	41.7
39	수리남	68.2	94	한국	57.0	149	보츠와나	41.3
40	부룬디	68.0	95	가봉	56.4	150	이라크	41.0
41	룩셈부르크	67.8	96	사우디 아라비아	56.3	151	차드	40.8
42	알제리	67.4	97	요르단	56.1	152	아랍에미리트공화국	40.7
43	멕시코	67.3	98	보스니아	55.9	153	나이지리아	40.2
44	아일랜드	67.1	99	사우디 아라비아	55.3	154	베냉	39.6
45	루마니아	67.0	100	에리트리아	54.6	155	바레인	39.5
46	캐나다	66.4	101	스와질랜드	54.4	156	말리	39.4
47	네덜란드	66.4	102	코트디부아르	54.3	157	터크메니스탄	38.4
48	엘살바도르	65.9	103	트리니다드	54.2	158	니제르	37.6
49	네팔	65.9	104	과테말라	54.0	159	통고	36.4
50	필리핀	65.7	105	콩고	54.0	160	양곤	36.3
51	호주	65.7	106	중화인민공화국	51.6	161	모리타니아	33.7
52	모로코	65.6	107	말라위	51.4	16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3.3
53	벨라루스	65.4	108	케냐	51.4	163	시에라리온	32.1
54	말레이시아	65.0	109	가나	51.3			
55	슬로베니아	65.0	110	미얀마	51.3			

자료 : 미국 예일, 컬럼비아 대학, 「2010 EPI 평가결과」 2011

EFI의 의의와 한계

환경성과지수는 2002년과 2006년 시험작성되었고, 2008년과 2010년 정식으로 발표된 지수로서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개량화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어, 그 결과의 일관성, 신뢰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동안 4차례의 작성과정에서 매번 자료 수집·가공의 편의성에 따라 평가 항목과 사용되는 데이터가 변경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성과지수 결과는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고 특히 산업·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생태발자국지수

Ecological Footprin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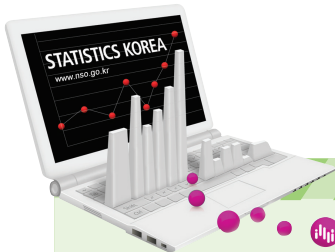
생태발자국지수란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토지(ha: 헥타르)로 환산한 것으로 ‘자연 생태를 망치는 인간의 발자국’을 상징한다.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이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생태발자국지수는 1인당 1.8ha이다.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넓은 것(생태발자국 지수가 높다는 의미)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사는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지수는 1995년 1.8ha를 넘었고 2005년 3.0ha에 이르렀다. 2010년 10월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발표한 우리나라 생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4.87ha이다. 우리 국민의 적정 생태용량은 1인당 0.33ha라고 하니 국토의 14배가 넘는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02

녹색생활과 친환경소비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주부 이그린씨(35)는 친환경 제품을 즐겨 구매하는 친환경 소비족이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의 건강 때문에 친환경 인증라벨이 붙은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 또 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며, 세제는 상품 케이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장볼 때는 장바구니를 항상 사용하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 난방비를 절약한다.

녹색생활

-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친환경 상품을 소비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친환경제품

-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만들어질 때에 환경오염과 자원소모가 적고, 원료, 재료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 물질이고, 폐기와 재활용이 쉽고 효율이 좋은 제품을 말한다.
- ◎ 친환경적이며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 유사한 용어로 녹색상품(green goods)이란 말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비교적 쓰레기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이나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상품 또는 '환경 적합성이 큰' 제품을 일컫는다.

녹색생활지표

- ◎ 통계청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수준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의 실천여부, 인식정도 등에 대한 사항을 2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표이다.
- ◎ 통계청은 2010년 녹색생활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11년 5월 제1회 녹색생활조사를 실시해 10월에 '녹색생활지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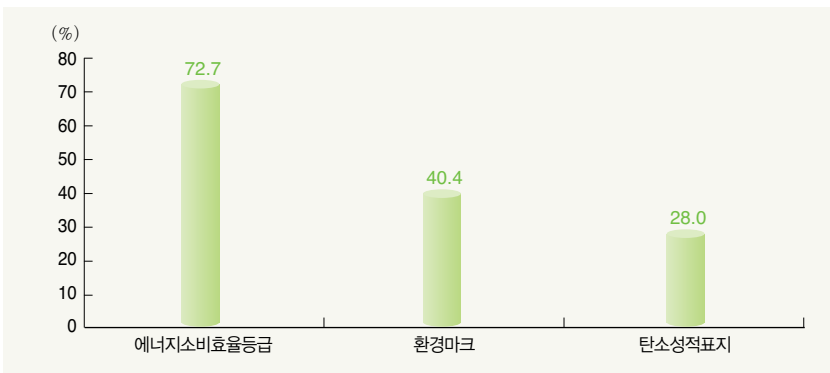
도시민 과반수가 친환경 상품 즐겨 구매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도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7월5일부터 16일까지 「녹색소비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의 과반수인 54.8%가 친환경 상품을 즐겨 구매한다고 답했다. 친환경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이라는 응답이 83.2%였다. 이어 '환경개선 캠페인 동참'이 11.3%였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각각 4.7%, 0.4%로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소비자의 92.4%는 녹색성장을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011 녹색생활지표

그림 10-1 | 친환경상품 관련 표지(마크) 인지도 조사



자료 : 통계청, 「녹색생활지표 조사」 2011

친환경상품 관련 표지(마크)



통계청이 2011년 5월 실시한 녹색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관련 표지(마크)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⁵⁾로 인지도가 72.7%였다. ‘환경마크’⁶⁾ 인지도는 40.4%, ‘탄소성적표지’⁷⁾ 인지도는 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리필제품(세제류)이 82.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71.3%는 비싼 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친환경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저탄소 제품 등의 구매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992년부터 시행. 제품을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등급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6) 환경마크: 환경마크 인증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물품의 생산-운송-보관-구매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₂)로 환산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 10-2 | 친환경상품 구매 노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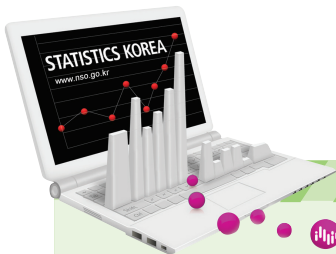
(단위 : %)

	환경마크 인증제품	저탄소 제품	에너지 절약형제품	친환경 농산물	지역 농산물	식품첨가물 확인 후 구매	리필제품 (세제류)
계	32.2	31.1	71.9	56.9	46.6	56.1	82.3
도시(동부)	33.7	32.4	73.6	57.6	43.2	58.3	84.0
농촌(읍면부)	25.4	25.5	63.9	53.7	62.0	46.3	74.5
남자	33.2	34.0	71.8	51.5	42.7	48.9	-
여자	31.3	28.4	71.9	62.0	50.3	62.9	-
20~29세	30.5	30.8	69.7	50.9	32.4	58.9	-
30~39세	36.4	34.4	83.5	62.7	41.7	66.9	-
40~49세	44.1	41.1	83.1	65.8	51.1	64.0	-
50~59세	34.9	33.9	76.8	60.5	55.6	56.2	-
60세 이상	13.9	14.8	45.0	42.7	50.0	34.1	-

자료 : 통계청, 「녹색생활지표」 2011

03

에너지 소비



2011년 8월 16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지식경제부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만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의 에너지 절감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3,876TOE를 절감한 인천국제공항이 에너지 절감량 1위 건물에 선정됐다.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 ◎ kl, t, m³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이다.
- ◎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m³에 해당된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 총 에너지 소비량을 총인구(추계연앙인구)로 나눈 양으로,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TOE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에 1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원 단위 (Energy Intensity)

- ◎ 한 국가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GDP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된다.

1차 에너지

- ◎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지열 등을 말한다.

최종에너지

- ◎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1차 에너지 중 직접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그 자체,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그 산출물로서, 일명 2차 에너지라고 부른다.

에너지 소비 현황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2.17TOE에서 2010년 5.37TOE로 20년도 안 돼 2배 이상 불어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높은 원인은 단위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가 서비스산업보다 3배 이상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석유,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주택 및 가전제품의 대형화 선호 및 깨끗하고 편리한 고급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여겨진다.

표 10-3 | 에너지 소비관련 주요 지표

(단위 : %, TOE/백만원, TO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e	2012e
경제성장률(%)	4.0	5.2	5.1	2.3	0.3	6.2	4.0	4.3
총에너지소비증가율(%)	3.8	2.1	1.3	1.8	1.1	7.8	3.1	3.3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0.264	0.256	0.247	0.246	0.248	0.252	0.249	0.247
1인당 소비(TOE)	4.75	4.83	4.88	4.95	4.99	5.37	5.52	5.69

주 :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전망」 2011.09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형태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LNG, 원자력 등 고급 청정에너지의 소비 점유율은 증가하고, 석유소비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석유의 공급률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LNG의 경우 지난 10년간 공급률이 2배로 늘었다. 지난 1990년 전체 에너지 중 석유의 점유율은 53.8%였지만 2009년에는 42.1%로 떨어졌다.

표 10-4 | 에너지 수급현황

(단위 : 백만TOE)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차 에너지	계	198.4	208.6	215.1	220.2	228.6	233.4	236.5	240.8	242.2	260.5
	석탄	45.7	49.1	51.1	53.1	54.8	56.7	59.7	66.1	68.6	76.0
	석유	100.4	102.4	102.4	100.6	101.5	101.8	105.5	100.2	102.3	104.4
	LNG	20.8	23.1	24.2	28.4	30.4	32.0	34.7	35.7	32.3	40.8
	원자력	28.0	29.8	32.4	32.7	36.7	37.2	30.7	32.4	31.8	31.7
	기타	3.5	4.3	5.0	5.4	5.3	5.7	5.9	6.4	7.2	7.6
최종 에너지	계	153.0	160.5	164.0	166.0	170.9	173.6	181.4	182.6	182.8	195.0
	산업부문	85.2	89.2	90.8	93.0	94.4	97.2	104.3	106.5	107.0	115.6
	수송부문	31.9	33.8	34.6	34.6	35.6	36.5	37.1	35.8	35.5	36.6
	가정·상업	32.9	34.3	35.0	34.8	36.9	36.0	35.9	36.2	36.0	38.2
	공공·기타	3.0	3.2	3.6	3.6	4.1	3.8	4.1	4.1	4.3	4.6

2010년은 잠정치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 변화된 에너지 소비 추세를 알 수 있는 에너지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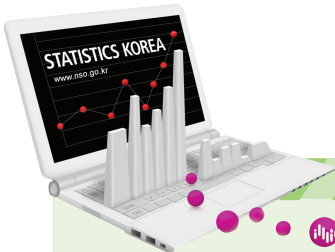
에너지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수송·가구 등 에너지수요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 및 변동의 파악에 주목적을 두고, 1981년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3년마다 시행하여 왔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2011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표본을 2008년 조사(1만 9,933개)에 비해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대형건물 등 5개 부문으로 대폭 상향된 3만6천 개를 선정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및 변화된 에너지 소비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에너지총조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에너지 수급전망 수립 및 변화된 에너지 소비추세에 대응하는 정책개선에 활용된다.

04

교통사고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김새롬씨(23)는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 가정에 봉사
를 다닌다. 김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순간의 교통사고가 피해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지 알게 되었다. 교통사고 피해로 고통 받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교통사고

-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한다. 1984년 통계부터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여 물적 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용어

- ◎ 대형교통사고 :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교통사고
- ◎ 부상사고 : 교통사고로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사망 : 교통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여기서의 사망과 보건부문에서 나오는 사망원인(선행사인에 의한 사망)과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 제1당사자 :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많은 사람을 의미함.

$$\text{교통사고 발생률(\%)} = \left\{ \frac{\text{사고발생건수}}{\text{운전면허소지자}} \right\} \times 100$$

$$\text{교통사고 치사율(\%)} = \left\{ \frac{\text{교통사고 사망자수}}{\text{교통사고 발생건수}} \right\} \times 100$$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은 1976년 처음 작성된 후 매년 교통사고 조사보고서(교통사고 통계원표)를 집계해 발표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경찰청에서 매년 6~8월 중 발간되는「교통사고통계」책자를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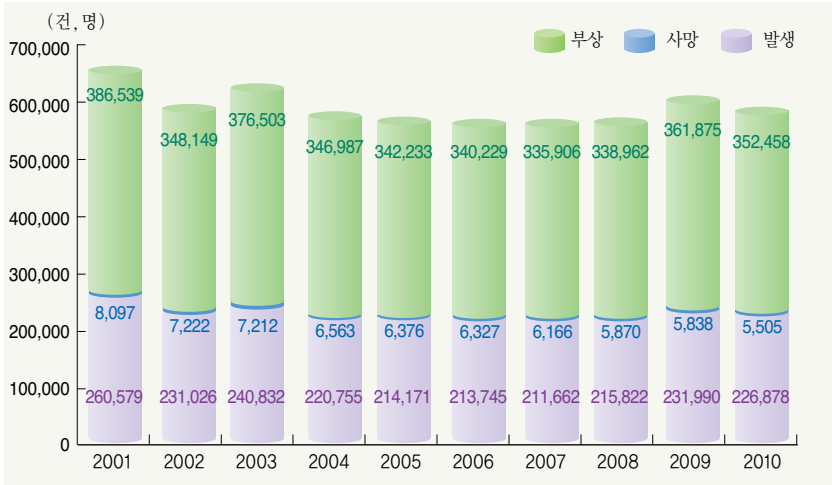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교통사고처리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다.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하는 것과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우리나라의 2010년 교통사고는 22만6,878건이 발생해 5,505명이 사망하고 35만2,458명이 부상했다. 2009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수는 5,112건이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333명, 부상자수는 9,417명이 감소했다.



그림 10-2 |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



자료: 경찰청, 교통관리시스템

우리나라는 1991년(13,249명)을 정점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6,563명)을 기점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감기에 진입했다. 주요 선진국이 반감기에 접어든 기간이 대체로 20여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년 만에 반감기에 진입한 것이다.

표 10-5 | 주요 선진국 반감기 소요연수

(단위: 년)

구분	한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반감기	13	21	25	27	28	30	30	33	34

자료: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교통조사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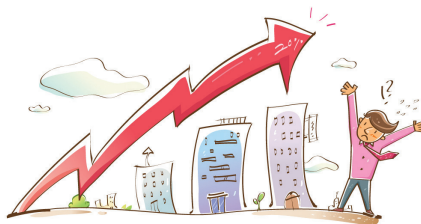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범규준수의식 향상으로 사망자 감소추세는 이어가고 있으나 OECD 주요 가입국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노력이 필요하다.

표 10-6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교통사고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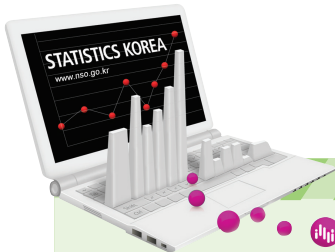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2.1	4.3	5.4	12.3	6.9	6.7	4.3	4.7	12.1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9	0.8	0.9	1.4	1.2	1.0	0.7	0.7	1.3
보행중 교통사고 구성비	36.4	22.3	14.6	11.8	11.8	13.2	11.3	32.8	17.8

자료 :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교통조사계, 2008



05

주요범죄 발생건수



지난 2005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온 이수진씨(여, 29)는 혼자 살기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일하고 집으로 가야 할 때면 꼭 경보기를 챙긴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서울이라는 통계 결과를 최근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후 항상 조심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

- ① 살인죄 가운데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②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와 그 상습범·미수범
- ③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④ 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 및 치사·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강력범죄의 증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216만 8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하면 절도, 살인, 강간 발생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표 10-7 | 우리나라 범죄발생 현황

(단위 : 천건, 건, %)

	총범죄 발생건수 (천건)		형법범 (천건)		주요 범 죄(건)				
	10만명당 (건)	10만명당 (건)	10만명당 (건)	10만명당 (건)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1989	1,078	2,540	242	571	100,600	578	4,085	5,102	25,629
1999	1,733	3,660	462	977	82,584	984	4,712	6,410	43,037
2004	2,081	4,283	827	1,702	154,850	1,082	5,762	11,105	49,083
2008	2,189	4,420	898	1,812	223,264	1,120	4,827	15,094	194,871
2009	2,168	4,356	993	1,995	256,680	1,390	6,379	16,156	198,210
증감률 (2009/2008)	-1.0	-1.4	10.7	10.1	15.0	24.1	32.2	7.0	1.7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범죄분석

대검찰청은 매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작성되는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범죄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1963년 3월부터 발간되어 온 「범죄분석」은 제131호부터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1226-7716을 부여받는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한 범죄 분석 통계집이다. 2010년 10월 제143호부터는 국민들의 범죄 통계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통계를 그래프, 지도, Q&A 등을 사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 「범죄분석」전문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외국인 범죄



박신영씨는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일한다. 얼마 전 바로 옆 전자회사에서 일하던 몽골인 노동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인 상사를 둘이서 폭행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그 상사로부터 말을 못 알아 듣고 멍청하다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우발적으로 이런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외국인 범죄

- ◎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범죄 5년 새 2배 이상 증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범죄는 2006년 1만2,657 건에서 2010년 2만2,543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사건은 72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다. 폭력 사건도 2,483건에서

표 10-8 | 최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328	5,221	6,144	9,103	9,042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전년대비 증감,%)	25.9	20.6	17.7	48.2	-0.7	40	14.8	42	11.6	-3.4
살인	40	47	32	60	42	72	54	85	103	83
강도	113	100	137	157	124	107	118	133	260	221
강간	34	41	49	52	62	68	114	114	126	156
절도	590	599	630	825	821	971	1,213	1,343	2,001	1,741
폭력	1,380	1,865	2,071	2,424	1,919	2,483	3,369	4,940	5,322	5,885
지능범	589	586	834	1,965	3,340	6,229	5,685	7,472	4,792	4,487
성폭력	44	29	49	40	32	52	62	64	72	99
마약류	82	99	120	218	152	73	231	694	778	720
기타	1,456	1,873	2,222	3,362	2,550	2,602	3,678	5,778	9,890	9,151

자료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5,885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가장 많은 죄종은 지능범(불법 입출국 관련 문서 위변조, 보이스 피싱 등)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마약류 범죄가 2008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10년까지 폭력, 지능범, 절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범죄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기 쉬운
사회지표해설



XI 260 >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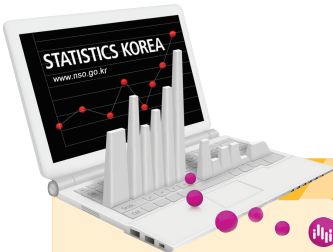


11장 | 문화와 여가

01 도서관 및 이용자 수	260
02 신문 구독	264
03 TV 시청인구비율 및 시청시간	267
04 영화 스포츠 공연	271
05 해외여행	275

01

도서관 및 이용자 수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주부 이빛나씨(35)는 요즘 도서관에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 오금공원 내에 위치한 송파도서관에서 연중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고 각종 강연회는 물론 영화 상영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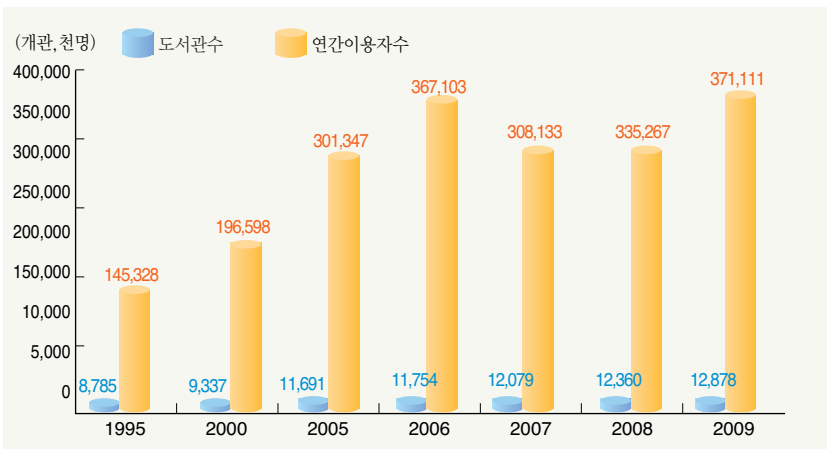
장서수

- 국내서와 국외서를 포함한 장서수.(비도서자료는 제외)

도서관 수와 이용자 급증

1995년 전국에 8,785개에 불과하던 도서관 수는 2009년 1만2,878개로 1.5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용자수 또한 1995년 14만5,328명에서 2009년 37만1,11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11-1 | 도서관 수 증가 추이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통계」, 2010

XI
문화와
교육

표 11-1 |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관, 명, 권, 천권, 천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도서관수	462	471	487	514	564	600	644	703	759
1관당 인구수	104,394	102,732	99,761	93,957	86,865	82,115	76,926	70,801	66,556
1인당 장서수 (인쇄,비도서)	0.64	0.71	0.79	0.94	1.01	1.08	1.16	1.31	1.4
장서수 (인쇄,비도서)	32,251	35,850	40,755	45,411	49,343	53,053	58,365	65,366	70,801
이용자수	97,606	117,611	133,208	154,712	174,833	188,382	204,919	235,140	258,3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현황」 각년도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0년 기준 전국에 759개로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6만6,556명이다. 이는 독일의 7배(0.9만명), 영국 5배(1.3만명), 미국 2배(3.2만명), 일본 1.6배(4만명)에 달하는 숫자로 아직까지 도서관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 1인당 장서(인쇄도서)수 역시 우리나라는 1.34권으로 미국(2.80권), 영국(1.63권), 독일(1.49권), 일본(3.00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4~5년간 공공도서관 건립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을 확충해 1관 당 인구수를 5만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표 11-2 |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단위 : 개관, 천명, 명, 천권, 권)

구분	도서관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장서(인쇄)수	인구 1인당 장서(인쇄)수	기준년도
한국	759	50,516	66,556	67,749	1.34	2010
미국	9,221	302,864	32,845	816,099	2.80	2008
영국	4,517	61,381	13,589	99,748	1.63	2008~2009
독일	8,408	82,370	9,797	123,000	1.49	2009
일본	3,164	127,692	40,358	386,000	3.00	2009

자료 :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미국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08

영국 - LISU(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독일 - 독일 DBS:German Library Statistics, 일본 - 일본도서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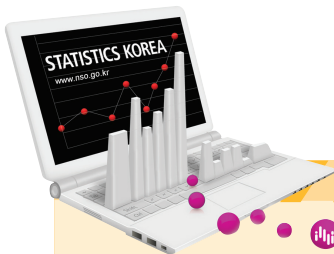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도서관

도서관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전통적인 학습공간에서 주민에게 영화 관람, 문화 강좌 같은 즐길 거리를 내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형극, 음악회, 연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도서관도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는 다양한 무료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외국어 강좌부터 만들기, 발레, 독서 지도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만족할 수 있는 강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02

신문 구독



회사원인 신문아씨(35)는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아버지가 구독한 일반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뉴스를 쉽게 볼 수 있게 된 지금은 신문 구독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속보를 언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인구

- ◎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정기간행물

-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신문

- ◎ 컴퓨터 및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

인터넷 신문 구독자의 증가

신문 구독은 정기 구독뿐만 아니라 비정기 구독을 포함하여 직접 사서 보지 않는 회독(직장, 도서관, 타인의 것 등)도 구독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3세 이상 인구 중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 신문을 보는 비율은 75.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82.7%)가 여자(68.7%)보다 높았으며, 가구당 월소득이 높을수록 신문을 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문을 보는 사람은 2009년 74.3%에서 2011년 67.8%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인터넷 신문을 보는 사람은 2009년 73.1%에서 2011년 77.9%로 증가했다. 인터넷 신문을 보는 사람이 일반 신문을 보는 사람 수를 앞지른 것이다.

신문 보는 빈도는 일반신문의 경우 ‘거의 매일’ 보는 사람이 48.3%, ‘1주일에 1~2회’ 25.3%, ‘1주일에 3~4회’ 19.5%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은 ‘거의 매일’ 보는 사람이 48.3%, ‘1주일에 3~4회’가 23.2%였다.

표 11-3 | 신문인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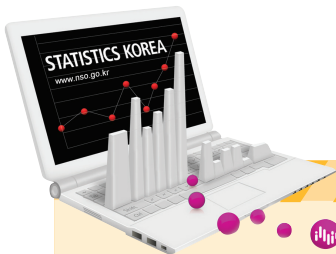
	계	신문 ¹⁾							인터넷 신문					
		보는 사람	일반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09 ²⁾	100.0	71.4	74.3	100.0	44.9	20.3	24.2	10.6	73.1	100.0	46.4	24.1	21.0	8.5
2011	100.0	75.6	67.8	100.0	39.6	19.5	25.3	15.7	77.9	100.0	48.3	23.2	20.0	8.6
지역별														
도시(동부)	100.0	79.2	68.0	100.0	40.8	19.6	24.4	15.2	78.8	100.0	48.7	23.1	19.5	8.6
농어촌(읍면부)	100.0	59.2	66.9	100.0	32.2	18.5	30.8	18.5	72.3	100.0	45.5	23.5	22.7	8.3
성별														
남 자	100.0	82.7	72.4	100.0	44.3	19.6	23.2	12.9	77.9	100.0	54.1	21.6	17.4	6.9
여 자	100.0	68.7	62.5	100.0	33.2	19.2	28.1	19.5	78.0	100.0	41.5	24.9	23.0	10.6
가구별														
100만원 미만	100.0	38.5	68.9	100.0	30.9	17.5	31.1	20.6	58.1	100.0	43.7	23.4	22.5	10.4
100-200만원 미만	100.0	68.3	64.5	100.0	32.4	18.7	30.3	18.6	71.6	100.0	43.6	25.7	21.1	9.5
200-300만원 미만	100.0	82.4	65.1	100.0	36.8	21.5	26.3	15.4	78.2	100.0	46.6	23.0	21.7	8.7
300-400만원 미만	100.0	87.2	68.0	100.0	42.3	19.6	23.3	14.7	82.6	100.0	46.8	23.8	20.4	8.9
400-500만원 미만	100.0	90.2	70.0	100.0	41.2	20.8	23.4	14.6	83.8	100.0	51.5	22.7	18.2	7.6
500-600만원 미만	100.0	91.8	71.6	100.0	48.8	18.5	19.7	13.1	85.2	100.0	55.1	21.1	15.3	8.4
600만원 이상	100.0	92.9	76.8	100.0	54.1	15.9	18.5	11.5	84.7	100.0	58.0	19.3	16.5	6.2

주 : 1)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2)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

03

TV 시청인구비율 및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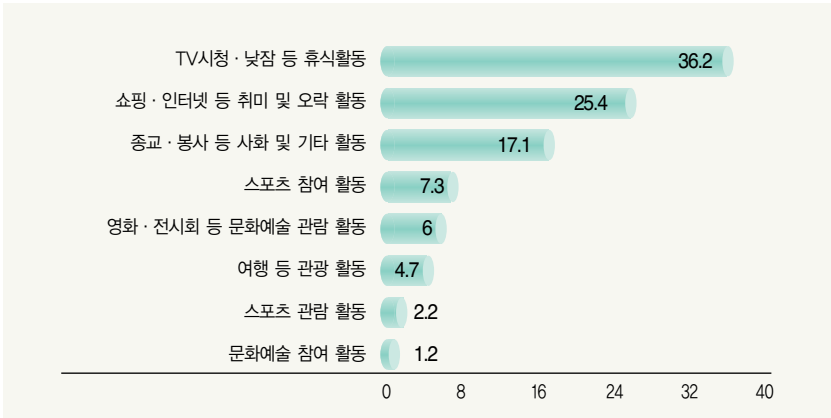
TV 오락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시영씨(23)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대의 시트콤을 보고,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시작 되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챙겨 본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평일에 일 때문에 놓쳤던 드라마를 재방송해주는 때문에 TV 앞을 떠나지 않는다.

TV시청인구 비율

◎ 조사대상인구중 1주간에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한 사람의 비율.

그림 11-2 | 여가활동 유형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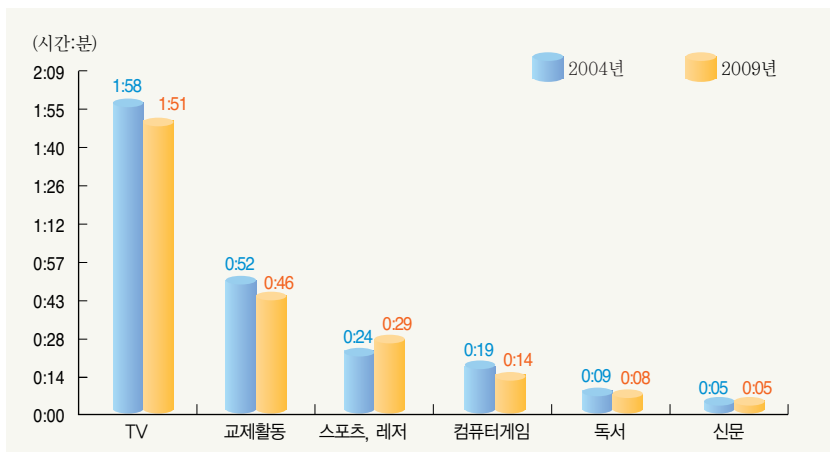
국민 여가활동 유형 1위는 TV 시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5일부터 16일까지 15세 이상 남녀 3,051명 대상으로 국민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가활동 유형 중 TV 시청 · 목욕 등의 휴식 활동이 36.2%로 가장 많았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은 하루 중 1시간51분을 TV를 보며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

다. 200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가시간이 12분 정도 줄긴 했지만 여가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은 TV 시청 시간이었다.

그림 11-3 | 주요여가생활 사용분포



자료 : 통계청, 「2009 국민생활시간조사」 각년도

TV 시청인구비율도 늘어나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7년 95.9% 대비 2009년 96.4%로 TV 시청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주당 TV 시청시간도 2007년 21.5%에서 2009년 21.9%로 0.4%p 상승했다. 2007년과 2009년의 TV 시청인구 비율과 주당 TV 시청시간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 TV 시청인구비율 및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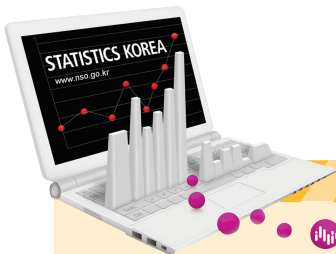
(단위 : %, 시간)

	TV 시청 인구비율				주당 TV 시청시간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07								
전국	95.9	90.9	90.4	91.7	21.5	2.8	3.5	3.9
동부	95.8	90.4	90.0	91.4	21.4	2.8	3.5	3.9
읍면부	96.5	93.5	92.4	93.3	22.1	3.0	3.5	3.8
남자	95.8	90.3	90.1	91.7	20.3	2.6	3.4	3.8
여자	96.0	91.5	90.7	91.8	22.7	3.0	3.7	4.0
2009								
전국	96.4	90.4	89.5	91.1	21.9	2.9	3.6	3.9
동부	96.2	89.8	88.8	90.7	21.9	2.8	3.7	4.0
읍면부	97.1	93.3	91.4	92.8	21.8	2.9	3.5	3.7
남자	96.2	89.4	89.1	91.4	20.3	2.6	3.5	3.8
여자	96.8	91.4	89.8	90.8	23.3	3.1	3.8	4.1
15~19세	93.7	72.5	85.1	89.0	18.0	2.2	3.2	3.5
20~29세	94.4	86.6	85.8	88.2	20.6	2.7	3.5	3.8
30~39세	96.7	90.2	88.9	90.9	20.6	2.6	3.6	4.0
40~49세	96.3	91.2	89.4	90.2	20.0	2.6	3.4	3.8
50~59세	97.6	94.7	91.2	92.3	22.1	2.9	3.6	3.9
60세이상	98.1	97.4	95.0	94.7	27.3	3.7	4.2	4.4
초졸이하	97.4	95.8	94.5	94.4	26.2	3.6	4.0	4.2
중졸	96.3	84.6	89.3	91.9	22.3	2.9	3.6	4.0
고졸	96.7	92.4	89.1	90.7	22.0	2.9	3.6	4.0
대졸이상	95.6	87.9	87.4	89.4	19.2	2.4	3.4	3.7

자료 : 통계청, 「2009 사회조사」

04

영화 스포츠 공연



김혁빈씨(31)는 프로야구 팬이다. 그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을 빼놓지 않고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김씨가 응원하는 프로야구단이 5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해 그에겐 더 뜻깊은 해가 되었다. 김씨는 내년 시즌을 기대하며 대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팬 사인회에도 참가했다.

여가활동

- ◎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행해지는 활동.
- ◎ 여가활동은 크게 4가지(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관광활동, 기타 활동)로 분류되며 각 활동은 제공되는 활동을 관람이나 감상하느냐 직접 참여하느냐의 여부로 구분된다.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자 증가

통계청 「2011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 중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부분이 2007년 8.5%에서 2009년 11.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을 한 사람도 2004년 51%에서 2009년 55%로 상승했다. 음악 및 연극, 무용, 영화 관람을 위해 공연장을 이용한 사람은 2009년 89.5%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자는 2009년 32.5%였다. 즉 공연장이 전시장에 비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단위: %)

	계	관람함		음 악 · 연주회		연 극 ·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9	100.0	55.0	7.5	23.4	2.3	23.5	2.2	2.0	3.3	81.5	5.7	25.0	2.2	18.3	2.4	20.5
2011	100.0	58.6	8.4	25.2	2.5	25.0	2.3	2.6	2.6	81.8	6.1	26.4	2.5	20.7	2.4	24.3	4.1	
지 역 별	도세(동부)	100.0	62.1	8.6	25.2	2.5	25.7	2.4	2.7	2.6	83.0	6.2	26.4	2.5	21.2	2.4	24.9	4.2
	농어촌(읍면부)	100.0	42.7	7.0	25.2	2.5	20.3	2.1	2.0	2.9	73.8	5.4	26.2	2.4	17.3	2.3	20.4	4.1
성 별	남자	100.0	58.0	8.2	21.4	2.5	19.6	2.1	1.9	2.4	77.8	6.0	24.3	2.5	16.8	2.4	34.2	4.4
	여자	100.0	59.2	8.7	28.7	2.6	30.2	2.4	3.3	2.8	85.5	6.1	28.4	2.5	24.4	2.5	14.9	3.6
연 령 별	13-19세	100.0	81.9	8.3	23.7	2.2	21.9	1.9	3.1	1.9	87.9	6.3	25.8	2.3	20.6	2.2	20.5	3.7
	20-29세	100.0	81.8	11.6	24.9	2.9	31.3	2.7	2.8	3.2	89.8	8.6	19.3	2.6	21.1	2.6	27.2	4.4
	30-39세	100.0	74.3	8.3	20.8	2.3	25.9	2.6	2.2	3.2	83.0	5.7	31.4	2.7	21.1	2.3	26.2	3.9
	40-49세	100.0	62.6	7.4	26.7	2.5	21.7	2.1	2.7	2.3	81.6	5.0	28.4	2.5	20.2	2.4	24.3	3.9
	50-59세	100.0	44.8	6.4	31.3	2.5	24.1	2.1	2.7	2.3	71.6	4.0	24.8	2.2	20.3	2.5	23.7	4.8
	60세 이상	100.0	18.2	6.0	29.2	3.3	21.6	1.9	2.5	2.5	54.6	4.2	29.2	2.7	20.6	2.8	17.9	4.9

주 : 2009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한국영화의 선전

한국영화는 1994년에 52편을 상영됐다. 그 후 2000년 62편, 2006년 108편, 2010년 140편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영화의 상영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외국영화는 1994년 238편에서 2000년 277편, 2006년 237편, 2010년 286편을 상영해 상영편수 증감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의 관람객수와 점유율 또한 상영편수 증가와 함께 늘어났다.

1994년 한국영화의 관객수는 993만 명, 점유율은 20.5%였고, 외국영화는 관객수 3,842만 명, 점유율 79.5%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한국영화 관객수가 4,481만 명, 점유율 50.1%를 기록하며 역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영화의 1인당 관람 횟수도 2001년부터 년 1회를 넘어섰다.

표 11-6 | 영화 상영 편수 및 관객 수

(단위 : 편, 만명, %, 회)

연 도	한국영화(Korean Film)				외국영화(Foreign Film)			
	상영편수 ¹⁾	관객수	점유율 ²⁾	1인당 관람횟수	상영편수 ¹⁾	관객수	점유율 ²⁾	1인당 관람횟수
1994	52	993	20.5	0.2	238	3,842	79.5	0.9
1995	62	944	20.9	0.2	307	3,569	79.1	0.8
1996	55	976	23.1	0.2	320	3,244	76.9	0.7
1997	60	1,212	25.5	0.2	271	3,540	74.5	0.8
1998	43	1,259	25.1	0.3	244	3,759	74.9	0.8
1999	42	2,172	39.7	0.5	233	3,300	60.3	0.7
2000	62	2,271	35.1	0.1	277	4,191	64.9	0.9
2001	52	4,481	50.1	1.0	228	4,455	49.9	0.9
2002	82	5,082	48.3	1.1	192	5,431	51.7	1.1
2003	65	6,391	53.5	1.3	175	5,556	46.5	1.2
2004	74	8,019	59.3	1.7	194	5,498	40.7	1.1
2005	83	8,544	58.7	1.8	215	6,008	41.3	1.2
2006	108	9,791	63.8	2.0	237	5,549	36.2	1.1
2007	112	7,939	50.0	1.6	280	7,938	50.0	1.6
2008	108	6,354	42.1	1.3	272	8,729	57.9	1.8
2009	118	7,641	48.7	1.5	243	8,055	51.3	1.6
2010	140	6,829	46.5	1.4	286	7,851	53.5	1.6

주 : 1) 전년도 이월작, 재개봉작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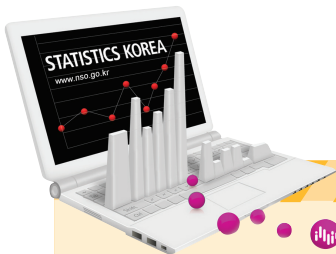
2) 점유율 = 한국(외국)영화 관객수 / 총관객수 × 10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년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0

05

해외여행



이수영씨(29)는 올해 휴가엔 단짝 친구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다. 평소 홍콩에 가보고 싶었던 그는 친구와 매월 여행 자금을 조금씩 모아 여행을 준비했다. 주말 및 휴일 여가시간에 틈틈이 여행 계획을 세워 알찬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씨는 여행에서의 좋은 추억이 직장 생활에 활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해외로 여행을 가고자 준비 중이다.

내국인 출국자수 (해외여행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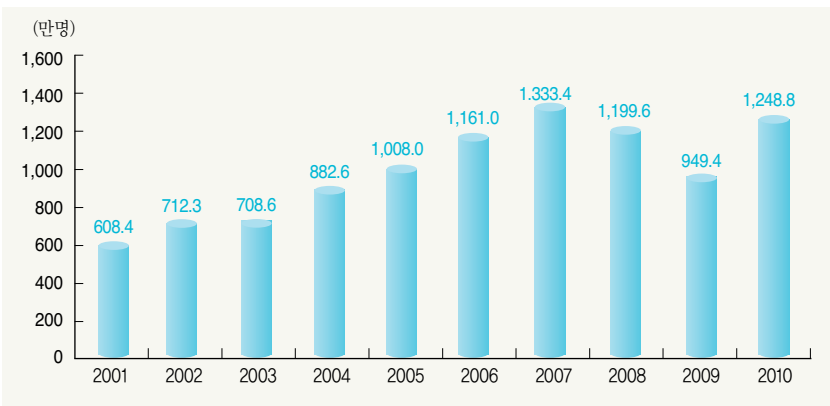
◎ 총 내국인 출국자에서 WTO(세계관광기구) 기준에 의거, 재외국민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 집계되는 승무원을 산입한 수치.

$$\text{내국인 출국자수} = \text{총내국인출국} - \text{재외국민} + \text{승무원}$$

2010년부터 다시 증가

해외여행객은 2007년 1,333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고유가 및 원화 가치 하락과 신종플루, 경제 불안 등으로 2008년과 2009년 여행객이 감소하였다. 그러다 2010년부터 해외여행 감소의 주요 원인이 해소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림 11-4 | 내국인 출국자 추이



자료 : 한국관광공사, 「내국인 출국」 각년도

전세계 내국인 송출 1위는 홍콩, 2위 독일, 3위 영국이며,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6위, 일본은 1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200만 명(2008년 기준)의 해외여행객수로 세계 2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1-7 | 해외여행자수

(단위 : 만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인출국	608.4	712.3	708.6	882.6	1,008.0	1,161.0	1,333.4	1,199.6	949.4	1,248.8
세계순위	22	20	19	19	-	19	18	20	-	-
전년대비 증가율(%)	10.5	17.1	-0.5	24.5	14.2	15.2	14.8	-10	-20.9	31.5

자료 : 한국관광공사, 「내국인 출국」 각년도

주 : 세계 순위는 세계관광기구(UN WTO)의 국가별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출한 대략적인 순위로 국가별 통계 기준 및 운용체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참고 순위로만 활용해야 한다.

여행목적 1위는 관광

최근 1년간의 해외여행자 비율은 2000년 5.9%, 2007년 13.9%, 2009년 13.6%, 2011년 15.9%를 기록했다. 또 2011년 해외여행의 목적은 관광이 72.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업무(18.7%), 가사(12.9%), 교육((6.9%)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10년 시행한 온라인 표본조사에 의하면 해외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일본이었으며, 2위는 중국, 3위는 태국으로 나타났다.

표 11-8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복수응답)

(단위 : %, 회)

	계	해 외 여행자	관광		가사	업무		교육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2009	100.0	13.6	71.5	1.4	12.2	1.9	22.5	2.6	5.2	1.1
	2011	100.0	15.9	72.1	1.4	12.9	2.2	18.7	2.7	6.9	1.4
지 역	도시(동 부)	100.0	16.9	72.2	1.4	12.8	2.3	18.9	2.8	7.0	1.4
	농어촌(읍면부)	100.0	11.0	71.5	1.5	13.3	2.0	17.6	1.9	6.6	1.4
성 별	남 자	100.0	15.9	63.9	1.4	10.4	2.2	30.2	2.7	6.8	1.4
	여 자	100.0	15.8	80.3	1.5	15.4	2.2	7.6	2.7	7.0	1.4
연 령	13~19세	100.0	9.1	67.9	1.4	11.2	2.5	4.0	1.8	26.5	1.1
	20~29세	100.0	17.9	72.8	1.4	10.5	2.0	12.7	1.9	15.4	1.4
	30~39세	100.0	17.8	68.3	1.5	11.2	2.4	29.1	2.9	3.9	1.7
	40~49세	100.0	16.9	63.7	1.4	14.5	2.6	30.5	2.9	4.2	1.8
	50~59세	100.0	19.6	79.2	1.5	13.0	2.0	14.4	2.5	3.6	1.5
	60세 이상	100.0	11.8	81.4	1.4	16.6	1.7	5.3	2.8	1.5	1.3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주 : 2009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표 11-9 | 해외여행 상위 5위 방문국 및 도시

(단위 : %)

순위	방문국	방문도시
1위	일본(38.2)	도쿄(23.7)
2위	중국(27.0)	오사카(15.7)
3위	태국(12.5)	베이징(14.3)
4위	홍콩(10.9)	상하이(12.7)
5위	필리핀(10.9)	규슈/오키나와(8.1)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0년 국민 해외여행 실태 파악 온라인 조사 결과」 20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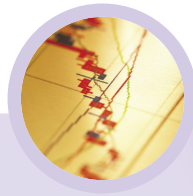
주 : 2010년 1~9월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전국 15세 이상의 내국인(해외교포, 유학생, 승무원 제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연령별 비례할당으로 2000명의 표본을 추출)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알기쉬운
사회지표해설



XII

282 > 298



12장 | 사회통합

01 부패인식지수	282
02 종교 인구	287
03 기부	290
04 자원봉사	295

01

부패인식지수



문구류를 제조 및 납품하는 사업을 해온지 20년이 넘는 한재호씨(49)는 최근 정부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면서 새삼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인맥이나 접대여부가 납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요즘은 모든 입찰 시스템이 공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므로 최종 입찰까지 담당 공무원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부패인식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 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 ◎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산출방법

- ◎ 여러 국제평가기관에서 국내외 기업경영자, 국가분석전문가(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본다.
- ◎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1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0.5%, 평균 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10여년간 4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에야 5.0점으로 부패인식지수에서 갓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로 진입하였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5.1점, 2008년에는 5.6점으로 상승하였다가 2009년 5.5점에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는 5.4점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은 27위로 경제력에 비해 여전히 낮은 등급에 머물렀다. 뉴질랜드가 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 9.4점, 싱가포르 9.2점, 일본 8.0점, 미국 7.1점 등이었다. 2010년 한국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던 대만(5.8)과 마카오(5.0)는 모두 조금씩 상승해 각각 6.1점, 5.1점을 받았다. 2011년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아랍 국가들은 4점대 이하를 받았다.

표 12-1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점수	4.0	4.2	4.5	4.3	4.5	5.0
순위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백분율	53.3	46.1	39.2	37.6	32.2	25.2
OECD 순위	27/30	24/30	24/30	24/30	24/30	22/30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점수	5.1	5.1	5.6	5.5	5.4	5.4
순위	42/163	43/180	40/180	39/180	39/178	43/183
백분율	25.8	23.9	22.2	21.6	21.9	23.5
OECD 순위	23/30	25/30	22/30	22/30	22/30	27/34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2011.12.

표 12-2 | OECD 주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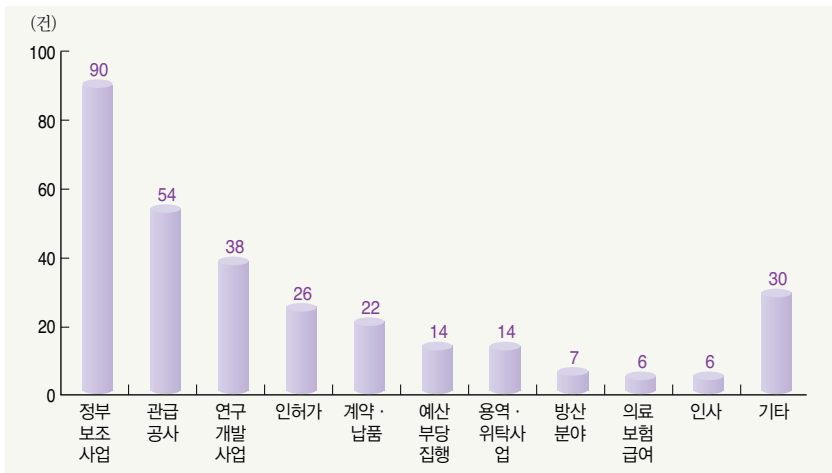
구분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1	1위 (9.5점)	2 (9.4)	4 (9.3)	16 (7.8)	24 (7.1)	25 (7.0)	31 (6.2)	41 (5.5)	43 (5.4)	69 (3.9)	80 (3.4)
2010	1위 (9.3점)	1 (9.3)	4 (9.2)	20 (7.6)	22 (7.1)	25 (6.8)	30 (6.1)	41 (5.3)	39 (5.4)	67 (3.9)	78 (3.5)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2011.12.

공직부패 유형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10월 발표한 ‘출범이후 부패신고 사건 처리 및 비리공직자 처벌 집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월 출범 이후 부패신고로 형사 처분을 받거나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가 1,18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2-1 | 부패신고 사건 분야별 처리 현황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이후 부패신고 사건 처리 및 비리공직자 처벌 집계현황」 2011

또한 2008년 2월 이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수사의뢰한 부패신고 사건은 모두 307건이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농림·보건복지 등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급공사의 공사비 편취 54건(18%), 국책연구개발사업 분야 참여 연구원들의 지원금 횡령 및 편취 38건(12%), 건축 등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 26건(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도 조사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일반 국민·공무원 및 주한 외국인 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부패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12-3 | 부패인식도

(단위 : %, 점)

		2004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9	2010
		07월	09월	07월	11월	07월	11월	10월	10월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59	60.8	57.1	55.9	56.5	57.2	57.1	56.6	54.1
	기업인	26	-	-	32.8	-	33.3	40.9	32.3	40.9
	외국인	50.5	45.5	-	36.9	-	45.5	50.5	35	38
패인식 점수 (10점 만점)	일반국민	3.14	2.97	3.24	3.29	3.39	3.28	3.25	3.26	3.49
	기업인	5.18	-	-	4.51	-	4.65	4.18	4.63	4.06
	외국인	3.72	3.97	-	4.64	-	4.16	4.05	4.58	4.6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조사」 각년도

02

종교 인구



이민서씨(47)는 불교 신자이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녔다. 이씨는 시간이 날 때면 아이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며 참선 및 다도를 체험하고 사찰음식을 맛본다. 이씨의 아내는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절에서 100일 기도를 올린다.

종교인구 비율

- ◎ 사회통계조사 결과로서 15세이상 인구 중 종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 종교인구의 기준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며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을 한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교활동 참여도

- ◎ 15세 이상 인구 중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종교집회 참여빈도.
- ◎ 종교집회의 범위는 혼자서 기도하러 가는 것 등을 제외하고 2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가지거나 정기예배, 특별예배, 법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명 중 1명, 종교 갖고 있어

「2010 한국의 사회지표」 내 종교인구 분포(2005) 지표를 보면 종교인구가 53.1%를 기록, 1999년 53.6%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종교별 인구는 불교 1,072만6,463명, 개신교 861만6,438명, 천주교 514만6,147명, 원불교 12만9,907명, 유교 10만4,575명, 천도교 4만 5,835명, 그 밖의 종교 19만7,635명으로 불교 인구가 가장 많다. 이 수치는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것이다.

종교인 수 파악은 통계청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표 12-4 | 종교별 교세현황

(단위 : %, 점)

종교별	구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백명)	신도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불교		103	21,935	49,408	8,059,624	10,321,012	10,726,463
개신교		124	58,404	94,651	6,489,282	8,760,336	8,616,4382
천주교		1	1,511	14,597	1,865,397	2,950,730	5,146,147
유교		1	1,049	300	483,366	210,927	104,575
천도교		1	108	1,500	26,818	28,184	45,835
원불교		1	561	1,886	92,302	86,823	129,907
대종교		1	22	22	11,030	7,603	3,766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75,477	232,209	197,635
계		270	90,300	363,816	17,203,296	22,597,824	24,970,76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9

- *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08년 12월 20일까지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집계 한 것임.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가 대다수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은 모두 신자가 증가했다. 1985년 806만명이었던 불교 인구는 2005년 1,073만명으로, 649만명이었던 개신교는 862만명으로, 187만명이었던 천주교는 515만명으로 늘어났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천주교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표 12-5 | 우리나라 종교 인구 수의 변화

(단위 : 명)

	내국인	종교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8,059,624	6,489,282	1,865,397	483,366	92,302		26,818	11,030	175,477
1995	44,553,710	22,597,824	10,321,012	8,760,336	2,950,730	210,927	86,823	62,056			170,153
2005	47,041,434	24,970,766	10,726,463	8,616,438	5,146,147	104,575	129,907	34,550	45,835	3,766	163,08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9

03

기부



대학생 김하늘씨(22)씨는 방학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동네에 있는 복지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평소 TV를 통해 가수 김장훈, 탤런트 차인표씨 등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신도 꼭 참여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기부

- ◎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보육원이나 개인 등 대상자에 대한 직접 후원, 월드비전 등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구세군, 길거리 적선, 부랑인이나 노숙인을 위한 후원이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 현금, 학교발전기금, 적십자회비 등은 모두 기부에 해당한다.
- ◎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등에 대한 경조사비, 종교단체 운영목적의 현금, 십일조, 보시, 성당이나 교회 사찰 건축현금, 헌혈, 정치단체나 정치인을 위한 정치후원금 등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인구 산정기준

- ◎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 지 여부.

관련 단체를 통한 간접 기부가 대부분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점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

기부금을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단체 및 언론기관을 통해 후원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종 종교단체나 기업을 통한 후원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기부금(후원)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항목으로 정부도 각종 세제 지원과 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해 동안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을 내는 등 기부를 한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36.4%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기부자가 많았고, 여성(34.2%)보다는 남성(38.7%)이 더 많았다.

표 12-6 | 기부경험과 형태(기부형태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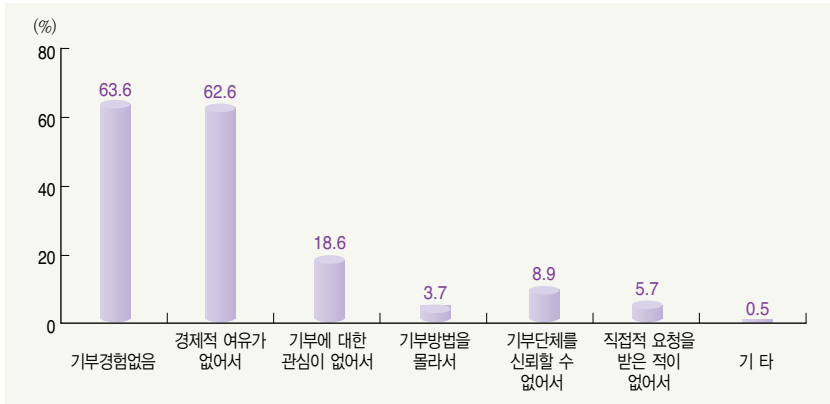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기부 경험		기부 형태	
		없음	있음	현금기부	물품기부
계		63.6	36.4	34.8	8.5
지역별	도 시(동 부)	62.6	37.4	35.8	8.9
	농어촌(읍면부)	68.2	31.8	30.2	6.9
성별	남 자	61.3	38.7	37.4	7.0
	여 자	65.8	34.2	32.1	10.0
연령별	13~19세	58.9	41.1	39.6	4.0
	20~29세	74.5	25.5	23.7	5.2
	30~39세	59.8	40.2	38.3	10.2
	40~49세	54.3	45.7	43.9	12.6
	50~59세	58.9	41.1	39.5	10.8
	60세 이상	76.0	24.0	23.0	5.8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62.6%로 가장 많았고,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가 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가 8.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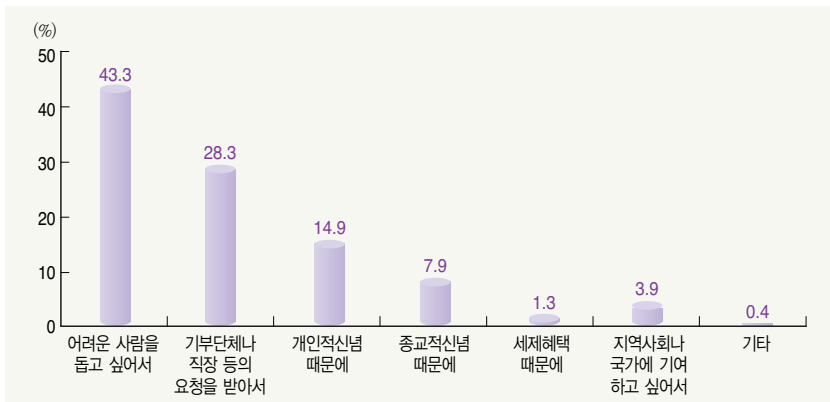
그림 12-2 | 기부하지 않은 이유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단체·직장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28.3%),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14.9%) 등의 순이었다.

그림 12-3 | 기부하는 이유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8%로 나타났고,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7.3%로 나타났다. 유산 기부의향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은 21.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10대는 49.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산 기부에 관해 세대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7 | 향후 기부의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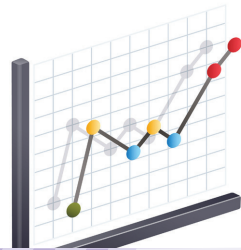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향후 기부의회향		유산 기부의회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		45.8	54.2	37.3	62.7
지역별	도 시(동 부)	47.5	52.5	39.1	60.9
	농어촌(읍면부)	38.2	61.8	29.2	70.8
성별	남 자	45.2	54.8	38.2	61.8
	여 자	46.4	53.6	36.5	63.5
연령별	13~19세	49.2	50.8	49.2	50.8
	20~29세	47.7	52.3	41.3	58.7
	30~39세	52.6	47.4	39.4	60.6
	40~49세	54.3	45.7	42.6	57.4
	50~59세	46.2	53.8	35.0	65.0
	60세 이상	26.0	74.0	21.2	78.8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04

자원봉사



직장인 김태환씨(28)는 퇴근 후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 중계를 보며 문득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났다.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던 김씨는 평소 축구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좋아하는 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한 역사적인 월드컵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소중한 추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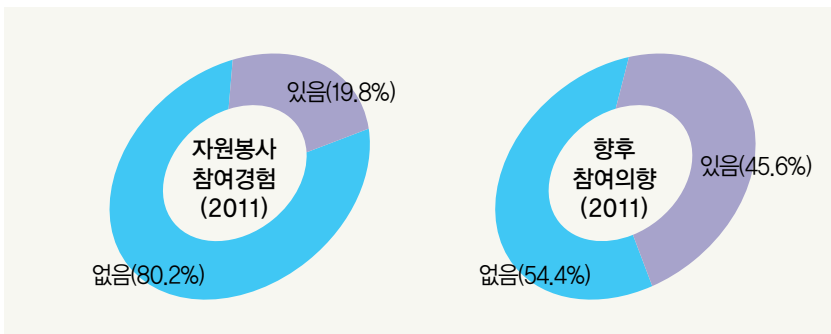
자원봉사

-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는 것을 일컫는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1항 및 제2조1항)
- 무보수로 반장이나 동대표 등을 맡거나 지식나눔, 중고교생의 봉사활동 등은 자원봉사에 해당하나 위법 행위로 벌금 대신 공공봉사 명령을 받고 자원봉사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명 중 한명이 자원봉사 참여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7월15일부터 2011년 7월14일까지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15세 이상)로 77.7%가 참여했고, 60대 이상이 7.2%로 가장 낮았다.

그림 12-4 |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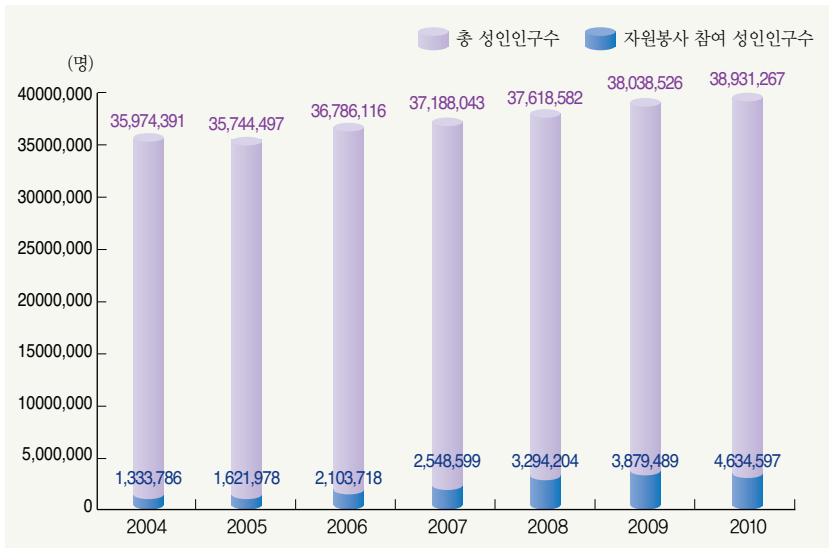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7.1회로 여자(7.6회)가 남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회당 4.4시간이었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많은 국제 행사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문화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자원봉사센터 설치 이후 자원봉사자수가 매년 17% 이상 증가, 2010년 12월에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463만4,597명에 이르렀다.

그림 12-5 | 자원봉사 참여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참여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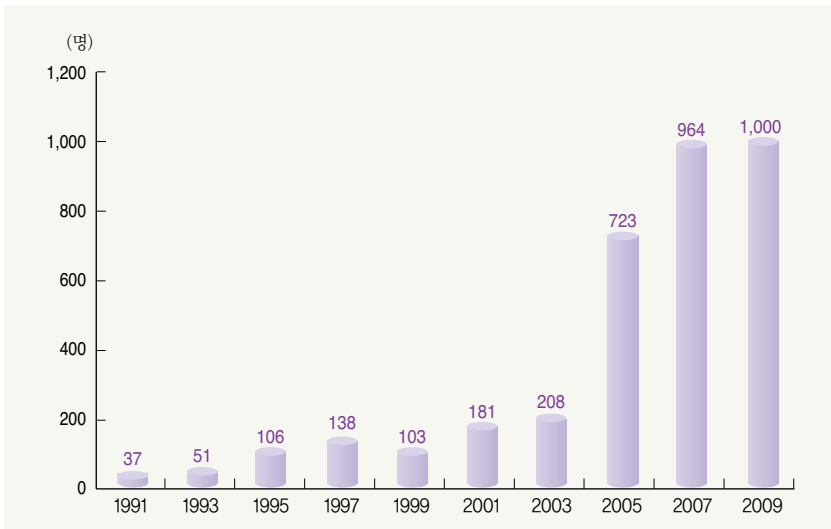
XII
사회복지
참여현황

해외자원봉사활동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봉사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기관을 통해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2009년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수는 1,000명으로 10년 전 103명에 비해 9.7배 증가했다.

그림 12-6 |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주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한 개인 및 단체 기준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파견실적」 각년도



알기 쉬운 사회지표해설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통계청

발행인 우기종

발행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인쇄 이문인쇄(주) TEL.042-472-4600

ISBN 978-89-5801-281-893310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042-481-2240, 22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미래로 통하는 빛 -

